



**2013**

**하자  
애뉴얼  
리포트**





지속 가능한

사은 위

2.25-27



# 목차

## haja profile 5

조직도  
2013년 연혁  
재정 현황

## 청소년 진로교육 10

일일직업체험  
청소년 토요일학교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청소년 창의캠프 C-cube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 : 생각하는 청개구리  
라이프디자인캠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청소년 진로콘서트  
주말활동사업(놀라운 토요일)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진로교사 연수  
비진학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사업

## 하자 네트워크학교 71

네트워크 학교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연금술사 프로젝트  
영세프스쿨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 마을생태계 93

하자허브 94  
허브 멤버십  
자공공 아카데미  
나눔부엌  
허브 커뮤니티 카페  
허브 갤러리

## 하자허브공방 113

리사이클 디자인공방  
‘무.나.사’ 자전거공방

## 마을 네트워크 & 파트너십 사업 120

마을 의례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달시장  
대외 홍보  
하자투어

# haja profile

조직도

2013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들

재정현황

# 조직도

센터장  
부센터장

{운영지원부}

경영기획팀

팀장 1명  
인사·총무 1명  
회계·행정 1명  
자원·물품관리 1명  
전산관리 1명

시설팀

팀장 1명  
시설관리 1명  
보안 2명  
미화 3명

{기획부}

교육협력팀

팀장 2명  
교육기획 2명  
직업체험 1명  
외부협력 5명  
홍보 1명

학교운영팀

학교장 1명  
팀장 1명  
교사 4명  
공동수업 2명

허브공방팀

허브 4명  
공방 4명

# 2013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들

1월 '좌절금지 희망프로젝트' / '휴(休)카페와 함께하는 성장워크숍'

1월 19일 하자 청소년 동아리 쇼하자

1월 19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쇼하자

2월 26일 하자허브 멤버십 방들이 파티

3월 4일 영세프스쿨 4기 입학식

3월 5일 하자작업장학교 2012년 가을학기 수료식/ 2013년 봄학기 입학식

3월 16일~5월 4일 토요일진로학교 1기 '청소년이 만드는 미니극장 - 극장 안에 숨겨진 수많은 직업들'

3월 20일~5월 22일 '자공공 아카데미 2기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3월 21일 하자마을 입촌식 '立村大吉'

3월 22일 하자허브 커뮤니티카페 재오픈

3월 29일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

5월 13일 영세프스쿨 제주 슬로비 오픈

5월 20일 하자마을 성년식

5월 25일~7월 27일 청소년토요일진로학교 2기 '버려진 동물을 위한 [ ] 제작 프로젝트'

5월 31일 달시장 개장

6월 19일 나눔부엌 오픈

6월 20일 청소년 진로콘서트

6월 28일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첫 쇼하자

7월 30일~8월 2일 청소년창의캠프 'C-cube'

8월 6일~8월 9일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10월 8일~10월 17일 라이프디자인캠프

10월 12일~11월 16일 청소년토요일진로학교 3기 '지구를 살리는 일, '쓸모'를 만들다'

10월 25일~10월 27일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11월 19일~11월 21일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1월 28일~11월 29일 로드스폴라 쇼케이스 '카바레 사이공 1막 13장'

12월 7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공유마당

12월 13일 허브 매듭짓기 파티

12월 13일 달시장 달달파티

12월 18일 하자마을 생일잔치

12월 20일 영세프스쿨 4기 수료식 'Young Chef Party'

# 재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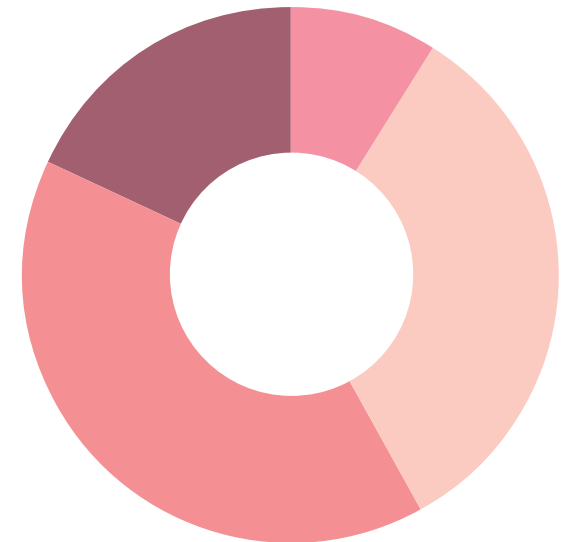
## 하자센터 수입현황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사업수입	프로그램 강습료, 시설이용료		361,767
사업외수입	이월금, 법인전입금, 기타		1,328,764
시비보조금	서울시 운영보조금		1,618,147
공모사업 보조금	<b>세부내역</b>	<b>재원처</b>	<b>보조금 총계</b>
공모·외부지원사업 보조금	비진학청소년 진로설계 프로젝트(서울시)	서울시	748,926
	비진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프로젝트(서울시)	서울시	
	중등토요진로학교(서울시)	서울시	
	청소년운영위원회(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경진대회(서울시)	서울시	
	놀라운토요일 서울EXPO(서울시)	서울시	
	창의캠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시설관계자 권역별연수	서울시교육청	
	마을장터 달시장	영등포구	
	대안교육 지원사업	서울시학교밖지원종합지원센터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동아리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연금술사	아름다운재단	
	창의인재 육성사업-생각하는 청개구리	한국암웨이	
	강화는대학	교보생명 사회공헌위원회	
	영등포자활 자전거공방 워크숍	영등포자활센터	
총수입			4,057,604

2013수입현황



총수입 4,057,604 천원

- 사업수입 9% 361,767
- 사업외수입 33% 1,328,764
- 시비보조금 40% 1,618,147
- 공모사업보조금 18% 748,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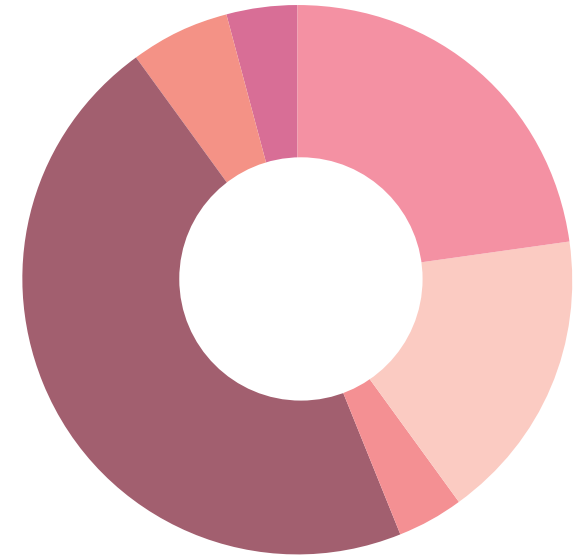
## 하자센터 지출현황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인건비	인건비	732,488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52,991
시설비	시설유지, 관리 등	145,399
사업비	<b>세부내역</b>	<b>사업비 지출 총액</b>
	청소년 진로(일일직업체험, 청소년 진로콘서트)	1,513,655
	청소년 창의캠프(창의캠프, 커리어워크)	
	비진학청소년 진로설계(라이프디자인캠프, 내인생의 스프링캠프)	
	중등토요진로학교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동아리(흑이심, DJ301)	
	교육포럼(교사활동가영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창의인재 육성사업-생각하는 청개구리	
	비진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프로젝트	
	놀라운토요일 서울EXPO	
	대안교육 지원사업(네트워크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허브네트워크 조성	
	자공공아카데미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연금술사	
	강화는대학	
	사회적경제 아이디어경진대회	
마을장터 달시장		
영등포자활 자전거공방 워크숍		
사업외지출	예수금, 예치금	193,016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과년도지출 등	123,373
<b>총지출</b>		<b>3,260,922</b>

### 2013지출현황



총지출 3,260,922 천원

- 인건비 23% 732,488
- 운영비 17% 552,991
- 시설비 4% 145,399
- 사업비 46% 1,513,655
- 사업외지출 6% 193,016
- 예비비 및 기타 4% 123,373

# 청소년 진로교육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지원 및  
전환기 진로교육과정 모델 개발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사업 이름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대상 : 14~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1월~12월 매주 수, 금(1회 총 2시간)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1인당 7,000원
- 장소 : 하자센터 각 워크룸
- 총 사업비 : 85,091,936원
- 총 참여인원 : 12,453명(연인원)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업인과의 만남과 대화 및 간단한 관련 작업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인 멘토가 들려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업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구성으로서 1회 총 2시간이 소요된다. ‘강의’보다는 ‘경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프로젝트로, 총 20여 개 창조산업분야 및 대안적 직업군이 개설되어 있다.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개발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와 협동, 소통의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하자센터가 일반학교 현장의 수요를 최대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연 1만 2천 여 명의 학생들이 하자센터를 다녀갔다.

● 진행

\* 운영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30~12:30							
1:30~3:30							
2:00~4:00							
2:30~4:30							
3:00~5:00							
3:30~5:30							
4:00~6:00							

\* 이용 실적

구분	라디오	그래피티	명함	보컬	영상	패션	게임	뮤지컬	천연염색	네일	분장	댄스	포장	플로리스트	pop	마술	목공	게임2	도시농부	총계
횟수	39	71	20	68	75	71	36	41	36	68	87	28	19	28	19	73	59	38	6	882
인원	597	1005	287	970	1034	1014	480	608	507	1003	1236	370	253	362	249	1050	815	532	81	12,453
강사	3	2	1	1	3	2	1	3	1	2	3	3	1	1	1	5	7	2	4	47

구분	참가학교			참가단체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복지관 등	
이용시설(곳)	160	75	6	21	262
이용인원(명)	8057	3880	115	401	12,453
다회차 참여 내역	3회 : 남서울중/부천소명여중/안화중/용화중/성곡중/성호고/수명고/금촌고/수도여고 4회 : 부인중/노일중/화곡보건경영고/신서고/동일여고/원미고 5회 : 까치울중/안화중/안천중/소명여고 6회 : 성곡중 9회 : 부천수주중 11회 : 금곡고 12회 : 부천수주중 14회 : 통진중				
장애우 청소년 참여내역	*기관 : 2곳 / 학교 : 11곳 1회 : 대전전환교육거점지원센터/김포특수학급연합 2회 : 세마고/김포신양중/늘푸른나무복지관/서울애화학교 3회 : 성호고 4회 : 병점고/신서고 5회 : 안화중 6회 : 성곡중 7회 : 부천수주중 8회 : 통진중 (총 633명)				



※다회차 참여학교는 1회 참여 당 1곳으로 표기함.

● 성과

2013년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일선학교 등 일반 청소년들을 하자센터에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진로 관련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현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에는 하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최대 규모로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모든 시간대를 30분 간격으로 빈틈없이 운영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 체험 청소년 수만 6천명, 하반기까지 1만 2천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하자센터를 다녀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별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도시농부, 목공, 에코패션디자이너 등 대안적 직업군에 대한 신청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목공하자’의 경우 총 59회, 8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도시농부하자’는 텃밭 상황과 작물의 수확시기 등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진행되었다. 특히 ‘도시농부하자’의 경우엔 프로그램 참여 후 학교에서도 텃밭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강사와 학교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에코패션디자이너하자’는 강사 사정 및 커리큘럼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한 달에 2~3차례 가량 학교 측의 꾸준한 신청이 있었다.



● 전망

앞으로 10년 안에 현존하는 직종·직장의 80%가 소멸하고, 25년 후에는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고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소년 진로의 키워드는 스스로 일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진로 역량개발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일일직업체험은 ‘스스로 돕고, 서로 돕고, 공공을 돕는다’는 자공공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일에 대한 태도를 배우며,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직업군을 2시간 체험형과 3시간 작업형으로 재편하는 한편, 공방(작업장)에서 작업자와 함께 생활기술을 익히고 몸의 감각을 복원함으로써 자립역량을 키우는 공방형 프로그램을 확대, 배치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진로에서 직업(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이루려 한다. 또한 지난 7년간 하자의 대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만큼, 참여학교들과의 연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 더 심화된 형태로의 도약을 시도할 계획이다.



●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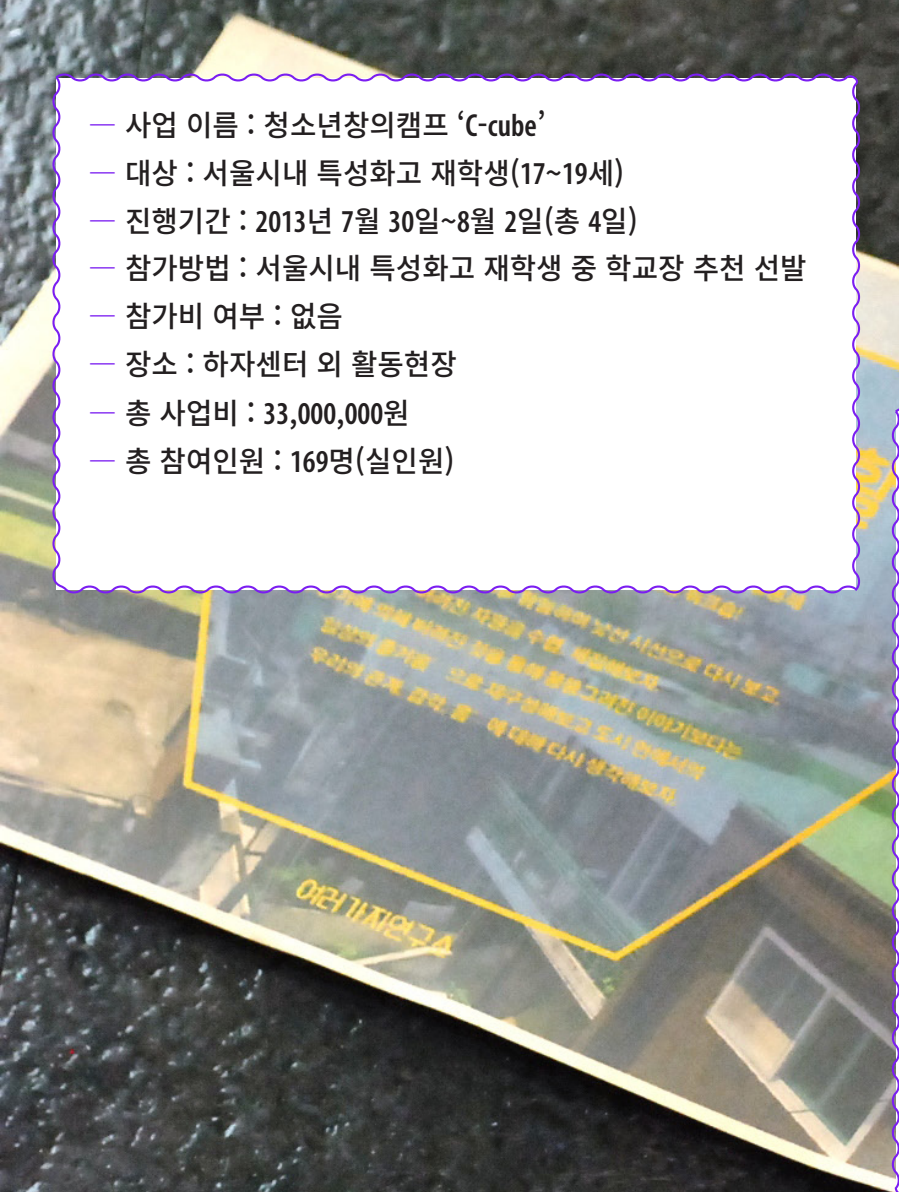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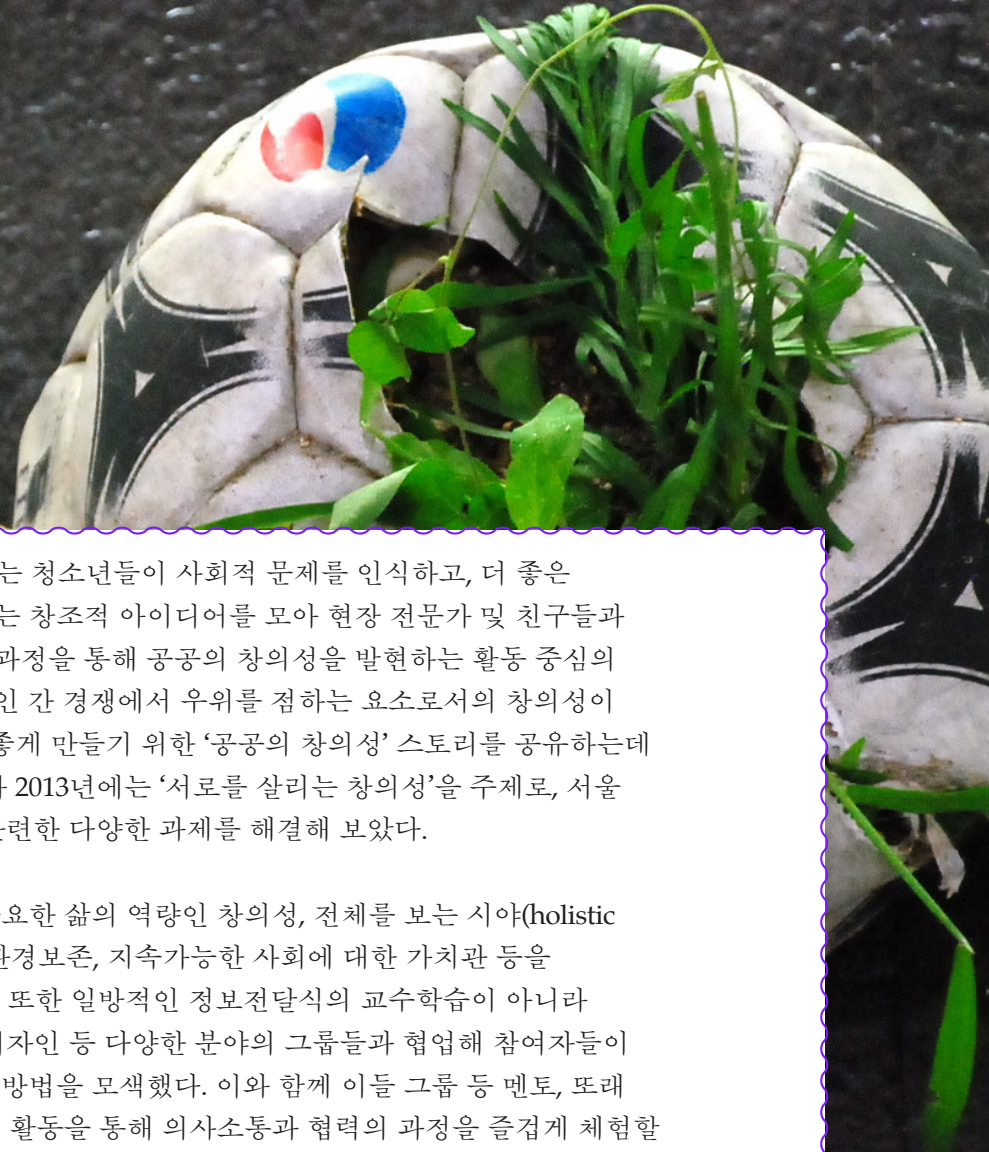
- 현장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 <내일신문> 2013.7.29
  - 직업 미리 체험하고 꿈 키워요 / <강원도민일보> 2013.4.8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481>

# 청소년 창의 캠프 'C-c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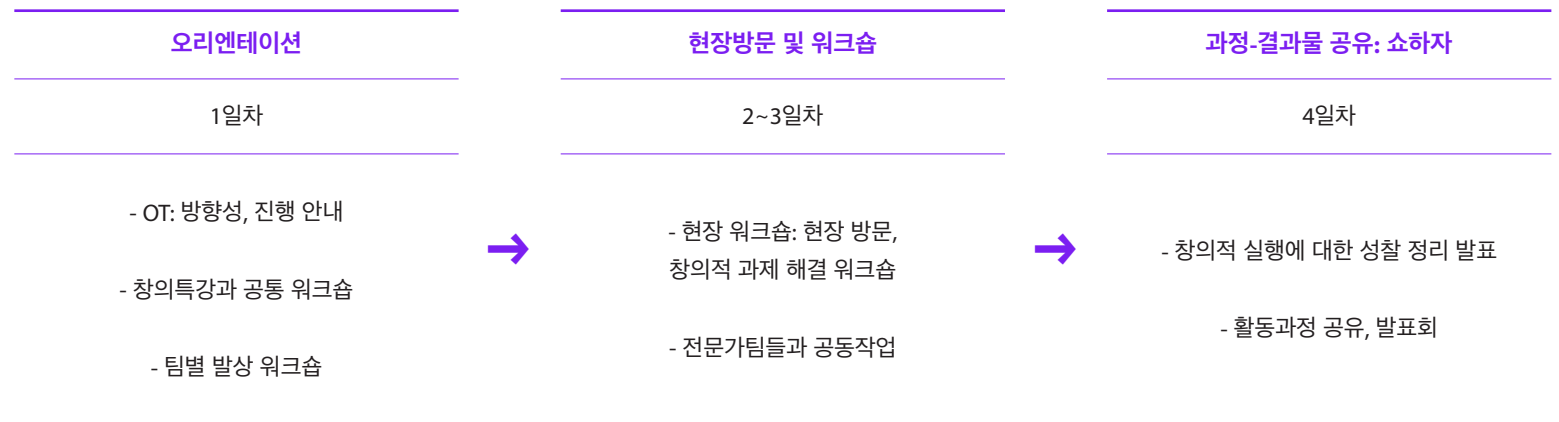
- 사업 이름 : 청소년 창의 캠프 'C-cube'
- 대상 :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17~19세)
- 진행기간 : 2013년 7월 30일~8월 2일(총 4일)
- 참가방법 :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 선발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외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33,000,000원
- 총 참여인원 : 169명(실인원)

● 청소년 창의 캠프 'C-cube'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아 현장 전문가 및 친구들과 함께 행동으로 시도해보는 과정을 통해 공공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형 캠프이다. 개개인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소로서의 창의성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공공의 창의성' 스토리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서로를 살리는 창의성'을 주제로, 서울 곳곳의 '버려지는 것들'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 청소년에게 중요한 삶의 역량인 창의성, 전체를 보는 시야(holistic view), 문제해결능력, 자연환경보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가치관 등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식의 교수학습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화예술, 인문,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들과 협업해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이들 그룹 등 멘토, 또래 친구 및 청년 선배들과의 팀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버려진 것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찾아보고, 버려진 것들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담아 쓸모를 만들어보는 과제를 팀별로 실행</li> </ul>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캠프의 운영 안내 및 미션 공유</li> <li>• 함께 서로를 살리는 창의성에 대한 관점 이해</li> </ul>
발상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점과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공동 창작 워크숍</li> </ul>
액션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려진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여 쓸모를 만들어내는 공동 작업. 현장 방문 및 전문가와 공동 진행</li> </ul>
프레젠테이션 &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와 해결과정에 대한 팀별 프레젠테이션</li> <li>• 멘토의 축하와 공연 등 작은 축제</li> </ul>





### 발상 워크숍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무감각하게 살던 일상을 다시 돌아보고,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이다. 발상워크숍은 문화예술, 인문, 디자인, 기술 등 각 분야 작업자들과 함께 시간, 공간, 소리, 시각, 기억 등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일상생활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느껴보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워크숍이다. 팀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고 관계맺기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워크숍명	진행팀
창의적 삶의 리허설-포럼연극	이야기꾼의 책공연
You and ME dot SONG <유앤미닷송>	문구
소리를 조각하자!	강일+지연
너의 기억을 보여줘	기억발전소
뮤직 스크램블	유유자적살롱
공간을 옮겨라-넓혔다, 좁혔다, 종횡무진‘하자’	조슈아나무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네시:이십분
나-너-우리 발견 공동체 워크숍	창의소통작당소

### 액션 워크숍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장에서 시도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액션워크숍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회적기업가, 커뮤니티 디자이너, 적정기술, 생태 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실행해보는 워크숍이다. 팀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일을 만들어보는 단계이다

워크숍명	진행팀
햇별은 짹짹 그늘막은 시원~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 공방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업사이클링	문구
소리를 조각하자!	하자센터 무.나.사(무한나눔사이클) 자전거공방
거실의 애물단지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 달려라 피아노	더 하모니
꽃과 씨앗을 들고 싸우는 게릴라 농부들	게릴라농부들
변기를 점령하라!	더 하모니 + 나너울
같이[가치] 사는 공간 디자인	씨디티앤토
Touch for Good ~!	터치포굿
쓰레기로 만드는 음악	음악가 김동현 + 재생미술가 천원진
도시수렵생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시캠핑	여러가지연구소
빛물이 바뀌주는 인간의 조건	핸즈적정기술협동조합

\* 자원활동가 운영

**청년 자원활동가 ‘파니’**

파니란 ‘Pan+Imagine’의 줄임말로, 판을 상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자원활동가를 뜻한다. 2009년 제 1회 창의캠프부터 주도적으로 캠프 운영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외부 그룹 멘토, 하자센터 판돌 등 스태프와는 달리 10대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의 선배로서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캠프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단순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살피며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멘토 역할을 통해 청년들 역시 미래의 일을 위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전 워크숍	- 센터 및 캠프 소개 - 공간 워크숍, 연극 공동체 워크숍 롤플레이팅, 상황 및 역할 시뮬레이션
아침 열기 & 회고	- 팀 활동 시작 전과 후 전체 모임을 통한 마음 열기와 회고 진행
사후 운영	- 평가회의와 비정기적 모임

● 성과

\* 분야 확장

이번 창의캠프에서는 총 18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회혁신가, 작업자, 사회적기업 및 활동가들과 연계하였다. 작년까지 문화예술 분야가 대부분이었다면 2013년에는 적정기술, 대안건축 등 지속가능성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발굴해 결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소년 교육을 매개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가자 모집 및 규모

서울시를 통한 1차 모집인원은 180여 명이었으며 사전에 참가자 전원과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연락 등을 진행하여 실제 참여의사 및 현황을 파악하여 총 160여 명이 참여하였다. 2일차, 3일차로 프로그램이 거듭되면서 드러나는 ‘자발적 유효 출석률’이 90%에 달하는 등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실제 참여 인원은 팀 상황에 따라 달라서 팀당 13명에서 19명까지 다양했는데, 밀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15명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운영

이번 창의캠프는 크게 캠프 안내, 발상워크숍, 액션워크숍, 쇼하자 4단계로 구성하였다. 그간 창의캠프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공공의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창의 정의는 그대로 살리되 참여자들이 중점적으로 경험할 활동 면에서 변화를 주었다. 작년까지는 관점의 전환과 아이디어 도출이 주요 활동이었으나 참여 청소년들의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현장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좀 더 공공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행동에 참여하는 경험 자체를 주요 활동으로 설정했다. 이는 사회 전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남의 일’로만 여기는 개인주의적 태도가 팽배한 현실에서 ‘나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히려 몸을 쓰는 활동이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이에 주제는 ‘서로를 살리는 창의성’으로 크게 설정하되 단지 사람만이 아닌 자연과 사회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도구를 사용해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였다. 특히 모든 활동과 결과물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소유하고 활용하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공공장소에서 공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전체적으로 주제와 활동, 4일 간의 구성은 의미있었다는 평가이다.

첫 날 OT는 2일차부터 10개 팀으로 나누어 각자 활동을 하기 전에 주제를 공유하는 역할로서 유효했다. 예년에는 주제와 관련한 전체 워크숍이 첫 날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주제를 공유하는 전체 활동이 OT뿐이어서 팀 빌딩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한 보완이 요구되며, 차후 첫 활동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몸을 쓰는 활동을 첨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후 1회차의 발상워크숍을 통해 일상의 조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보고, 즐겁게 팀



빌딩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수년째 창의캠프와 함께하며 노하우가 쌓인 팀의 경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팀별 평가에 대한 편차가 컸다. 액션워크숍의 경우에는 공공적 주제에 기반한 실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교육이 가능한 팀을 찾아 새롭게 세팅했기 때문에 하자과 처음 일해보는 팀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의견을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대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 주제 등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었으며 활동도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소하자는 각자 다른 10개 팀에게 그간의 문제의식과 활동 경험을 알리는 ‘공유’의 의미를 강조하여 프레젠테이션, 영상, 연극, 포스트스토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임으로써 캠프 전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청년 자원활동가(파니)들은 스태프들과는 또 다른 선배 역할을 하면서 팀별로 관계맺기와 대화, 팀워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매 회차마다 마음열기와 회고를 진행하며, 청소년들 개개인의 상태와 변화를 관찰해 기획팀에 공유해주는 역할을 해냈다.

#### \* 참여자 피드백

각 워크숍이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의 회고를 모았으며 전체 캠프를 종료할 때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가와 재미있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평균 85%를 기록했다. 특히 액션 워크숍이 의미있었다는 의견은 93.4%, 재미있었다는 의견은 93.2%를 보였다. 액션워크숍을 통해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43%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꼽았으며 ‘나의 행동을 통하여 기대되는 변화와 보람’을 28.1%,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17.4%로 꼽았다. 캠프를 통해 배운 창의 개념으로 ‘서로 협동하며 실천하기’, ‘사소한 것의 중요성’ 등을 꼽았으며, 캠프를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얻은 것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법’, ‘자신감’, ‘협동심’ 등을 꼽았다. 참여자 제안 항목에서는 ‘숙박형 캠프 전환’에 대한 의견도 13.2%,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7.4%)도 나왔다.

#### ● 전 망

창의캠프는 목표와 구성이 분명하여, 초기 기획 단계에서 세밀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한다면 다양한 주체들이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캠프의 콘셉트 및 활동과의 연계 기획과 자원활동가 등 운용에 따라 캠프의 질이 결정되기에 전체적 운영 기준과 방향 매뉴얼 정리가 유용할 것이다. 개별 워크숍 모음이 아니라 주제에 따른 강사의 발언 및 질문, 팀워크를 통해 활동을 발표하는 전체 구성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대상이 참여해도 유효한 특성이 있다. 중학생이나 청년 대상 버전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3개월 정도의 심화 프로그램,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올해 참여 팀들은 실제 후속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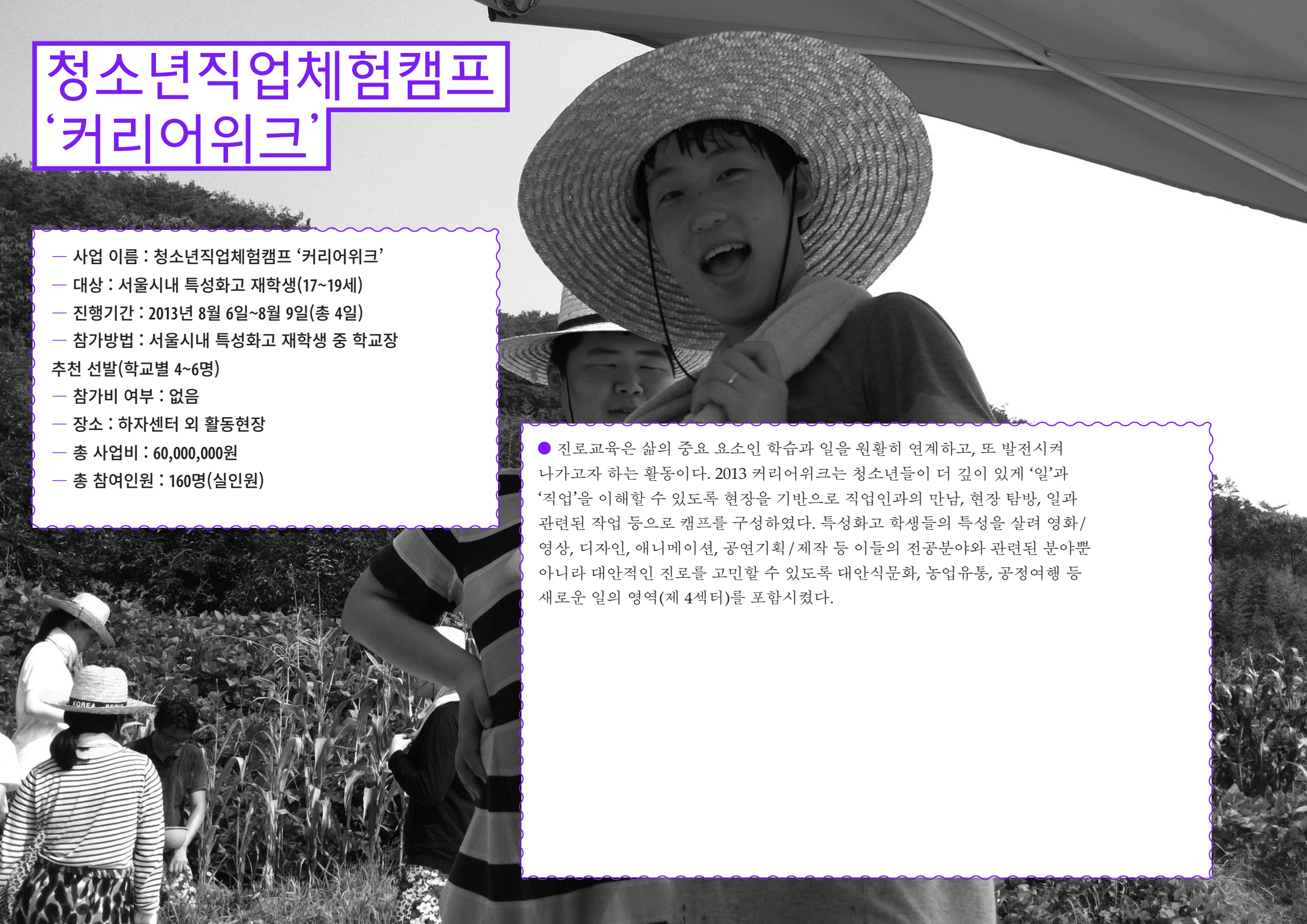
#### ●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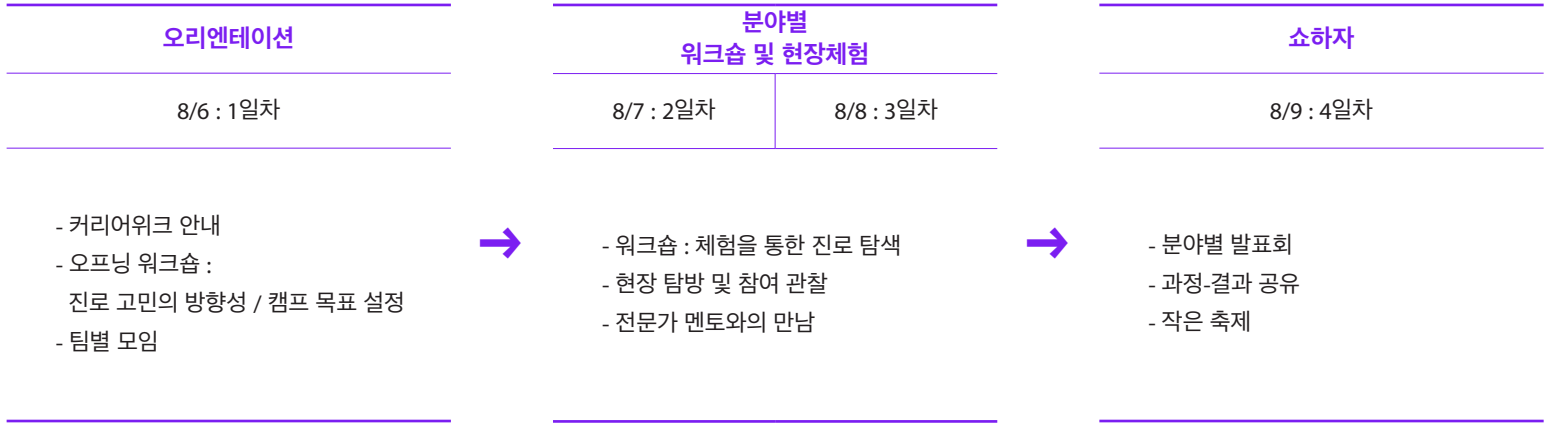
- 리뷰 <http://www.haja.net/?p=4230>
- 스케치 영상 <http://vimeo.com/71735537>

#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 사업 이름 :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위크'
- 대상 :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17~19세)
- 진행기간 : 2013년 8월 6일~8월 9일(총 4일)
- 참가방법 :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 선발(학교별 4~6명)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외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60,000,000원
- 총 참여인원 : 160명(실인원)

● 진로교육은 삶의 중요 요소인 학습과 일을 원활히 연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활동이다. 2013 커리어위크는 청소년들이 더 깊이 있게 '일'과 '직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기반으로 직업인과의 만남, 현장 탐방, 일과 관련된 작업 등으로 캠프를 구성하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영화/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공연기획/제작 등 이들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대안적인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대안식문화, 농업유통, 공정여행 등 새로운 일의 영역(제 4섹터)를 포함시켰다.





● 진행

내용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기간	8월 6일	참여인원	1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김진옥(하자센터 교육기획팀)</li> <li>○ 내용 : 처음 온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자센터에 대한 소개와 안내 및 커리어워크에 대한 소개</li> </ul>			
오프닝 강연 :선배 이야기	기간	8월 6일	참여인원	1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박정규(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공방)</li> <li>○ 내용 : 특성화고 선배가 들려주는 색다른 진로특강.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을 자퇴하고 자전거여행길에 오르는 등, 마음에 맞는 일을 찾는 과정을 흥미롭게 들려 주었다.</li> </ul>			
내용 및 평가	분야별 직업체험			
A. 요리 대안식문화	기간	8월 7일	참여인원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오가니제이션요리</li> <li>○ 내용 : 도시 속에서의 슬로라이프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식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셰프와 매니저 등을 만나 먹거리, 대안적 식문화와 관련된 일과 삶을 접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먹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느끼는 섭식명상, 셰프와 함께 피자 및 핑거푸드를 만드는 체험도 해보았다.</li> </ul>			

B. 방송 미디어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숨쉬는미디어교육 ‘자몽’</li> <li>○ 내용 : PD, 방송작가 등 방송·미디어 분야 직업인들을 ‘사람책’이란 형식을 통해 만나보고, 또 직접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제작과 운영을 꾸려나가는 공동체 라디오 ‘마포FM’을 주 현장으로 선택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등 공적인 기능 역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li> </ul>			
C. 패션 재활용디자이너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리블랭크</li> <li>○ 내용 : 재활용 디자인을 콘셉트로 하는 리블랭크와의 워크숍을 통해 일반 패션과의 차이점을 느끼며 재활용 패션 분야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션디자이너 김경미의 작업실과 동대문시장 탐방을 통해 현재 패션의 디자인 경향과 유행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팀별로 콘셉트를 정하여 필요한 원단 및 소품을 직접 구매해 의상 제작, 사진 촬영, 런웨이(미니패션쇼) 등 패션 분야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보았다.</li> </ul>			
D.만화 애니메이션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문화예술교육연구소 그곳</li> <li>○ 내용 : 만화·애니메이션의 원리를 다양한 도구를 통해 알아보고 직접 애니메이션을 기획/창작해 보았다. 부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을 방문하여 초기 애니메이션부터 현재 변모한 웹 기반 애니메이션까지 둘러보고 인기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일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팀을 나눠 컷애니메이션 작업을 구성해 제작해보았다.</li> </ul>			
E.공연기획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2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유유자적살롱</li> <li>○ 내용 :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 대중음악계의 이슈인 아이돌 그룹을 기획해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참가자들 스스로 기획, 진행해 보았다. 모의기획사를 창업하는 것으로 시작해 기획, 기술-연출, 홍보 등 세 팀으로 나뉘어 공연기획 분야의 직업 세계를 경험했다. 또한 국립극장과 공연기획사 인넥스트트랜드 등 현장을 방문해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도 살펴보았다.</li> </ul>			
F.농업유통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주)생생농업유통</li> <li>○ 내용 : 10대에 이미 농산물 유통계에 뛰어들 김가영 대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통해 청년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 분야로서의 농업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현장인 전라도 곡성으로 내려가 직접 고추 등 농산물을 수확하고,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농촌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li> </ul>			

G.영화·영상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불타는 필름</li> <li>○ 내용 : MBC 방송국을 탐방하며 영상과 관련된 현장을 둘러보고, 특수분장을 직접 해보며 영화계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하나의 현장이었던 C47 포스트 스튜디오에서는 영화 후반작업을 담당하는 폴리아트리스트를 만나고 직접 녹음에 참여해봄으로써 영상 제작 과정을 폭넓게 경험하였다. 이어 사진으로 만드는 영상-포토로망 작업을 팀별로 기획해 작은 영상물 한 편을 완성하면서 팀 작업의 묘미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li> </ul>			
H.공정여행	기간	8월 6일~9일	참여인원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 플레이플래닛</li> <li>○ 내용 : 지역 주민들이 가꿔나가는 전북 완주 비비정마을을 둘러보며 대안적인 여행-공정여행-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여행자 노트를 만들어 기획하면서, 소비하는 관광 개념의 여행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을 몸소 느껴보았다. 비비정마을의 공사현장에 직접 참여해 노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농가 레스토랑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밥상을 나눠먹는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일과 공동체적 삶을 경험했다.</li> </ul>			
쇼하자	기간	8월 8일	참여인원	1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하자는 캠프의 마무리로 각 분야 참가자들이 4일에 걸친 현장체험/멘토와의 만남/워크숍/강연 등 전 과정과 이를 통한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이다. 각 분야별로 4일간의 활동(혹은 제작한 결과물)을 사진과 스피치를 통해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작은 축제로 진행되었다.</li> </ul>			

## ● 성과

‘진로’에 대하여 청소년들조차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안정된 직업과 일자리를 찾는 지금의 현실에서 커리어위크에서만큼은 청년 선배들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남들과는 다른 경로로 삶을 모색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는 자리를 첫날 오전에 배치하였다. 하자센터 자전거공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규(미라클)의 이야기는 기존 직업의 틀에 갇혀 상상력이 제한된 청소년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커리어위크의 팀별 진행은 현장탐방, 멘토와의 만남, 워크숍 등 크게 세 꼭지의 프로그램이 사흘 일정 속에 녹아 있다. 각 분야 전문 멘토들이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현장에서 밀도있는 관찰을 하고, 워크숍에서는 팀 작업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보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 만나 협업하는 경험은 쇼하자 준비과정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 3일간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참여 청소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농업유통과 공정여행은 올해도 첫날을 제외하고 1박 2일 여행으로 구성되었다. 생소한 직업군에 지방 여행까지, 해당 팀 청소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공사 현장과 고추밭 수확 현장에 직접 참여해 노동을 하고, 또 실제 그 일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이 많았다.

## ● 전망

커리어워크의 전체 방향성을 공유하는 공동워크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날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이 개별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현 구조상 전체 방향성은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현재 직업은 곧 돈, 밥벌이 등으로 인식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전체 워크숍이 들어가지 않으면 각 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분명한 의미 전달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커리어워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커리어’, 삶과 일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팀과 연계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한 기준으로 두고, 업태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지, 자기의 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지, 명확히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내년에는 직종별로 커리어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의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작업자 또는 기업가 등을 만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 공간을 연계해 직업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비되는 ‘직업’이 아니라, ‘일’을 통해 경험과 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 ‘진로’에 대한 정해진 답이 아닌, 내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기획하려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적정기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일에 대한 가치와 비전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 커리어워크에서는 공정여행 분야를 통해 미리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었다.

여행 또는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캠프 형태에 대한 고민도 과제로 남았다. 1박2일 여행이 포함되었던 농업유통과 공정여행 팀에서는 참가자들이 진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해병대 캠프 사고 등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다만 숙박형 캠프로 간다면, 대규모 캠프보다는 한 명 한 명 참가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소규모 집중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 more info

· 커리어워크 결과보고 영상 <https://vimeo.com/72241569>



# 청소년 토요진로학교

- 사업 이름 : 청소년토요진로학교
- 대상 : 일반 중학교 청소년(13~15세)
- ※프로그램별 주 대상 설정
- 진행기간 : 2013년 3월~12월
- 참가방법 : 개인 신청 및 선발
- 참가비 여부 : 프로그램마다 상이
- 장소 : 하자센터 워크룸 외 학교 및 지역 현장
- 총 사업비 : 23,345,040원
- 총 참여인원 : 1000명(연인원)

●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시수 확대 등 사회적으로 공교육 중학교 시기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하지 못하고 적성검사 등을 통한 직업 매칭식 패러다임에 기반한 분절적 프로그램이 다수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청소년 주말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 하자센터는 통합적 내용의 토요 중등 진로활동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자체 청소년 진로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향후 진로교육 코스워크 제안에 유용한 요소들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2013년에는 총 3기에 걸쳐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 진행

1. 토요진로학교 1기 ‘청소년이 만드는 미니극장 - 극장 안에 숨겨진 수많은 직업들

\* 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3월 16일 ~ 5월 4일
- 대상 : 14세~16세 청소년
- 장소 : 하자센터 내외부, 현장학습 (성미산마을극장, 영화제 등)
- 총 사업비 : 세입 360,000원, 세출 4,589,290원
- 총 참여인원 : 162명(연인원)

\* 내용

이 프로그램은 진로모색 단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극장을 주무대로 하여 스스로, 또 같이 영화제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므로써 자신과 동료, 주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본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힘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소비자로서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창작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협업을 하게 되는 영화제 작업을 통해 스스로, 또 같이 기획하고 진행한 뒤 결과까지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재미와 의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세부 프로그램

구분	장소	활동	세부 내용
1주 (3/16) 오리엔테이션	하자센터 내 공용공간, 미니극장	○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약간 낯설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 갖기 ○ 하자센터 내 미니극장을 살펴보고, 극장을 새롭게 가꾸는 방법 모색하기	○ 아이스 브레이킹 - 얼굴 그리기, 자기소개, 하자이름 짓기 ○ 프로그램 안내 ○ 하자센터 미니극장 답사 ○ 나 홀로 1분 영화 관람 ○ 벽장에서 혼잣말하기 셀프카메라 ○ “극장은 ○○이다” 정의하기
2주 (3/23) 체험활동	성미산마을극장, 롯데시네마 흥대점	○ 성미산마을극장 방문을 통해 대안 공간을 접해 본다 ○ 인디다큐페스티발 현장에서 실제 영화제에 몸담고 있는 직업인을 만나 실질적인 기획 및 운영 경험을 듣는다 ○ 영화제 상영작을 관람해본다	○ 성미산마을극장 답사 ○ 인디다큐페스티발 답사 ○ 현장에서 전문가로부터 듣는 영화제 기획 및 극장 운영 이야기 ○ 영화 <춤추는 숲> 관람 ○ 스마트폰을 이용한 셀프카메라 활동

3주 (3/30) 팀 구성	하자센터 203호, 20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미산마을극장과 인디다큐페스티벌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극장과 영화제 이해</li> <li>○ 극장과 영화제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팀별 역할 이해</li> <li>○ 팀원으로서 자기역할 및 영화제 직업별 목표 상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외우기 게임</li> <li>○ 내가 경험한 극장과 영화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li> <li>○ 극장과 영화제 팀별 역할 소개</li> <li>○ 팀 구성 및 발표- 팀별로 공간 이동, 팀원 교류 및 활동 나누기</li> </ul>
4주 (4/6) 하자탐방!	하자센터 곳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 공간 탐색을 통해 영화제 운영 공간 감각 자극하기</li> <li>○ 팀 구성원과 친해지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 갖기</li> <li>○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소통, 표현에 대해 좀더 배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탐방</li> <li>○ 팀별 표현워크숍(3개팀 동시진행)</li> <li>○ 영화제 기획회의 및 리뷰</li> </ul>
5주 (4/13) 영화제 기획	하자센터 203호, 204호, 미니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을 영상매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li> <li>○ 팀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공유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촬영기법 설명</li> <li>○ 스마트폰으로 영상 표현하기</li> <li>○ 각자 촬영한 셀프카메라 공유 및 회고</li> <li>○ 2인 1조로 인터뷰하기</li> </ul>
6주 (4/20) 영상물 제작 워크숍	하자센터 203호, 204호, 미니극장, 노마드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 기획을 하면서 기획자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li> <li>○ 팀 내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경험을 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와 소개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li> <li>○ 전체 기획회의 통해 세부사항(영화제 제목, 슬로건 등) 결정</li> <li>○ 팀별 워크숍</li> <li>○ 팀별 활동 리뷰 및 인터뷰 촬영</li> </ul>
7주 (4/27) 최종 확인 및 리허설	하자센터 203호, 204호, 미니극장, 노마드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작업과 팀별 작업을 병행하며 영화제를 준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의를 통해 팀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케줄표에 맞춰 영화제 준비하기</li> <li>○ 영화제 당일 진행 준비 논의</li> </ul>
8주 (5/4) 영화제	본관 2층 공간, 203호, 204호, 미니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기획한 영화제를 실제 진행하면서 각 직업별 역할을 체험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 진행</li> <li>○ 후기 및 평가</li> <li>○ 1년 뒤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li> </ul>

### \*성과와 전망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실제 영화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중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소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8주 동안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과제가 버거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 멘토들 역시 청소년과의 경험 및 이해가 적어 눈높이에 맞춘 프로젝트 수행이 힘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향후 좀 더 대상자에 맞춰 사전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만약 토요일로 학교 영화제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 등 다른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긴 호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1학기, 2학기를 나누어 표현워크숍, 영화제 워크숍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주로 영화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매 회 회고지로 집계된 만족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평균 8~9점 정도.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표현워크숍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하자센터를 비롯해 성미산마을극장이나 인디다큐페스티벌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문화를 접하게 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more info

- 영화제 트레일러 <http://vimeo.com/72950985>
- 영화제 메이킹 필름 <http://vimeo.com/72950983>
- 인터뷰 영상 편집물 <http://vimeo.com/72950984>
- 전체 스케치 영상 <http://vimeo.com/72950986>



## 2. 청소년 토요일로학교-2기 ‘버려진 동물을 위한 [\_\_\_\_] 제작 project’

### \*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5.25 ~ 7.27 (총 10주)
- 대상 : ‘동물에 관심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디자인과정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을 만나고 싶은/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 협력해서 일해보고 싶은’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
- 장소 : 하자센터, 외부 현장
- 총 참여인원 : 청소년 34명(실인원), 360명(연인원)
- 총 사업비 : 4,800,000원

### \* 내용

본 프로그램은 2015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변화하는 진로교육 상황을 감안한 대안적 실험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기존 진로교육 주 대상 연령대가 고등학생인 것과는 달리 중등 연령대를 주 대상으로 설정했고, 현장 학교의 진로 동아리인 15~20명 단위를 한 팀으로 해 기획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활동이라는 점이다. 주제 알기-입체적 이해-할 수 있는

일 진행 이라는 3단계 구조의 워크숍 기반 활동으로 구성했다. 내용 면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타자와의 관계와 분리되어 이뤄지는 기존 진로교육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공공의 과제를 주제로 삼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직업인 및 단체들과의 만남, 실제 일 경험, 교실 밖 현장에서 몸을 사용한 협동작업,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적 일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와 사회적 성찰, 손작업의 결과가 연결되도록 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치’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어른들과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협력해서 해 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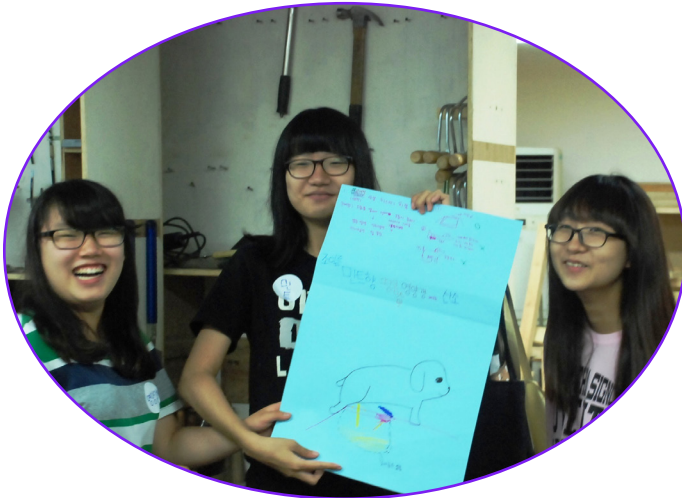
주제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 유기동물을 설정했는데 15명 모집에 2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으며 프로그램 시작 후에도 파주, 남양주, 용인, 수원 등이 거주지인 참여자들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적절한 주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의 평소 관심과 연결되는 고리를 잘 찾아 이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세부 프로그램

회차	단계	주제	내용	비고
1	도입	설정 과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만남: OT</li> <li>- 3 Keywords - 아이스브레이킹, 서로 알기</li> <li>‘나는 여기 _____서 왔다!’ ‘경험하고 싶은 것’ ‘기여할 수 있는 것’ 등</li> <li>- 활동 내용 및 강사 소개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이정인 외 1인)</li> <li>- 팀워크 경험 : 카드챌린지 워크숍</li> <li>- 선관념 확인 : 드로잉+스토리 작업</li> <li>‘나에게 ~이란’ ‘~ 것이 필요할 거야’</li> <li>- 유기동물의 현실 (영상 &lt;더 언더독&gt; 공동관람 후 제작자인 SBS 이승태 PD와의 만남)</li> </ul>	<p>설정과제를 둘러싼 일의 세계와 직업인을 만남: 먹고 사는 수단 뿐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인</p>
2	입체적 이해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만남 : 어떻게 할까? _사전활동</li> <li>- 현황 조사 및 인터뷰 계획 세우기</li> <li>- 현황(동물, 보호소, 사회구조) 소개 (동물행동심리연구소 대표 김윤정)</li> <li>‘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는 법’ (유기견이었다가 치유동물이 된 동물들 및 주인들과의 소통워크숍)</li> <li>- 기존 계획 수정 후 현장 방문 계획</li> </ul>	

3	입체적 이해	문제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 미션</li> <li>- 리포터가 되어 현장 전하기 : 기록 및 인터뷰 등 자율적으로 담당해 진행 /보호소와 동물 3마리</li> <li>○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보호소)</li> <li>- 공동_공간 파악</li> <li>- 팀별_담당자, 동물 등 팀별 인터뷰</li> </ul>	<p>설정과제를 둘러싼 일의 세계와 직업인을 만남: 먹고 사는 수단 뿐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인</p>
4		집중 문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하고 싶은 문제 결정 (다친 유기동물을 위한 보호대 가구 제작)</li> <li>- 팀별 해결하고 싶은 문제 결정</li> <li>- 질문을 통하여 초점화</li> <li>- 수의사에게 실제적 질문 (수의사 서정주)</li> <li>- 아이디어 제안</li> <li>○ 직업이 아니면서 유기동물 관련 일을 하는 이와의 만남 (약사이자 동물보호전문가 전진경)</li> </ul>	
5	할 수 있는 일 실행	해결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 진행</li> <li>○ 구체적인 ‘일’ 구상</li> <li>- 제작팀별 가상의 동물과 특성 설정</li> <li>- 실행안 만들기</li> <li>- 시간, 돈, 인력, 생각(철학)을 고려한 구상</li> <li>- 모형 또는 그림 도안 구성</li> </ul>	<p>몸을 쓰고 팀과 협업하여 타자에게 쓸모가 있는 물품 제작</p>
6		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진행</li> <li>- 역할 분담과 일 배우며 해보기</li> <li>- 팀별 물품 제작 (공간 및 물품 디자이너와 작업)</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점검 및 보완</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완성</li> <li>- 목표한 실행 마무리, 공간 정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과정 정리</li> <li>- 팀별 과정 정리, 발표 계획</li> </ul>		
10				

11	마무리	과정 공유와 나눔	○ 프로젝트 과정 정리 - 팀별 과정, 개인 회고 정리 - 포토스토리 등 간단한 품으로 정리 ○ 발표물 공유와 축하(블레싱) - 프로젝트 과정/진로활동으로서 느낀 점	
----	-----	-----------------	--	--



### \* 성과와 전망

1~5회차까지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사회의 구조 및 생명권까지 확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풀랑풀랑에서 직접 치유된 동물을 만나 워크숍을 같이 하고, 보호소에서 버려진 동물을 만난 경험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6~9회차까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작업에서 강사진은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었고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해 실제 동물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며 작업을 진행했다. 쇼하자 준비 과정에서도 저녁까지 바느질을 해서 물품을 완성하고, 평일에도 인터넷 카페와 카톡 단체방 등에서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팀별 발표를 준비하는 등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이렇듯 회차별 진행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기획 방향과 콘셉트 등을 사전에 밀도있게 공유할 수 있었던 강사진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프로그램 전후 조례, 종례 형식으로 하자센터 교육기획팀의 연결짓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에도 내외부 강사진 연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에피소드다.

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첫째 개인 신청에 기반한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의 일상적 관심사와 링크되는 사회적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몰입도를 높이고 기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효과도 높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둘째는 몸활동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발견이다. 직접 몸을 써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본 청소년들은 직업뿐 아니라 관계, 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왔다는 피드백을 보였다. 세 번째는 대안교육에서 오랫동안 실험하고 진화시켜온 프로젝트 수업과 유사한 형태에 가치 중심의 일 체험이라는 내용적 전환을 지닌 프로그램을 학교 도입을 감안해 시행해 보았다는 것이다.

### \* more info

- 리뷰 <http://www.haja.net/?p=4265>
-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youthschoolhaja.cafe>
- 참여 청소년 블로그 <http://blog.naver.com/yadyham>



### 3. 청소년토요진로학교 3기 가치있는 일 만들기 프로젝트

#### ‘지구를 살리는 일, ‘쓸모’를 만든다’

##### \* 개요

- 기 간 : 2013. 10.12 ~ 11.16
- 대 상 : ‘반 단위’ 규모(20명 정도)의 중학교 청소년(14~16세)
- 장 소 : 하자센터 및 각 활동현장
- 참여인원 : 64명(실인원), 640명(연인원)
- 총 사업비 : 13,955,750원

##### \* 내용

본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진행한 토요진로학교 2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각종 검사와 특강, 단순 직업체험을 벗어나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주제 중심 통합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형 진로교육의 사례 만들기를 해보고자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공교육 연계를 고려해 교사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단위로 실행해보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6회차로 단계와 구조를 잡고, 주제알기-입체적 이해-할 수 있는 일 진행 등 3단계 구조 워크숍 기반 활동으로 구성했다.

헤드 카피를 ‘가치있는 일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로 하여 기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고,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일, 쓸모를 만든다’로 잡았다. 이는 단순하게나마 생태적 관점에서 타자로서의 자연과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일에 있어 지구 생태를 고려하는 일의 존재와, 각자 자기 과제로 삼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도 매우 다양한 해법으로 일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차적으로는 과다한 소비 생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나무와 천 등의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쓸모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거나 일상 생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구를 살리는 문구 등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거주 공간, 결혼 등 생활문화의 방식의 변화에서 버려지는 것에 쓸모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고 직접 실행에 옮겼다.

중학생들이기에 직종 자체보다는 일상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하거나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등의 태도를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배치하였다. 이는 공공의 문제가 바로 개인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과정인데, 청소년들의 평소 관심과 자칫 상관 없어 보이는 주제였으나 한쪽 측면으로는 관심사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또다른 측면으로는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역으로 관점을 경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단계가 유효함을 보았다.



\* 세부 프로그램

- 공동 프로그램

회차	단계	주제	내용	비고
1	도입	과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만남 : OT</li> <li>- 아이스브레이킹, 하자센터 소개, 서로 알기</li> <li>: 현수막 공놀이, 얼굴 그리기 등 몸 공동 활동</li> <li>- 활동 내용 및 강사 소개</li> <li>○ 카드챌린지 워크숍</li> <li>- 관계 형성과 공동의 약속</li> <li>○ 팀별 과제 안내</li> <li>- 팀별 공간으로 이동, 자료와 문제의식 공유</li> </ul>	설정과제를 둘러싼 일의 세계와 직업인을 만남: 먹고 사는 수단 뿐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인
2	입체적 이해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만남 : 어떻게 할까?_사전활동</li> <li>- 현황 조사 및 인터뷰 계획 세우기</li> <li>- 현황(동물, 보호소, 사회구조) 소개 (동물행동심리연구소 대표 김윤정)</li> <li>‘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는 법’ (유기견이었다가 치유동물이 된 동물들 및 주인들과의 소통워크숍)</li> <li>- 기존 계획 수정 후 현장 방문 계획</li> </ul>	주제에 따라 상이한 구성
3	입체적 이해와 일	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에 따라 팀별 활동</li> <li>총 4 클래스 개설</li> <li>○ 과정 정리 안내</li> </ul>	
4				
5				
6	마무리	과정 공유와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과정 정리</li> <li>- 팀별 과정, 개인 회고 정리</li> <li>- 포토스토리 등 간단한 품으로 정리</li> <li>○ 발표물 공유와 축하(블레싱)</li> <li>- 프로젝트 과정/진로활동으로서 느낀 점</li> </ul>	

**\* 개별 프로그램**

1) 지구를 살리는 집, 함께 만들어볼까? : 소셜아키텍트그룹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토요진로학교 (15명)

지구를 살리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건축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에너지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다. 목조주택을 디자인하고, 현 집을 고쳐주는 등의 일을 하는 어른들을 만나보고, 직접 작업을 해보면서 환경문제가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인 ‘일’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체험해 본다.

1회차	2회차	3~5회차	4회차
과제 만남	관련된 일을 하는 다양한 곳/사람 만남	나무 건축 : 벽 제작	결과 발표
-나무의 삶~용품으로서의 활용양태~버려지는 현황~문제 지점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질문 워크숍)	-미니특강 :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생태건축) 이현욱좋은집연구소 (목조건축) 두꺼비하우징 (친환경 리모델링)	-참여-노동 -순환 및 단열을 고려한 건물 가벽 작업~창문 위치 결정 디자인~목재 철자재 단열재 사용 벽 제작	-결과물 발표:전시 -회고 공유와 블레싱

2) 버려지는 천들을 부탁해! : 재활용 패션디자인그룹 리블랭크와 함께하는 토요진로학교 (15명)

거대 자본 논리에 의해 생기는 폐해에 관해 모든 소비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특히 방대하게 생산된 후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섬유가 가진 문제점에 관해 알고 난 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 아래 쓸모없어진 천을 활용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디자인 및 제작해본다.

1회차	2회차	3~5회차	4회차
과제 만남	관련하여 일하는 다양한 곳/사람 만남	업사이클링 소품 제작	결과 발표
-과제 현황: 옷, 가구 등 일상생활에서 천의 용도~활용양태~버려지는 현황~문제 지점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질문 워크숍)	-미니특강: 아름다운가게(유통), 리블랭크(리디자인), 열린옷장(공유)	-참여-노동 -대형 창고를 방문하여 재활용자재 유통과정 경험~누구에게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 결정~디자인~소품 제작	-결과물 발표:전시 -회고 공유와 블레싱

3) 쓸모 없어지는 나무를 살려줘! : 업사이클링 가구 및 소품 디자이너 휴과 본드와 함께하는 토요일학교 (15명)

주변에 버려진 가구 또는 목재를 이용한 공공의 테이블 만들기, 그리고 이 테이블과 함께 놓일 의자 고치기(망가진 의자와 페 페릿 재활용). 버려졌지만 다시 사용 가능한 재료를 수거, 수집하여 쓸모 있는 오브제를 제작함으로써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보고 이런 활동이 지닌 직업적, 사회적 의미를 깨달아본다. 또한 재활용 디자인, 예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과 계기를 마련한다.

1회차	2회차	3~5회차	4회차
과제 만남	관련하여 일하는 다양한 곳/사람 만남	작은 가구 · 소품 제작	결과 발표
-나무의 삶~용품으로서의 활용양태~버려지는 현황~문제 지점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질문 워크숍)	-미니특강: 휴과 본드(디자이너) 낮잠(가구 · 소품 브랜드) 문화로놀이짱(마을공방, 사회적기업)	-참여-노동 -나무 수거 또는 밀작업~용도에 따른 디자인~제작	-결과물 발표:전시 -회고 공유와 블레싱

4) 지구를 살리는 습관이 필요해! : 문구 그린디자인 회사 ‘공장’과 함께하는 토요일학교 (15명)

일상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친환경적 공정으로 문구를 만들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건강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1회차	2회차	3~5회차	4회차
과제 만남	관련하여 일하는 다양한 곳/사람 만남	환경을 고려하도록 자극하는 문구 제작	결과 발표
-과제 현황 : 문구 등 생활용품 제작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활용양태~현황~문제지점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질문 워크숍)	-미니특강: 공장(문구 등 다양한 디자인제품 제작), 대지를 위한 바느질(사회적기업) 이경래(텃밭 및 도시디자인)	-참여-노동 -선유도공원 방문하여 재료 등 아이디어이션~디자인 기획~샘플 제작	-결과물 발표:전시 -회고 공유와 블레싱

### \* 성과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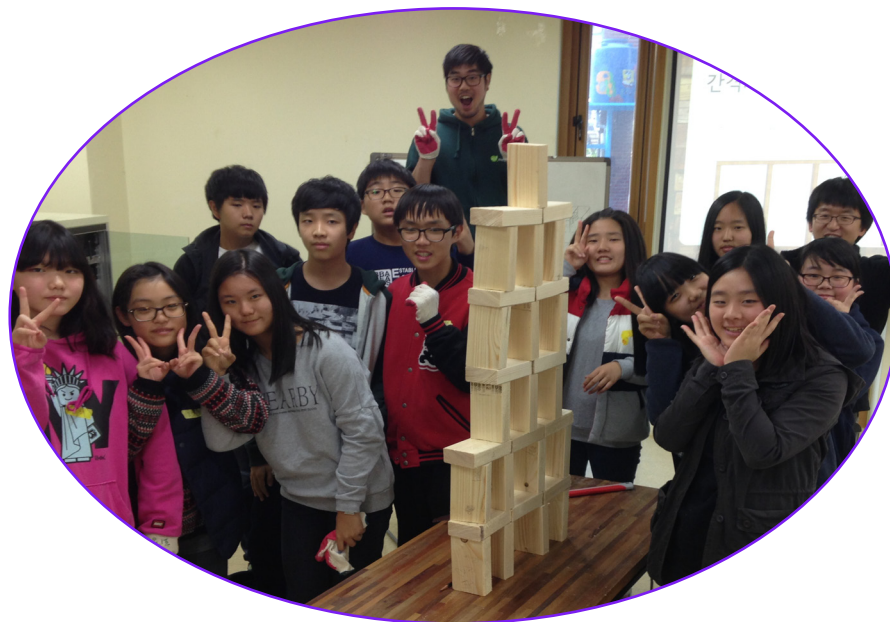
지구를 살리는 일, 버려지는 것에 ‘쓸모’를 만드는 것, 공동의 손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배치한 4개 프로젝트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반과 중반, 마무리 등에 공동활동을 골고루 배치해 전체 결을 맞추고자 했다. 밀도 있게 관계를 만들기는 인원이 너무 많아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방향을 함께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맡은 팀들은 하자가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이거나 하자허브 멤버십, 또는 그린디자이너를 매개로 해 오래 알고 지내는 등 연계가 있어 전체적인 기획과 언어를 조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회차(OT와 쇼하자를 제외하면 4회차) 안에 진행하기 위해 작업 자체를 단순하게 구성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참여 청소년들 총 64명 중 서울 지역이 44명, 경기 지역 학생도 20명에 달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일산, 파주, 남양주, 용인 일대로 이중에는 통학 거리가 왕복 4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강제성 없이 자율 참석하는 토요일 활동임에도 94%의 참여자가 100% 출석률을 보였다.

회고 내용과 강사들의 수업 기록을 참고하면 각 팀의 분위기가 다르고 에너지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초반에는 질문이 거의 없고, 서로 떠들지도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으나 회차가 지날수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점차 서로 어려운 작업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완성된 자신들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거나 참견하는 등 협업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특별한 관심 없이 교사나 부모 추천으로 신청했던 학생들도 활동 자체의 재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대해 깊고 진중하게 생각한 뒤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참여자는 SNS 등을 통해 과정을 알리거나 자발적으로 공동의 스케치 영상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 이후 하자센터에 꾸준히 드나들며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이슈 있는 활동을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자센터 내에 일반학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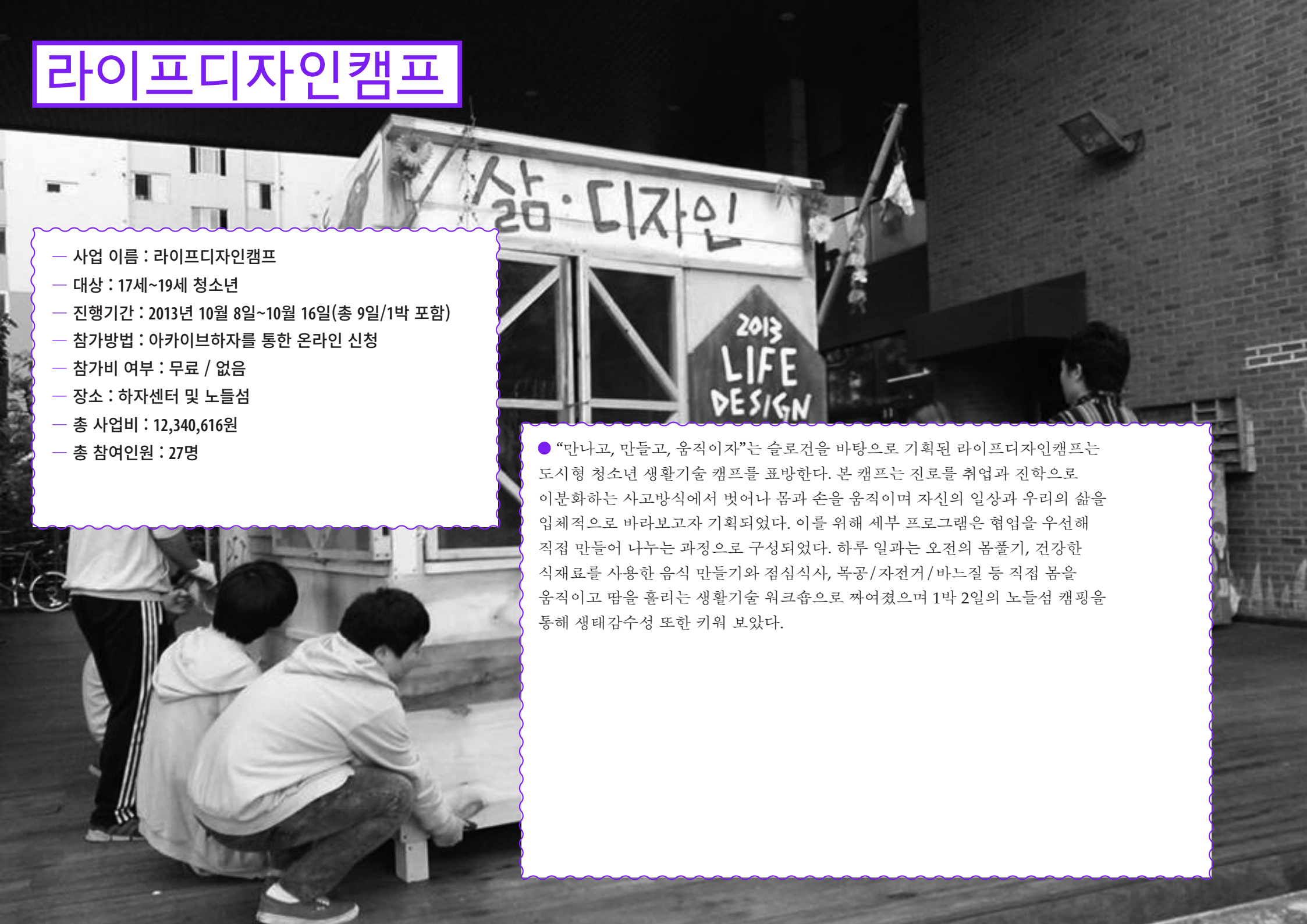
- 리뷰 <http://www.haja.net/?p=4265>
- 참여 청소년 블로그 <http://blog.naver.com/yadyham>



# 라이프디자인캠프

- 사업 이름 : 라이프디자인캠프
- 대상 : 17세~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10월 8일~10월 16일(총 9일/1박 포함)
- 참가방법 : 아카이브하자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가비 여부 : 무료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및 노들섬
- 총 사업비 : 12,340,616원
- 총 참여인원 : 27명

● “만나고, 만들고, 움직이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획된 라이프디자인캠프는 도시형 청소년 생활기술 캠프를 표방한다. 본 캠프는 진로를 취업과 진학으로 이분화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몸과 손을 움직이며 자신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은 협업을 우선해 직접 만들어 나누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하루 일과는 오전의 몸풀기,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 만들기와 점심식사, 목공/자전거/바느질 등 직접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생활기술 워크숍으로 짜여졌으며 1박 2일의 노들섬 캠프를 통해 생태감수성 또한 키워 보았다.



● 진행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및 특성화고 청소년 27명이 참여하였다. ‘먹거리’ ‘삶터’ ‘놀이’ ‘이동’을 키워드로 하는 총 네 개의 워크숍과 행렬 이동, 노들섬 캠핑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아닌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고 먹는 먹거리 워크숍, 톱질부터 배워 나무로 집을 만드는 목공 워크숍, 폐자전거의 부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해 카고 바이크와 트레일러를 만드는 자전거 워크숍, 아침 몸풀기 및 휴식시간을 활용해 생활체육과 악기 연주 등을 한 놀이 워크숍 등 총 네 개의 워크숍은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일 꼬박 진행되었다.

평상시와 다른 일상을 보낸 청소년들은 7일차부터 8일차에 걸친 노들섬 캠프를 통해 손작업과 협업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며 연대하였다. 노들섬 캠프의 시작은 인간의 힘만을 이용한 이동이었다. 하자센터에서 노들섬까지 총 8.7km, 4시간이 걸린 이 과정은 가로 2.7m, 세로 1.7m의 트레일러(폐자전거 5대를 분해하여 제작함)에 손수 만든 집(버려진 목재를 활용한 한 평 집)을 싣고 함께 걷는 것이었다.

고생 끝 노들섬에 도착한 것이 끝은 아니었다. 생태화장실을 사용하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설치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되살아난 몸의 감각을 느끼며 일상/직업/진로/삶에 대해 이전보다 넓은 시야에서 말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과정은 그간 학교나 가정, 혹은 미디어를 통해 수동적으로 입력된 일상생활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자급, 자생, 자활을 직접 해보며 ‘지속가능한 삶이란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나름의 답을 달아보면서 진행되었다.

주요 일정

일정	프로그램 명	장소
1일차	몸풀기	본관 999클럽
	오리엔테이션	신관 203호, 허브갤러리
	점심식사	신관 1층 카페
	바느질 워크숍	신관 203호
2일차/3일차/4일차	몸풀기	마당
	먹거리 워크숍	공동부엌
	식사	신관 1층 카페
	휴식	신관 중정, 마당, 허브갤러리



2일차/3일차/4일차	목공, 자전거 워크숍	신관 지하 공방
	텃밭 돌보기	본관 옥상농원
5일차	재래시장 방문	영등포시장
	먹거리 워크숍	공동부엌
	식사	본관 하모니 식당
	목공, 자전거 워크숍	중정, 지하 공방
	도움편지 낭독, 정리	신관 203호, 갤러리
	행렬 꾸미기	중정
6일차	몸풀기	마당
	점심식사	본관 하모니 식당
	이동 준비	도보 및 자전거이동(8.7km) 노들섬
노들섬으로 이동 및 노들섬 캠핑		
8일차	노들섬 캠핑	도보 및 자전거이동(8.7km) 노들섬
	하자센터로 이동	
9일차	쇼하자 준비	신관 갤러리, 203호
	나눔부엌	중정, 신관 1층 카페
	쇼하자	신관 하하허허홀





## ● 성과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참가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브갤러리 벽에 붙여진 보드에 익명의 리뷰를 붙였다. 초반에는 단순히 '재미있다' 등의 단답형 멘트가 많았으나 점차 진행되면서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과정이 보람차다" "당연한 줄 알았던 집밥, 빨래 등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등 진솔한 답변을 해주었다. 이렇듯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의 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아가며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상상력을 키워갔다. 또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닌 협업의 중요성과 몸을 움직이는 것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온몸을 고루 움직이며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꺼리'들을 발견하고 실제로 삶을 전환해보는 것, 그 과정은 예상보다 높은 집중과 몰입도를 보여 주었으며, 손작업과 협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기술 워크숍/공방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드러난 계기가 되기도 했다.

## ● 전망

기획하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것 중 하나가 학기 중이라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지원할지, 또 그들이 꾸준히 출석할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막상 캠프에 돌입해보니, 9일 동안 출석률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후속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참여자 역시 98% 이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연간 7일 주어지는 특별활동 일수를 잘 활용하는 학기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몸과 손을 사용하는 생활기술, 자급을 기초로 한 일상의 전환, 생태감수성을 동반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캠프의 경우에는 학기중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여 하자센터의 협력학교인 세경고등학교를 통한 사전 모집이 병행되었다. 이곳 청소년들의 참여도, 학교 측의 관심과 협력은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도 협력학교 및 관련 파트너 발굴 연계 및 협업의 좋은 사례로서 후속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more info

• 라이프디자인캠프 스케치 영상 <http://vimeo.com/80048721>



# 생각하는 청개구리

- 사업 이름 : 생각하는 청개구리(어린이 창의교육사업)
- 대상 : 유아~13세 이하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3월~2014년 2월
- 참가방법 : 아동복지기관 연결(창의교육 프로그램)/자유참여(어린이 축제)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및 각 아동복지기관
- 총 사업비 : 253,488,288원
- 총 참여인원 : 2,666명(실인원)

●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교육사업이다. 진로교육의 사전 단계로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력과 관계감수성,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 사업 내역으로는 우선 어린이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성을 일깨우고 진로 모색을 돕는 문화예술 기반의 창의 프로그램을 발굴해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캠프, 공유마당과 같은 공동체 활동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워크숍을 한 자리에 모아 어린이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 창의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 ● 진행

### \* 창의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작업자와 어린이가 공동 창작활동을 통해 ‘나’ ‘우리’ ‘일상’을 생각하며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하는 활동

프로그램명	참여 작가 또는 단체	항유기관	내용
움직움직 마법사들	슈퉁크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상상력을 발현하는 활동. 공동 창작을 통해 공감하고 협업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
두들링으로 창의적인 발상법 키우기	소수영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무의식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찾고 드로잉하는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고 열린 사고를 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
삐뚤삐뚤 그루브	문구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	직접 연주할 악기를 만들고, 곡을 쓰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적 감수성을 발현하는 프로그램
생감자의 감정놀이학교	생.감.자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디자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표현하면서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상상(相想)	위누	영등포지역아동복지센터	누군가를 위한 물건과 활동을 만들며,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프로그램
폼나는 리폼	리블랭크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버려진 물건에 상상을 덧입혀 새로운 쓰임새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활동.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우리동네 프로젝트	하자작업장학교/페스테자	SOS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 활동의 거점을 ‘마을’에 맞춘 공연음악, 영상, 춤, 디자인 기반의 활동. 마을에서 어린이 중심의 이야기거리(일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
기발한 사진관	기억발전소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관점과 열린 사고로 사물과 사람을 보는 프로그램
아싸! 움직임	박재나	청솔지역아동센터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함께 어울리며 타인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 \* 어린이 창의축제

- 손작업 워크숍과 놀이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 하자센터에서 주관하는 마을장터 달시장과 연계,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창의페스타’라는 이름 아래 지역형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분당 암웨이브랜드체험센터에서도 6월과 9월 ‘움직이는 창의페스타’라는 제목의 대중형 축제를 개최했다.

활동명	월	장소	주제
창의페스타	5월	하자센터	O.I.O (O It Ourselves)
	6월		자연
	8월		놀이
	9월		손끝에서 나오는 창의
	10월		함께하자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6월	분당 암웨이브랜드체험센터	O.I.O (O It Ourselves)
	9월		손끝에서 나오는 창의



### ● 성과

#### \* 창의교육 프로그램

어린이가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이웃, 마을, 환경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상(相想)’, ‘우리동네 프로젝트’가 그것. 활동의 결과 또한 확산되었다. ‘상상(相想)’ 프로젝트에서 동생들을 위해 어린이들이 만든 보드게임은 지역 내 초등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대한민국나눔대축제,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막식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두 아동기관의 프로그램이 연계해 공동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했다. 음악을 매개로 한 활동을 펼치는 ‘뽀뽀뽀 그루브’와 사진 프로젝트 기반의 ‘기발한 사진관’이 그것. 두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얼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한 뒤 공동 사진집을 발간했다. 참여한 단체, 작가들의 분야도 다양하지만 연령대도 다양했다. ‘우리동네 프로젝트’는 하자직업장학교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린이와 공동작업자로 만나 진행되었다. 출발 시기부터 일방적인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지양했던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의 기본 방향은 2013년에도 유지되었으며 더욱 발전되었다. 아동복지기관-문화예술작업자-하자센터가 함께 프로그램의 방향을 기획하며 진행했으며 아울러 참여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했다.



### \* 어린이 창의축제

달시장과 함께 열린 ‘창의페스타’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세대 지역민들이 모여 어울리는 축제 역할 해내면서 어린이축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어린이들 스스로 스태프와 작가로 참여해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간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분당 암웨이브랜드체험센터에서 열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역시 도심 속에서 열리는 어린이축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 전망

아동복지기관 별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에게 더불어 사는 창의가 무엇인가’, ‘어린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공통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의 고민들이 매체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작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알리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활동을 넘어,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몇몇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놀이’와 연계된 기획과 작업이 확대되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어린이 창의축제의 경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심 속 어린이 축제의 가능성 입증 등 201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놀이’ ‘어린이 주도’ 활동의 시도가 돋보였던 만큼, 이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겠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파트너를 찾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 ● more info

- 5월 창의페스타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9453852>
- 6월 창의페스타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2320244>
- 8월 창의페스타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6299164>
- 9월 창의페스타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8593246>
- 10월 창의페스타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9277318>
- 6월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9453950>
- 9월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78591266>



# 비진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프로젝트

- 사업 이름 : 비진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프로젝트
- 대상 : 하자센터의 가치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하자를 찾는 전 세대, 다양한 배경의 커뮤니티
- 진행기간 : 2013년 6월 1일~12월 31일
- 총 사업비 : 31,070,720원
- 담당자 및 부서 : 협력기획팀

**책임연구원** :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엄기호(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 최은주(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강정석(하자센터 협력기획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전문사)

**연구보조원** : 문보미(하자센터 협력기획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예술사),

한나(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재학

● 최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경쟁적, 성과지향적, 단기적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진학 청소년들은 스스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를 설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의 사전 준비로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비진학 청소년들이 실제적 삶의 양식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문헌조사 및 심층인터뷰, 집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진학 유형 및 진입 경로, 진로 준비 과정, 진로 설계에 있어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설계의 디딤돌 역할을 기대해 보았다.

## ● 진행

### \*일정

1. 집담회 (총6회) : 교사 집담회(2013.10.01), 특성화고 학생 집담회(2013.10.9), 진로캠프 집담회 총 3회(2013.10.14), 인문계고 직업반 학생 집담회(2013.11.7)

2. 1:1 심층인터뷰 : 총 15회(2013. 9.16~11.26)

3.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전문가,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2014.1.13)

4. 조사연구보고서 집필 : 2013.12 ~ 2014.2

## ● 성과

연구 결과 우선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77.9%가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최근 비진학 청소년 숫자의 증가는 성적, 가정형편, 건강 등 외부 요인보다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예전에 비해 대학 진학이 쉬워진 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이득이 적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획하지 못한 채 무기력에 젖어 있는 청소년이다. ‘잠재적 비진학’으로 범주화되는 이들은 대학진학을 통해 자기 생애를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속에 비진학을 진로로 만들지도 못한 채 학교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도움 1순위로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말’을 꼽았다는 점이다.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내 앞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도움말을 듣고 싶다’(17.0%),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14.7%) 등 ‘지속적으로 도움말을 해 줄 누군가’라고 대답한 비율이 31.7%로 27.7%의 경제적 도움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주변에서 삶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지지를 북돋아 줄 다양한 주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삶에 대한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경험이 빈약하고 연습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들은 비진학 정책은 ‘생애사적 기획의 가능성’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진학자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진로에 대한 긍정 정도와 미래에 희망하는 일이나 직업 결정 여부, 진로계획 수립 여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말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 단기적 성과 못지않게 삶의 동기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학습과 경험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비진학 결정이 고 2 정도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 비진학 청소년들이 적절한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급하다. 예를 들어, 직업기술 위주로 구성된 산업위탁학교 수업에 앞서 자신의 흥미를 알 수 있는 기본 교육과정이나 기초 소양과정이 마련되어, 적성과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직업기술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조그룹(Reference) 관계망 형성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발견했다.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진학 청소년과는 달리 주변에서 삶의 롤 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제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진로정보를 파악하는 실정이다. 단기적 직업정책을 넘어 생애사적 기획이 가능하기 위한 참조그룹 관계망의 형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참조그룹의 형성은 1:1 상담형 멘토-멘티 관계를 넘어, 자신이 사안에 따라 접속하여 조연과 충고를 얻을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그룹의 역할은 ‘넌 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잘 했던 일, 잘 할 수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을 돌아보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역할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쉬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은 생애사 기획에 조연과 충고를 할 만한 참조그룹도 부재할 뿐더러, 자신을 돌아 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전망**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사회적 인턴십 과정 운영(청소년 작업장을 통한 청소년 경과적 일자리 사업) : 아르바이트나 단순보조가 아닌 사회공익적 프로젝트에 일정기간 참여해 비진학 청소년이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경험 축적 지원
-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진로모델 개발 :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으로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안적 일터 또는 현장 발굴 및 지원
- ‘비진학 취업 청소년’ 대상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바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취미, 진학 준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전환기학년 청소년 대상 ‘삶디자인 학교’ 운영 :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삶의 역량’에 초점을 맞춰 목공, 요리 등 삶의 기본기를 익히는 일에 몰입하면서 현재 자기 삶의 패턴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
- (가칭) 시립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립 : 삶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 인문교육과 실질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교육모델 센터 설립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부모, 교사 대상 강연회, 워크숍 실시. 기존의 진학 및 취업박람회와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일자리 전망 속에서 새로운 일과 직업을 상상해볼 수 있는 ‘진로박람회’ 개최
-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청소년 쉼터 사업 :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자기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비진학 청소년 실태 조사 연구

## 비진학 청소년 실태 조사 연구


이 연구는 생애사적 기획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비진학을 저성장-고성장 사회에서의 주체성의 한 형식으로 비진학을 개념화하여 접근한다. 이에 설문조사, 인터뷰, 집담회 등을 통하여 정책적 비진학의 유입경로와 양상, 동기화 메커니즘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되는 정책적 비진학의 현실과 요인,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진로지원센터 haji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동7가 영등포역교기로 79  
전화: 02) 2677-9200 팩스: 02) 2679-9300  
www.hajia.net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 사업 이름 :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 대상 : 19세 고3 청소년 및 비진학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11월 19일~11월 21일(총 3일)
- 참가방법 : 공개모집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외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15,504,054원
- 총 참여인원 : 33명(실인원)

●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는 10대에서 20대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앞으로 펼쳐질 청년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설계해보는 캠프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고3 청소년들이 같은 10대 후반의 또래 동료, 청년 멘토와의 만남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삶과 일을 만나고, 20대를 준비하는 블레싱 파티를 함께 기획, 진행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주고 받는 장으로 구성되었다.

● 개요

오리엔테이션 / 마음열기	워크숍	공동의 파티
1일차	2일차	3일차
-하자/스프링캠프 안내 -팀워크를 위한 공동 워크숍/ 아이스브레이킹 -캠프 맵핑하기	현장워크숍 멘토 만남/주제별 워크숍	공동의 파티 : 캠프 결과물 전시/ 멘토 블레싱 / 맵핑 공유
팀별 모임/현장탐방		

● 진행

추진 내용 및 질적 평가	분야별직업체험			
		기간	11월 19일	참여인원
오리엔테이션 공동워크숍	캠프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캠프 알기, 하자 알기, 서로 알기’를 주요 내용으로 서로 어색한 관계를 풀어주는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캠프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청춘의 지도 맵핑-공동의 질문 만들기’로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20대에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 키워드(사랑, 친구, 돈, 나눔, 손(=일))를 선정해 이 키워드를 주제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각 팀에서 나온 키워드에 대한 참여자들의 해석이 하나의 그림으로 옮겨져, 20대 청춘 지도가 완성되었다.			
	기간	11월 19일~21일	참여인원	10명
<목공팀> 문화로놀이짱	문화로놀이짱은 버려진 목재를 소재로 시를 담은 상자와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다. 느슨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듯한 문화로놀이짱의 공간과 작업자들의 모습이 참여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이틀째부터 이어진 활동도 작업을 위해 계획된 활동이라기 보다는, 청년 작업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시 상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들어졌고, 손수 쓴 글씨들도 보태졌다. 시나 목공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분야였으나 젊은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이 보여주는 문화 안에서 잘 녹아들었다는 점이 높히 평가할 만하다.			

<음악팀> 문구	기간	11월 19일~21일	참여인원	12명
	인디 뮤지션 문구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쉬운 것들을 소재로 아마추어라도 쉽게 음악을 접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워크숍을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팀 전체 분위기가 활발하고, 어려운 작업임에도 끝까지 완결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다만 공동의 노래를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완성된 곡을 연주까지 해야 되는 등 빡빡한 일정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평이다.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공동으로 만든 노래에도 반영되었고,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요리팀> 오가니제이션요리	기간	11월 19일~21일	참여인원	11명
	홍대 슬로비에서 ‘잉여사과 기 살리기’ 캠페인을 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섭식명상, 음식 관련 영화보기, 요리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10대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섭식명상을 요리실습을 제치고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꼽기도 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20대를 준비하는 힌트를 얻었다는 의견을 밝힌 참가자들도 있었다.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서로를 돕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가 더 좋아지기도 했다. 짧은 일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가 확연히 느껴졌던 사례였다.			
블레싱파티	기간	11월 21일	참여인원	32명
	각 팀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례로 만들어보는 작업. ‘소박한 파티, 응원하는 파티, 함께하는 파티’ 등 3가지 콘셉트를 살려 첫 날, 블레싱파티의 요소를 각자 써보도록 했다. 나만의 컬러, 음악, 초대하고 싶은 1인, 그 외 ○○○.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파티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 이를 토대로 메인 컬러와 음악이 선택되었고, 각 팀별로 초대한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다. 각 팀별로 결과물들과 리뷰가 이어지고, 멘토들의 블레싱과 축하로 마무리되었다.			

● 진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는 고3 학생들이 10대를 졸업하고 20대를 맞이하면서 청년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마련된 ‘전환기 캠프’다. 청년의 시기로 접어들기 전, 열아홉 살이란 나이에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것들로 동료/멘토와의 만남, 현장탐방 및 워크숍, 의례와 일 만들기, 자기이해 등 4가지 과정을 설정,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보았다. 그동안 교육기획팀에서 일반학교 청소년들과 진행했던 각종 진로교육 프로그램들과 포맷은 유사하지만, 고3이라는 전환기에 자신의 10대를 되돌아보는 ‘침표’의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준비’라는 것이 직업을 구하거나 진로를 설계해본다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20대를 격려해 줄 동료와 파트너를 찾고, 그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11월 말은 수능이 끝난 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때라, 많은 학교의 참가 문의가 있었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30명 정원을 훌쩍 넘는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에 전환을 맞는 특정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펼쳐보일 자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가했던 30여명 청소년들의 특징을 보면, 2/3 정도가 하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하자센터 경험이 있는 지인의 추천으로 참가한 경우가 많았다. 하자센터에 호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주류를 이뤄서인지, 3일 내내 출석률이 높았고, 이들의 호응 또한 여느 캠프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블레싱파티는 이들의 10대 졸업과 20대 ‘입학’을 환영하는 졸업식 겸 성년식의 느낌이 들었다.

### ● 전망

‘우리의 20대를 응원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성된 스프링캠프는 앞으로도 19살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를 고민해보며 스스로 20대를 준비하는 힘을 기르는 지지기반으로서의 캠프를 지향한다. 10대들에게 당면했던 ‘진학’과 ‘취업’의 고민이, 20대를 앞둔 시점에서는 다양하게 가치를 뺀어 삶에 대한 다른 층위의 고민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 more info

· [레드 기획] 고3 19살들 모인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여러 갈래 질문의 길을 만들고 답을 스스로 선택하는 아이들

<한겨레 21> 2013.12.02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5857.html](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5857.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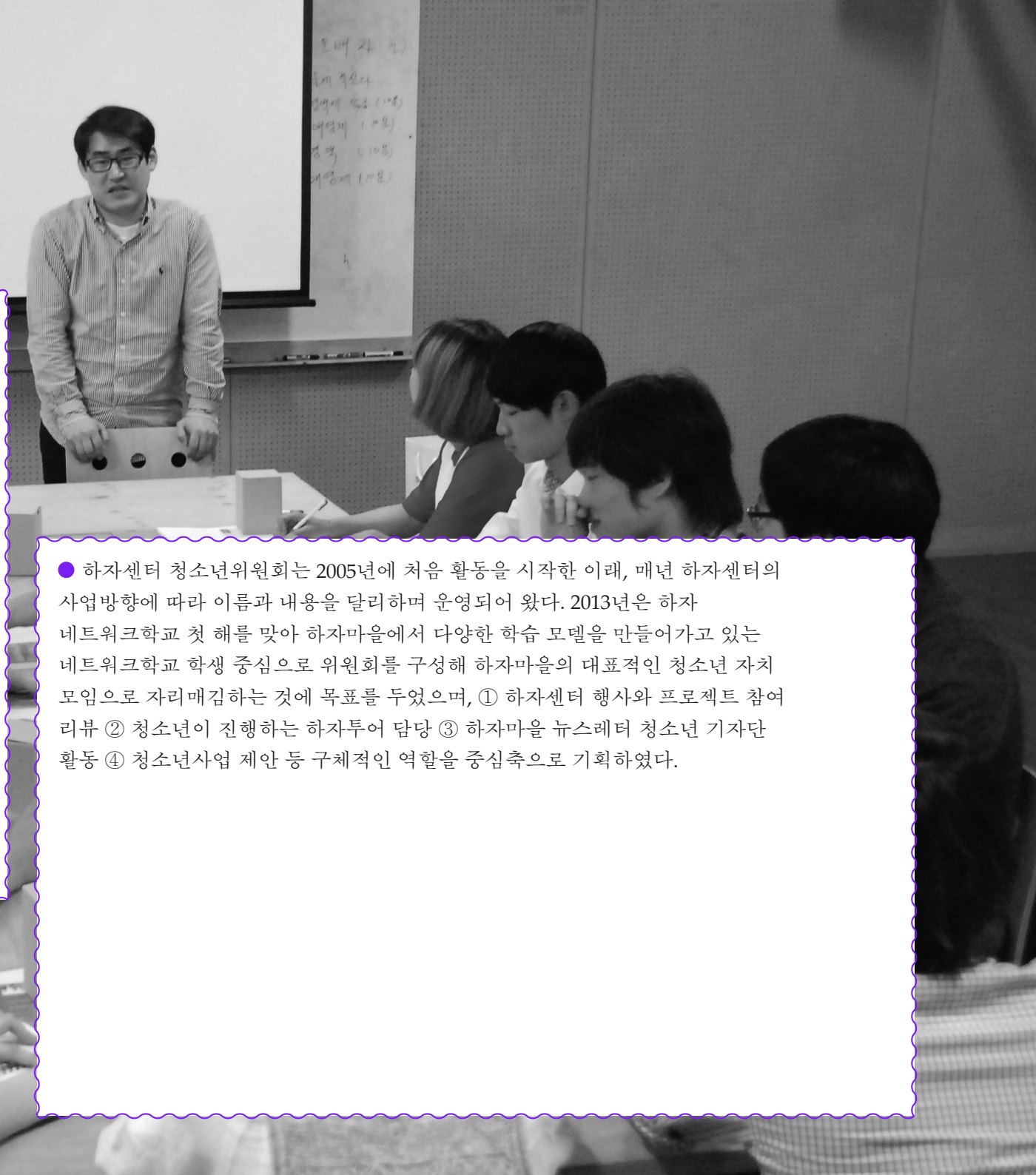
결과보고 영상 <https://vimeo.com/84930442>



#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 대상 : 만 14세~24세 청소년  
하자센터 프로젝트에 2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하자네트워크학교 재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
- 진행기간 : 2013년 5월~12월
- 참가방법 : 공개모집
- 지원서 접수 : 2013년 4월 18일 ~ 4월 26일
- 서류 합격자 : 2013년 4월 27일
- 인터뷰 : 2013년 4월 30일~5월 4일
- 진행장소 : 하자센터 외 서울시내
- 총 사업비 : 1,003,990원
- 총 참여인원 : 총 12명 (청소년운영위원)

● 하자센터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하자센터의 사업방향에 따라 이름과 내용을 달리하며 운영되어 왔다. 2013년은 하자네트워크학교 첫 해를 맞아 하자마을에서 다양한 학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트워크학교 학생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마을의 대표적인 청소년 자치 모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① 하자센터 행사와 프로젝트 참여 리뷰 ② 청소년이 진행하는 하자투어 담당 ③ 하자마을 뉴스레터 청소년 기자단 활동 ④ 청소년사업 제안 등 구체적인 역할을 중심축으로 기획하였다.



일시	장소	구분	내용
5월 12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 소개 - 참가자 소개 - 공간투어
5월 24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하자 판돌 인사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 놀토엑스포 부스 운영 논의 - 청소년 운영위원회 명칭 논의
6월 2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임시 위원회	- 6월 15일 놀토 엑스포 부스 운영 논의 - 팀별 세부 계획 논의
6월 7일~ 6월8일	전남 강진	워크숍 참여	- 네트워크학교 공동여행 참여 (‘고정희 기행’)
6월 12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임시 위원회	- 달시장 ‘달디오’ 진행 논의 - 놀토엑스포 부스 운영 세부계획 논의
6월 14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임시 위원회	- 놀토엑스포 부스 운영 최종 점검
6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시 놀토엑스포	- 서울시 주최 놀토엑스포 부스 운영
6월 21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2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네트워크학교 공동여행 리뷰 - 서울시 놀토엑스포 리뷰
7월 31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상반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고 - 워크숍 계획 논의
8월 12일~8월 13일	하자센터 및 하이서울유스호텔	워크숍	- 상반기 활동 평가 - 하반기 계획 논의
8월 21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워크숍 정리 내용 하자 내부 전달 상황 공유 - 내부 대표 선임 - 달시장 ‘달디오’ 운영계획 논의

9월 5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하자 청소년동아리 설문 준비 - 달시장 '달디오' 리뷰
10월 8일	카페 슬로비	정기 운영위원회	- 동아리 설문 결과 공유 - 향후 운영계획 논의
11월 23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하자 내 절전 캠페인 등 활동계획 논의
12월 14일	하자센터 허브카페 103호	정기 운영위원회	- 전체 활동 점검과 개인별 회고 - 전체 활동 마무리

## ● 성과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하자 네트워크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명, 일반 청소년 6명으로 탈학교와 공교육 청소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구성되었다. 애초에 의도한 네트워크학교 중심의 청소년 자치모임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다양한 층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 취합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모인 구성원들은 기존에 하자센터에서 활동했거나 앞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하자 안의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었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이들이 하자과 연결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기도 했다. 자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내용에도 깊이를 더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향후 하자마을 안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 전망

근 10년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여러 형태로 변화하며 하자센터의 청소년 그룹으로서 그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해왔다. 2013년에는 다양한 유입 경로와 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고 하자센터와 다른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냈다. 결합 지점이 각각 다른 이들이 섞여 있어서 초반에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했고, 이러다보니 실질적인 하자 내 청소년 대표 그룹으로서의 활동은 조금 미비했다고 보여진다. 향후 2014년 운영위원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하자센터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활동이 전체 사업 방향과 어우러지며 마을 전체에 활력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 사업 이름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 대상 : 14~24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1월~12월
- 참가방법 : 전화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2,400,000원
- 총 참여인원 : 485명(연인원)

● 2013년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하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동아리들을 지원했다. 이들 청소년들이 어떤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그들의 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기금과 공간 등 물리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동 워크숍 등을 지원 과정 속에 구성해 청소년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활동의 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배출량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CO2  
공익광고협의회

드림제 가능합니다.





연번	동아리 명	인원	내용		
1	혹_이심?	299	대학 진학 등 정해진 진로 외에 다른 가치와 방향을 가진 삶을 모색하며 경험과 고민의 장을 만들고 나누는 청소년 동아리		
			주요 일정	4/13	미니 특강 & 다큐멘터리 감상 & 프로젝트 소개 & 허심탄회
				5/04	친목 도모 소풍 & 미니 특강
				5/07~6/07	식식사구시 식문화 리서치
				5/25	미니 특강 & 라따뚜이 프로젝트 쇼하자 & 허심탄회
				6/29	식식사구시 프로젝트 마무리파티
				11/02~12/07	소셜디렉터 프로젝트 : 기업탐방 및 영상촬영/편집
12/14	영상 시사회 & 인터뷰				
2	DJ301	186	음악과 디제잉을 배우며 자발적인 공연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모임		
			주요 일정	04/06	DJing 소공연
				04/13	오래된 레코드 수집 [Diggin']
				06/15	CD 제작
				9/07~14	뮤직 비디오 촬영
				10/03	전주세계소리축제 참가 & 공연
				11/02~12/21	연말공연 기획 & 준비
12/21	연말공연 'Love Movement' 진행				

2013년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별도의 동아리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 커뮤니티 지원은 하지 않고 내부 동아리 2개만을 지원했다. 혹이심과 DJ301은 3년 이상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다.

2013년 동아리로 등록이 된 혹이심은 책 읽기와 영상, 리서치와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진행된 ‘식사구시\_食事求是 프로젝트’는 SNS를 통해 여러 청소년들이 참여해 의미있는 식문화 리서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마무리 파티에서는 각자 집에서 시들어가거나 재래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파는 야채를 재료로 카레를 만드는 등 일상 속 문제의식을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해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반기에 진행된 ‘소셜 디렉터’는 청소년 커뮤니티가 사회적기업과 만나 기획과 홍보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진행한 활동이다. 기업 선택, 콘티 준비, 촬영, 영상편집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해냈기에 과정 자체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사회적경제 구조와 기업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은 물론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거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홍보 목적의 영상을

처음부터 제작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도 학교에서는 만나기 힘든 경험이었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DJ301은 DJ 장비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 등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공연까지 무대에 올려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청계천 등에서 음원을 수집해 함께 음악을 듣고, 연습해보는 과정과 함께 소규모 공연 등을 주기적으로 열어봄으로써 다양한 협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멘토로 함께하는 DJ강사와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자 섭외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뮤지션으로서의 감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 성과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집과 학교, 학원 외에는 생활 반경이 협소한 일반 청소년들이 모여 학교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고 인식을 바꾸는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관계맺기를 해봄으로써 스스로의 진로를 연결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사회적 것들과 연결되는 경험의 기회를 만들었다.

외부지원사업 기금으로 진행된 만큼 청소년들이 직접 기금을 따내기 위한 기획서 작업, 결과보고 등의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 과정을 A부터 Z까지 경험해 본 것도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하자센터에서 5년 넘게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망

내년에는 현재 활동하는 2개 동아리 외에 어떤 청소년활동을 지원할지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진로를 중심으로 하되 ‘청소년활동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진로’를 중심으로 하되, 하자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 예를 들어 대안에너지나 환경 등을 주 분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장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다. 이때 단지 청소년들의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멘토의 강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습의 장으로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 청소년 진로콘서트

- 사업 이름 : 청소년 진로콘서트
- 대상 : 15세~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6월 20일, 7월 18일, 12월 19일 / 총 3회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1인당 7,000원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4,403,550원
- 총 참여인원 : 670명(연인원)

●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직종 정보만 알려주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직업 외에도 다른 영역이 있으며 일에 투신하게 되는 경로 및 삶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강연 콘서트로 기획했다.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사회적기업가들을 주로 초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구성에서는 일방향이던 진행되기 쉬운 특강 형식에서 탈피해 참여 청소년들, 멘토 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하고, 메시지가 감성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공연을 브릿지 역할로 삽입했다.

이런 의미의 연장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강연자들이 사회자 등에 의해 특정 ‘직업인’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을 정의하는 한 줄 문장 “나는  한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포맷을 도입했다. 무대 전면 스크린에 등장한 이 문장은 참여 청소년들 역시 자신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삽입해 보며 일과 삶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장치로 작용했다.

## ● 개요

구분	오프닝	강연	공연	클로징
		오리엔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브릿지 공연
내용	-작은 공연/동영상 -강연 소개 : PPT. 이 강연에서 생각하는 정체성과 가치 OT	-1인 20분, 3인 진행 -“나는 <input type="text"/> 한 사람이다.” 콘셉트로 강연	-강연 사이를 이어주는 소규모 공연 -강연자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강연에 대한 질문과 답변
역할	사회자	강연자 구성 - 사회적기업가 - 청년활동가 - 일하는 청소년	밴드 구성 - 유자청 - 이야기꾼의 책공연	사회자

## ● 진행

날짜	강연자	강연자 소개 / 강연 내용
6/20(목) 오후 2시	이경재 대표 _(주)대지를 위한 바느질	<p><b>실패가 즐거운 사람</b></p> <p>청(소)년 시절 나는 인생에서 두 번 큰 실패를 한 바 있다. 그 경험들 속에서 우연히 그린 디자인(Green Design)을 알게 되었고 결혼식이 안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결혼식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을 창업했다. 현재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결혼식을 넘어서 전체 웨딩사업(청첩장, 허니문 등)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 중이며, 여전히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언제나 실패가 찾아오는 법이고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니 차근차근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경험들은 내 실력이 되고 주변인들도 나를 인정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p>
	복태&한군 _밴드 ‘복태와 한군’	<p><b>흙을 노래하는 사람들</b></p> <p>우리는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은 인디 뮤지션이자 소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말하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지 말고, 한 번 밖에 없는 내 인생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보라.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다.</p>

<p>6/20(목) 오후 2시</p>	<p>서동호 대표 _사회적기업 모티브하우스</p>	<p><b>모두가 꿈꾸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b></p> <p>난 항상 많은 꿈을 꾸었다. 그 꿈들은 내 관심사가 변하면서, 또 현실적인 이유로 매번 변했다. 누구든 꿈이 항상 변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모든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다. 일이 곧 직업이 된다면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되거나, 안되거나. 내가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적어봐야 한다. 그 ‘무엇’이 곧 가치인 것이다. 가치와 직업을 잘 버무려봤으면 좋겠다. 또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많은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성장시키고 있다. 꿈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왜 그 꿈을 꾸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았으면 한다.</p>
<p>7/18(목) 오전 10시</p>	<p>김범진 대표 _시지온</p>	<p><b>용기있는 선택을 한 사람</b></p> <p>나의 창업은 악성 댓글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나와 대학 동아리 친구들은 악성 댓글을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창업을 시도했다. 시지온에서 시도하는 ‘라이브리’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자신’ 역시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악성 댓글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김가영 대표 _생생농업유통</p>	<p><b>농촌의 이야기를 농산물에 담아 도시로 전하는 사람</b></p> <p>어렸을 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ADHD라고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았던 나는 고등학교 시절 IT 벤처업체를 창업했고, 대학 새내기 때에는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생생농업유통을 만들었다. 독특한 것은 최고인 것보다 낫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잘 살려보았으면 좋겠다.</p>
<p>12/19(목) 오후 2시</p>	<p>최근준 대표 _사회적기업 애로우 애드 코리아</p>	<p><b>손 끝으로 세상을 돌리고 싶은 사람</b></p> <p>학창시절 음주에 가무, 결석을 밥먹듯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를 떨쳐내고, 대학 4학년 때 창업을 결심했다. 옥외광고 매체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결합한 ‘사인 스피닝(Sign Spinning)’을 선보이는 애로우 애드 코리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 스스로도 격동의 청소년기를 보낸 만큼, 좀 놀았어도 유능한 청소년 인재들을 채용하는 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p>
	<p>김태군 _홍대텃밭 다리 멘토</p>	<p><b>삶도 머리도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 사람</b></p> <p>청소년 시절, 큰 뜻과 꿈을 품었으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20대 초반이 흘러갔다. 그러던 중 그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텃밭에 관심을 갖고 도시농부가 되었다. 이후 도시농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 재미난 일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땅과 농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농부로서의 삶을 위해 땅과 농사에 대한 공부를 하러 시골에 내려가려 한다.</p>

12/19(목) 오후 2시	안연정 대표 _문화로놀이짱	버려진 목재로 ‘명랑에너지’를 만드는 사람  ‘문화로놀이짱’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는 목재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공 창고와 스스로가 일상의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지역 공동작업장인 공공 공방, 두 축으로 운영된다. 이 두 공간을 청년들과 공유함으로써 ‘놀이짱’은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재미와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성익 대표 _‘아울러’ 사람책 도서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리로 이어주는 사람  어린 시절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나는 삶이 무엇인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곤 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청년시절을 맞이했고, 불현듯 떠난 여행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아울러’ 사람책 도서관을 만들었고, 청소년들 역시 사람책을 만나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 ● 성과

진로콘서트는 기존의 ‘직업특강’과는 다른 차원, 성격을 가지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직업이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으로 직결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강연자들을 초대했다. 적게 벌더라도 소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기꺼이 자처한 사람들,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의 진로관을 바꿔줄 수 있는 롤모델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콘셉트는, ‘○○○의 대표’라는 직함보다 더 당위성을 갖는다. 진로콘서트의 강연자들을 보며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한 마디 단어에 대한 영감을 얻고 도전의식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로콘서트의 목표는 참여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 잘 버는 기업 대표들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청년들이 일궈내는 삶의 스토리가 마음에 와 닿았다는 평이 많았다.

2년째 진로콘서트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의 청소년밴드 유자청, 마지막 무대를 맡아 주었던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역시 강연만큼이나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연과 강연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 강연 내용을 음악으로, 또 공연으로 풀어내 참여자들의 감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매개자 역할을 해냈다.



## ● 전망

앞으로도 진로콘서트는 공공영역에서 자기 일을 찾아 노력하고 있는 직업인을 초청해 일과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일과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직업으로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3년에는 개별 강연과 콘서트 풀 영상 등 매회 4종의 영상을 제작해 비메오에 게시했다. 그러나 비메오의 특성상 검색이 어렵고, 공유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내년에는 게시 채널은 물론 구성 면에서 더 완성도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로 진로콘서트의 콘텐츠 및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 more info

강연영상

-2013.06.20(목)

•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

<https://vimeo.com/69414497>

• 밴드 ‘복태와 한군’ 복태와 한군

<https://vimeo.com/69417895>

• 사회적기업 ‘모티브하우스’ 서동호 대표

<https://vimeo.com/69417928>

-2013.07.18(목)

• 사회적기업 ‘시지온’ 김범진 대표

<https://vimeo.com/71399510>

• ‘생생농업유통’ 김가영 대표

<https://vimeo.com/71415451>

• 사회적기업 ‘애로우 애드 코리아’ 최근준 대표

<https://vimeo.com/71420175>

-2013.12.19(목)

• 도시농부 김태균

<https://vimeo.com/82941698>

•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 안연정 대표

<https://vimeo.com/82945708>

• ‘아울러’ 사람책도서관 박성익 대표

<https://vimeo.com/82950108>



# 주말활동사업 (놀라운 토요일)

- 사업 이름 : 주말활동사업(놀라운 토요일)
- 대상 : 17세~19세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
- 진행기간 : 2013년 6월 15일(토)~6월 22일(토) / 11월 2일(토)
- 참가방법 : 전화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프로그램마다 상이
- 장소 : 서울광장,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2,000,000원
- 총 참여인원 : 6,589명

● 일반 교육 현장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서 서울시 자치구와 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되어 '서울이 배움터가 되는' 큰 지도를 그려보았다. EXPO를 알리는 개막행사와 더불어 각 수련관에서 이에 맞는 주중/주말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센터에서는 개막행사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간단한 워크숍과 공연 등을 마련하였고, 상시 진행되고 있는 일일직업체험 및 청소년토요진로학교 등을 함께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각 자치구 청소년 기관 및 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단일 행사로 '청소년축제'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자센터도 개별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

복태와 한군 공연

흑의 알





	일차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인원
상반기	청소년축제 개막식	6월 15일	솔직하자	청소년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적어 ‘솔직한 나무’에 걸고, 또래 청소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덜어주는 ‘청소년 공감 프로그램’	602
		11:00~19:00			
		11:00~19:00	내 몸으로 만드는 전기	폐자전거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자전거 발전기 전시 및 활용. 청소년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력을 생산하여 연결한 선풍기 시연	
		14:00~15:00	두 줄 기타 워크숍	창의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으로 참가자들이 기타줄 중 일부인 두 줄만을 사용해 개인연주 및 합주 진행	
		16:00~17:00	유자청 공연	하자센터 내 청소년 밴드인 ‘유자청’ 공연	
	4일차	6월 19일	일일직업체험	영상, 게임, 목공, 도시농부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체험 프로그램	1,598
		10:00~18:00			
	5일차	6월 20일	청소년 진로콘서트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사회적기업가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일의 경로와 삶을 소개하는 대규모 강연콘서트	1,356
		14:00~16:00			
	6일차	6월 21일	일일직업체험	영상, 게임, 목공, 도시농부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체험 프로그램	1,525
10:00~18:00					
7일차	6월 22일	청소년 토요진로학교	유기동물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 진행. 공공의 일과 가치라는 진로 관점을 배우는 진로 프로젝트	1,292	
	13:00~16:00				
하반기	청소년축제 개막식	11월 2일	체험부스 : 명함디자인/ 목공	직업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워크숍을 통해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체험활동 - 명함디자인하자 : 명함 디자인, 북 디자인 체험 및 출판, 전시 디자이너와의 대화 - 목공하자 : 청년 작업자와의 목공작업으로 ‘평화의 목걸이 만들기’ 체험	150
		11:00~17:00			

하반기	청소년축제 개막식	14:00~17:00	먹거리장터 : 인생을 요리하는 청소년 요리사 ‘영셰프’	자립과 성장, 함께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요리 대안학교 영셰프스쿨 학생들이 준비한 건강한 먹거리 장터	66
-----	--------------	-------------	--------------------------------------	--	----

## ● 성과

개막행사에서는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들, 그리고 여기서 각각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개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하자센터가 준비한 현장작업자들과의 워크숍 및 체험 프로그램은 좀처럼 직업 현장 및 직업인을 볼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들과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직접 체험까지 하는 기회가 되었다. ‘놀토 엑스포’를 통해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고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성취감도 동시에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팀을 이뤄 행사를 준비하면서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기회도 되었다. 놀토엑스포는 하자센터 내 교육기획팀, 학교운영팀, 협력기획팀이 실행단계에서 함께 협력하고 진행하였다.

## ● 전망

‘서울이 곧 배움터이자 학교’라는 콘셉트를 갖고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조성되고, 구성도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동아리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분야, 형식 등이 다양화되어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올해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진행하는 활동으로 참여했으나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주최 측의 준비가 미흡하고 제약이 많아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를 통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3 진로교육 교사 연수

- 사업 이름 : 2013 진로교육 교사 연수
- 대상 : 초·중·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서울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주최) 참가 교사
- 진행기간 : 2013년 4월 10일(수), 4월 24일(수), 5월 9일(목),  
6월 12일(수), 6월 19일(수) 등 총 5회
- 장소 : 하자센터 내 각 공간
- 총 사업비: 4,443,480원
- 총 참여인원: 300명(연인원)

● 하자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위한 교육연수 중 진로교육 현장방문 부문 의뢰를 받았다. 또한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를 중점으로 요청받았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자센터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과 이들 기업에서 만든 작은 학교들을 소개함으로써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

## ● 진행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진로교육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하되,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사례 중심의 이야기들로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하자센터의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센터 프레젠테이션과 공교육 대상 프로그램 소개, 하자의 공간 투어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하자센터가 인큐베이팅한 4개 사회적기업을 초대해 교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공연분야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과는 직접 몸을 움직이는 워크숍을 함께했으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유유자적살롱, 오가니제이션 요리, 주식회사 연금술사 등 3개 사회적기업과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들이 진행 중인 교육사업의 방향과 내용 등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체 진행 후에는 좀더 심화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4개 팀으로 나뉘어 테이블 미팅을 진행했다.

###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안내	
13:30~15:00	마음열기 오리엔테이션	이야기꾼의 책공연
15:00~15:10	휴식	
15:10~15:30	하자센터 진로교육 프로그램 소개	
15:30~15:50	공간 투어	5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
15:50~16:00	휴식	
16:00~16:30	사회적기업가 강의(각 10분씩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유자적 살롱 / 이충한 공동대표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 음악으로 사회에 말 건네기</li> <li>○ 주식회사 연금술사 / 박진숙 대표 ‘소풍가는 고양이’ : 후기 청소년의 진로 설계 : 창업을 통한 일머리 배우기</li> <li>○ 오가니제이션 요리 / 한영미 대표 ‘영세프스쿨’ : 요리를 통한 자기 길찾기</li> </ul>
16:30~17:40	테이블 미팅(각 15분×4회)	유유자적살롱, 주식회사 연금술사, 오가니제이션 요리, 하자센터 등 총 4개 테이블로 나뉘어 진행
17:40~17:50	정리 및 설문	

## ● 성과 및 전망

일단 교육청의 요청이 사회적기업 등 진학이 아닌 다른 방향의 대안적 진로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파트로 넣어 구성하였다. 따라서 전반부에는 하자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레젠테이션과 공간투어, 공교육 대상 진로교육 안내를 진행했으며 후반부에 사회적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테이블 미팅을 배치했다. 이에 대한 시간 및 비중 배분은 적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워크숍, 소규모 테이블 미팅 등을 섞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입체적인 구성 및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장(場)을 일구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들이 진학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의 진로 교육에 대한 영감을 얻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였으며 일부 교사들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참여한 대다수 교사들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의 경우 자기 혼자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사회적기업 등 다른 진로로 학생을 안내한다 하더라도 기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소수였다. 오히려 교육기획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문의 또는 몸 워크숍을 한 이야기꾼의책공연 팀과의 프로그램 연계, 마을장터 달시장을 통한 창업 동아리 참여 등 구체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교사들의 요구는 당장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테이블 미팅의 질의 응답에서도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외에 아이들을 자퇴시키고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라 도움이 안 된다고 하거나 프로그램 및 제품의 구체적인 종류 및 가격을 질문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일직업체험은 예약이 빨리 마감되어 쉽지 않고, 토요일진로학교는 개인 참여이니 평일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 또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적으니 진로 교사들이 연결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사 관련 인력풀을 하자에서 교육하거나 확보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및 강사 연계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하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일차적 대응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삶의 선택 사례를 보여주는 데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공 및 연계가 아닌 현장 사례 공유가 주목적이었기에 하자센터 및 연계 사회적경제 그룹들의 진로교육 방향을 알렸다는 점에서는 유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연수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전 교육이 보완된다면 학교 밖 현장들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진로교육과의 연계 의의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다수이긴 했지만 하자의 공간 구성과 사업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교사들도 일부 있었으며, 이들의 존재가 향후 하자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 속 파트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후 후속 사업을 기획하거나 하자의 진로교육 관련 행사들에 꾸준히 초대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하자센터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관심과 현황을 일부나마 파악하고 관심 있는 교사들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하자 네트워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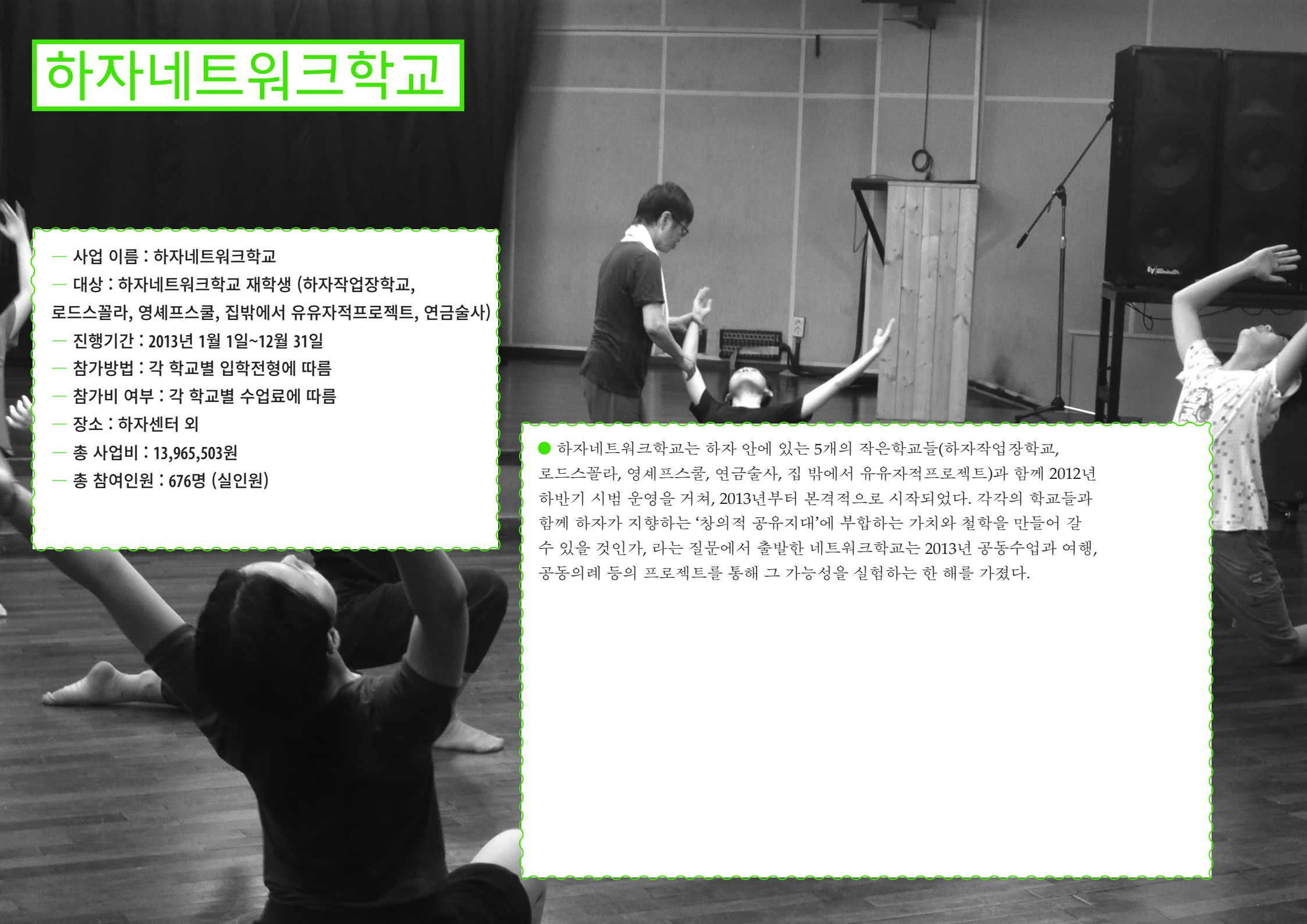
하자 안의 작은 학교들  
그리고 함께하는 네트워크 실험



# 하자네트워크학교

- 사업 이름 : 하자네트워크학교
- 대상 : 하자네트워크학교 재학생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세프스쿨, 집밖에서 유유자적프로젝트, 연금술사)
- 진행기간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 참가방법 : 각 학교별 입학전형에 따름
- 참가비 여부 : 각 학교별 수업료에 따름
- 장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13,965,503원
- 총 참여인원 : 676명 (실인원)

● 하자네트워크학교는 하자 안에 있는 5개의 작은학교들(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세프스쿨, 연금술사, 집 밖에서 유유자적프로젝트)과 함께 2012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각의 학교들과 함께 하자가 지향하는 '창의적 공유지대'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네트워크학교는 2013년 공동수업과 여행, 공동의례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한 해를 가졌다.





## ● 진행

제 목		날 짜	내 용
공동수업	메테의 design thinking	1월 14일~18일	네트워크학교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방학 중 총 3개 공동 수업 개설 및 진행
	남정호 춤 워크숍	2월 17일~26일	
	프랑스 가정요리	2월 18일~22일	
현장학습		6월 7일~8일	고정희 시인 추모 기행 (해남)
공동수업		7월 22일~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남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춤 워크숍, 방학 중 공동수업으로 진행
특강 - 독일 에너지 정책		12월 3일	독일 에너지 정책과 교육에 대한 특강
현장학습		12월 13일	청소년 연극 <복서와 소년> 단체 관람
네트워크학교 마무리파티		12월 18일	하자네트워크학교 소속 5개 학교의 학습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페차쿠차 진행

## ● 성과

2012년이 교사를 중심으로 하자 안에 있는 5개 학교들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인식하고, 네트워크학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2013년은 학생들과 콘텐츠로 구체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공간 공동사용을 넘어 각 학교가 하자의 교육철학이나 지향점과 얼마나 발을 맞춰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부적 질문과 함께, 하자의 교육적 성과를 외부로 넓혀가길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가 시기적으로 맞물렸다.

각기 다른 커리큘럼과 일정, 교육 철학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은 네트워크학교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험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자 안에 있는 또래 청소년들 간 교류와 학습 자원의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습자원과 배경을 지닌 대안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그리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초석으로서 다양한 학습조직 간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 ● 전망

네트워크학교는 점차 점점의 면과 밀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교, 학생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자가 지향하는 공생과 호혜, 돌봄과 환대 등의 철학이 어떻게 다양한 학습 과정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조직들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실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동력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향후 네트워크학교의 핵심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학습자원화하면서, 세대와 계층, 지역과 성별을 넘어서는 학습하는 공동체, 창조적인 학습조직의 사회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 ● more info

• 사이트 <http://nschool.haja.net>



# 하자작업장학교

● 하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는 제 4섹터의 창의적 공공작업자로 성장해갈 청소년들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2001년 9월에 개교하면서 하자작업장학교 1기를 시작했고, 10년째 되던 2010년에 다시 2기로 이어졌다. 1기는 학교밖에도 청소년이 있으며, 평생 지속할 즐거운 배움과 일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 밝히는 학교였다.

2기의 하자작업장학교 또한 1기의 하자작업장학교처럼 청소년들의 ‘학교만들기’ 기획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학교는 ‘배움이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함께 있는 ‘우정의 작업장’이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학교이다.

## 1. 중등과정(2년): 손과 시간과 마음의 연결망을 만드는 ‘실과교실’: ‘우정’과 ‘협동’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은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살리는 실과교실이다. 생활기술로서 버려진 자전거를 세상에 하나뿐인 자전거로 재생하고, 목공 연장들과 친해져 작은 목공일을 배우기도 한다. 인문학과 글쓰기, 노래짓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배운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한다.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실 공간이나 주변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종종 세계에서도 몇 개 안되는 모래강 내성천을 찾거나 내성천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산어린이학교와 (자전거/목공) 공방협력교실을, 성미산학교와 평창의 농장학교 농활을 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더하여 영월의 강원도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진로/생태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2. 고등과정(3년): 불난 숲을 구원하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크리킨디학교’: ‘생태’, ‘평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다양성, 함께 살기)

고등과정의 시즌2를 시작한 뒤 곧이어 목격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학교의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했다. 시즌2의 세 개 키워드는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 디자인, 영상, 공연음악, 춤 등의 예술적 매체를 배우고 익히되, ‘현미 네 흙(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인문적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2013년에는 부안, 영광, 삼척, 밀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 지형’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시작했고, 2012년부터 시작한 SOS 어린이마을과의 ‘우리동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3. 청년과정(2년): 삶과 공동체의 회복resilience를 꿈꾸는 ‘전환기술작업장’: 자공공(自助 / 公助 / 共助)

2013년에 시작한 청년과정은 ‘스스로를 돌보고 함께 살고 일하며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슬로건 하에 시작한 자공공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과정의 학습을 돕는 인턴 혹은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농업과 적정기술(목공, 철공, 난로제작 등)의 기초수업을 진행한 첫 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적정기술 집짓기 프로젝트와 자공공인문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적정기술캠프도 계획 중이다.



● more info

- 사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
- 페이스북 <http://goo.gl/9AYHK>

# 로드스꼴라

- 사업 이름 : 로드스꼴라
- 대상 : 15세~22세 청소년으로서 로드스꼴라에 재학중인 4기, 5기 떠별
- 진행기간 : 2013년 1월~2014년 1월
- 참가방법 : 로드스꼴라에 재학 또는 입학
- 참가비 여부 : 등록금(중식비 포함) 및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여행경비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303호, 본관 208호
- 총 사업비 : 360,128,214원
- 총 참여인원 : 60명(떠별 30명, 길별 5명, 초대길별 25명)

● 여행 대안학교 로드스꼴라는 길머리 및 길가온 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단계 중 탐색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행을 매개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인식의 틀을 넓히고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기르는 한편, 여행 중에 함양된 감수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영상, 문집, 음반 등을 제작하고 공연을 기획, 진행시키며 직접 출연까지 해봄으로써 문화작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로드스콜라 2013년 전체 학사일정

날 짜	일 정
2013.1.14(월) ~ 1.25(금)	[5기] 지원서교부 및 접수
2013.1.30.(수)	[5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2.1.(화) ~ 2.7.(화)	[5기] 1차 등록기간
2013.2.5.(화) ~ 2.8.(금)	[5기] 2차 면접 전형
2013.2.14.(목)	[5기] 2차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2013.2.20.(월) ~ 02.29.(수)	[5기] 2차 등록기간
2013.2.24.(금)	[5기] 예비모임 - 입학식 준비
2013.2.25.(월)	[4기] 로드스콜라 2013년 봄학기 개학파티
2013.3.4.(월)	[5기] 로드스콜라 길머리 입학식 및 길가온 개학파티
2013.3.25.(월) ~ 3.29.(금)	[5기] 금단재 프로젝트(4박 5일)
2013.3.25.(월) ~ 4.05.(금)	[4기] 여행경비 납부
2013.4.8.(월) ~ 4.18.(목)	[5기] 지리산 둘레길 도보여행(10박 11일)
2013.4.14.(일) ~ 5.22.(목)	[4기] 베트남 & 라오스 프로젝트
2013.4.19.(금) ~ 5.08.(수)	[5기] 구례 마을프로젝트 (19박 20일)
2013.5.15.(수) ~ 6.26.(수)	[5기] 결과물 작업
2013.5.31.(금)	[4기] 베트남&라오스 프로젝트 이후 등교시작
2013.6.27.(목)	[4기 & 5기] 로드스콜라 2013년 봄학기 종강파티 및 길머리 과정 수료식
2013.7.1.(월) ~ 7.2.(화)	[4기 & 5기] 2013년 로드스콜라 여름 M.T
2013.7.8.(월) ~ 7.11.(목)	[5기] 길머리 과정 평가테이블
2013.7.10.(수) ~ 7.13.(토)	[4기] 길가온2 과정 평가테이블

2013.07.12.(금) ~ 09.01.(일)	[4기 & 5기] 여름방학	
2013.08.16.(금) ~ 08.23.(금)	[4기 & 5기] 2013년 가을학기 등록금 납부	
2013.9.2.(월)	[4기 & 5기] 4기 길가온3 과정/ 5기 길가온1 과정 가을학기 개강식	
2013.9.9.(월)	[4기] 제2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 참가	
2013.9.3.(화) ~ 10.8.(화)	[4기] 길가온3 과정_수료프로젝트 : 뮤지컬공연 및 음반제작, 베트남축제 기획, 드로잉&사진 책 만들기	[5기]길가온1 과정 학기수업
2013.10.9.(수) ~ 11.8.(금)	[5기] 베트남여행 프로젝트	
2013.11.9.(토) ~ 11.17.(일)	[5기] 단기방학	
2013.11.28.(목) ~ 11.29.(금)	[4기] 베트남축제 '카바레사이공 1막13장' 진행	
2013.12.2.(월) ~ 12.6.(금)	[4기] 단기방학	
2013.12.7.(토)	[6기] 2014학년도 로드스꼴라 입학설명회	
2013.12.9.(월) ~ 12.27.(금)	[4기] 수료식 준비	
2013.11.18.(월) ~ 12.26.(목)	[5기] 학기 수업	
2013.12.27.(금)	[5기] 길가온1 과정 종강파티	
2013.12.30.(월)	[6기] 2014학년도 로드스꼴라 지원자 서류전형 결과발표	
2014.1.2.(목) ~ 1.4.(토)	[4기] 평가 테이블	
2014.1.6.(월) ~ 1.10.(금)	[6기] 2014학년도 로드스꼴라 지원자 심층면접	
2014.1.9.(목) ~ 1.10.(금)	[4기] 로드스꼴라의 초대 서촌여행 진행	
2014.1.13.(월) ~ 1.16.(목)	[5기] 평가 테이블	
2014.1.15.(수)	[6기] 2014학년도 로드스꼴라 합격자발표	
2014.1.25.(토)	[4기] 수료식	

## \* 세부 프로그램

(1) 로드스콜라 4기 교육과정

1) 4기 길가온2 과정\_베트남 &amp; 라오스 프로젝트

○ 일정 : 2013년 2월 25일~6월 27일

○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베트남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메인 프로젝트 공정무역 탐방
11:00 ~ 12:30	메인 프로젝트	영어회화	메인 프로젝트	영어회화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글쓰기A	글쓰기B	음악	메인 프로젝트 팀별	
	사진	드로잉			생태텃밭 교실
16:00 ~ 18:00	퍼커션	선택과 집중	메인 프로젝트	여행 인문학	

2) 4기 길가온3 과정\_수료프로젝트

○ 일정 : 2013년 9월 2일 ~ 12월 27일

○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10:00 ~ 11:00	개인 프로젝트	영어회화	인문학특강	영어	금요소풍
11:00 ~ 12:30	베트남축제 기획회의	개인 프로젝트		요가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메인 프로젝트 -뮤지컬 -축제기획	드로잉	메인 프로젝트 뮤지컬 영 상 디자인	메인 프로젝트 뮤지컬 영 상 디자인	
16:00 ~ 18:00		선택과 집중			생태텃밭 교실



(2) 로드스콜라 5기 교육과정

1) 5기 길머리과정\_구레프로젝트

○ 일정 : 2013년 3월 3일~6월 27일

○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40 ~ 10:00	아침모임			목요 건자	생태 텃밭교실
10:00 ~ 11:00	영어				
11:00 ~ 12:30	메인 프로젝트	영상	여행인문학		
		디자인			
12:30 ~ 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 ~ 16:00	퍼커션	영상	춤		
		디자인			
16:00 ~ 18:00	글쓰기	선택과 집중	목공	글쓰기	
	우쿨렐레			우쿨렐레	

2) 5기 길가온1과정\_베트남프로젝트

○ 일정 : 2013년 9월 3일 ~ 12월 27일

○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아침모임						
10:00 ~ 11:00	연극A	영상B	영어A	영어B	영어A	영어B	
11:00 ~ 12:30			베트남어		연극B	영상A	베트남어
12:30 ~ 14:00	점심시간						
14:00~15:50	메인 프로젝트		글쓰기B	디자인A	메인 프로젝트	생태텃밭 교실	금요탐방
16:00~17:50	글쓰기A	디자인B	선택과 집중		목공		

## ● 성과

2013년 로드스콜라는 4기 재학생과 5기 신입생들과 함께 1년을 보냈다. 우선 4기는 길가온 2, 3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정무역,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트남 여행을 하며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켰다. 수료학기인 2학기 가을학기에서는 뮤지컬, 영상, 책 디자인 등 세 팀으로 나뉘어 베트남 메인 프로젝트를 각 장르별로 기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 공유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수료 프로젝트로 베트남축제를 기획하여 베트남과 공정무역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한편 신입생인 5기는 봄학기 때, 지리산 둘레길 도보여행과 구례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떠벌, 길별과의 멤버십을 만들어갔다. 로드스콜라는 2013년도 역시 여행 학교로서 길 위에서 공부하며, 지역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에 접근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 ● 전망

로드스콜라는 우선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 맵에서 분리, 독립하며 비영리 단체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런 만큼 학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학사일정 면에서는 재학생 5기와 신입생 6기를 대상으로 길가온 2, 3과정과 길머리 및 길가온 1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떠벌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공정무역, 영국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진 문화작업자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6기 신입생들은 국내여행을 통해 함께 먹고 자고 작업하면서 여행자의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하며,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한 갈등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방식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로드스콜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행 속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식을 통해 학습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결해 연대하며, 소통과 배려, 즐거운 상상과 창의력을 가진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예정이다.

## ● more info

- 사이트 <http://roadschola.haja.net>
- 팀블로그 <http://roadschola.tistory.com/>



# 영셰프스쿨

- 사업 이름 : 청소년 요리 대안학교 영셰프스쿨
- 대상 : 17~22세 청소년
- 모집 시기 : 매년 12월말~다음해 1월말
- 모집정원 : 10명 (최대12명)
- 학비 : 무료
- 학제 : 1년 2학기 2년제
- 2013년 재학인원 : 선발인원 11명 / 수료 5명

● 영셰프스쿨은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운영하는 청소년 요리 대안학교로, 요리를 매개로 자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되도록 응원하며, 현장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이 통합된 현장기반의 교류'를 통해 더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리 수업뿐만 아니라 요리를 매개로 인간됨을 배우는 요리인문학, 오감발달을 위한 감성수업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는 법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법,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진행

단계	1년차 트레이닝	2년차 인턴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일 전일제 수업</li> <li>- 매주 월요일~금요일, 9:00~17:00</li> <li>- 시존학교(제주) : 7월 초순 경</li> <li>- 방학 : 8월 중</li> <li>- 수료식 : 12월 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 슬로비</li> <li>- 성북 슬로비</li> <li>- 제주 슬로비</li> <li>- 르세프 블루</li> <li>- 코리아나호텔 중식당 대상해 외</li> </ul>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수업, 요리인문학 (경영, 회계, 위생, 환경수업), 요리감성학 (연극, 밴드, 몸수업 등), 푸드테라피, 미각수업, 도시농사, 멘토 특강, 시존학교, 팝업매점, 자치회의, 테스트마켓(달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업무 수행</li> <li>- 인턴십 현장 기획</li> <li>- 개별 미션 수행 및 학습계획서 작성</li> </ul>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수업 (09:00~13:30)	영셰프 밥집 운영실습 (재료 손질, 메뉴작업, 배식)				
중식 (13:30~14:55)	식사 후 멘토 셰프의 오전 실습 피드백 (운영일지 작성)				
오후수업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수업</li> <li>- 명상수업</li> <li>● 자치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요리수업</li> <li>- 한식 (3~5월)</li> <li>- 중식 (6월)</li> <li>- 양식 (9월)</li> <li>- 일식 (10월)</li> <li>- 바리스타 (11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인문학</li> <li>- 슬로푸드</li> <li>- 로컬푸드</li> <li>- 미각수업</li> <li>외 특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양교육</li> <li>- 위생교육</li> <li>- 경영수업</li> <li>- 영어수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활동</li> <li>- 매점</li> <li>- 견학</li> <li>- 달시장</li> </ul>

● 성과

분류	2013
선발 인원	11명
수료 인원	5 (신수진, 조은아, 조호연, 장정우, 김수정)
인턴 / 취업 / 기타	5

인턴 / 취업 / 기타	인턴 : 제주슬로비 / 성북슬로비 / 르세프 블루 기타 : 진학 및 준비
사업비	120,110,000원
후원   자부담	27,120,000   15,010,000
후원처	하자센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점 사항	요리인문학 : 요리를 통해 사람됨을 배우는 과정 중점 교육
교육 내용	요리인문학 (경영, 환경, 쿡잉글리시, 절기음식) 요리감성학 (연극, 밴드수업, 명상, 몸수업) 요리 실습 (밥집실습,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핑거푸드, 커피) 도시농사, 테스트마켓, 시즌학교
기타	- 2년제 학교제 실시 원년으로 안정적인 커리큘럼 구성에 집중 -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파절이, 환경연합, 슬로푸드문화원 외)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와 폭넓은 가능성에 대한 고민 독려

## ● 전망

### • 인턴십

-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에서 배우는 과정
- 1단계 인턴십 : 오가니제이션 요리 담당자들의 멘토링
- 2단계 인턴십 : 취업 또는 취업 직전의 인턴십 심화 과정, 현장 전문가 멘토링

### • 시즌학교

- 공동체 기반의 '농부체험' 과정이 시즌학교의 토대가 됨
- 일하며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1주일~1개월 단기 교육과정
- 영세프 1년 트레이닝과 인턴십 과정 중 참여 가능

### • 창업학교

- 영세프 청년레스토랑을 목표로 실제 창업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교육과정 추후 설계
- 주요 멤버 : 전문가 그룹 및 1년 이상의 현장 트레이닝을 수료한 영세프 1기~4기를 중심으로 구성

영세프스쿨은 특화된 커리큘럼을 기초로 하여 학습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청소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요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외식 생태계와 학습현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다.

● more info

-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chef8](http://www.facebook.com/youngchef8)
- 20세 사장-17세 셰프, 제주 입맛 사로잡다  
<http://news.donga.com/3/all/20131225/59770722/1>
- <동아일보> 2013. 12. 25
- 연 10억원 매출 맛집의 '슬로 미스' 사장님  
<머니투데이> 2013.7.20
- 제주산 식재료로 '제주의 맛' 찾는 젊은 요리사들  
<제주일보> 2013.7.29



#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 회사명 :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 대상 : 18~24세 탈학교·탈시설·대안학교 졸업한 청소년/청년
- 진행기간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 장소 : 마포구 성산동 '소풍가는 고양이'

● (주)연금술사는 2010년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18~24세 청소년/청년에게 고용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적기업 인턴십을 병행하는 일학습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2011년 참여 청소년/청년과 함께 성미산마을에 '도시락으로 좋은 삶을 만드는 작은 회사' '소풍가는 고양이'를 창업했다. '소풍가는 고양이'는 친환경 도시락 배달 주문을 주종으로 하는 '청소년 주식소유기업'으로 손님에게 정직하고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감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청년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미래를 계획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주)연금술사는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에게 따뜻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돌파구를 찾도록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모델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혁신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선정되었다.

## ● 진행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는 2013년 ‘위기를 넘겨 한 보 앞으로 나아가는 해’를 보냈다.

2013년의 목표는 ‘착한 마음에 더해 더불어 사는 능력으로, 정직한 밥벌이에 더해 발랄하고 관찮은 일터’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목적	내용
요식업계에 대한 편견, 번아웃 극복하고 정체성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년간의 행보 돌아보기를 통해 창업 모델의 유효성 점검 :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청소년 창업경험 분석에 관한 연구 발주</li> <li>· 한 달 간의 파격적 휴지기(휴가, 워크숍, 자전거 갱생 프로젝트)</li> <li>· 동기 부여 위해 지난 성과 분배(수당제 도입, 성과급 지급)</li> <li>· 청소년 신입사원 고용으로 선후배 문화 만들기</li> </ul>
외부 협력 네트워크 통해 경영 내실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오요리아시아에서 1년 동안 경영 컨설팅과 기술 전수</li> <li>· 직원협동조합 ‘숨’에서 마케팅 컨설팅과 고객 관리 기술 전수</li> <li>· 성미산 마을기업 ‘동네부엌’ ‘코노니아’와 자원 공유 통해 시설투자 경비 절감 : 기물/인력/레시피 등 공유하고 대량 주문 시 협력 작업</li> <li>· 판촉물/홈페이지 제작/저가 메뉴 개발 통해 재구매율 신장</li> </ul>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 가능성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청소년/청년 고용과 생산라인 효율화를 위해 2014년 9월 확장 이전 예정</li> <li>· 청소년자립모델 사례발표 요청 받아 2014년 2월 일본 NPO ‘문화협동넷’ 방문</li> </ul>

## ● 전망

(주)연금술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삶 모델 개발’에 애쓰고 있다. 청소년/청년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삶은 경제적 능력 회복과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잠재력 개발, 더불어 사회 환원 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소풍가는 고양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인 셈이다. 현재 ‘소풍가는 고양이’는 아래와 같이 ‘좋은 삶 모델’을 세부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해나가고 있다.



항목	내용
노동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제</li> <li>· 근무시간 줄이기 : 6시간 노동, 2교대 근무</li> <li>· 사회보장 지원</li> <li>· 재충전 위한 휴식 : 1년에 2회 휴가, 3년마다 안식월</li> </ul>
살림능력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대출 지원 : 주거 보증금 대여 등</li> <li>· 직무능력 기르기 : 제품 개발, 매출/상품/고객분석 교육</li> <li>· 생활능력 기르기 : 저축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li> <li>· 시민의식 기르기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li> <li>· 사회적 자본 만들기 : 마을과 이웃, 친구와 학교, 멘토 등</li> </ul>
문화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활동 : MT, 단체공연 관람 등 함께하는 문화생활</li> </ul>



### ● more inf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go5090>

· 홈페이지 <http://somssizip.org/sogo>

· ‘도시락, 세상을 구하다’

<http://change15min.com/285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청소년이 만드는 정직한 도시락, ‘소풍가는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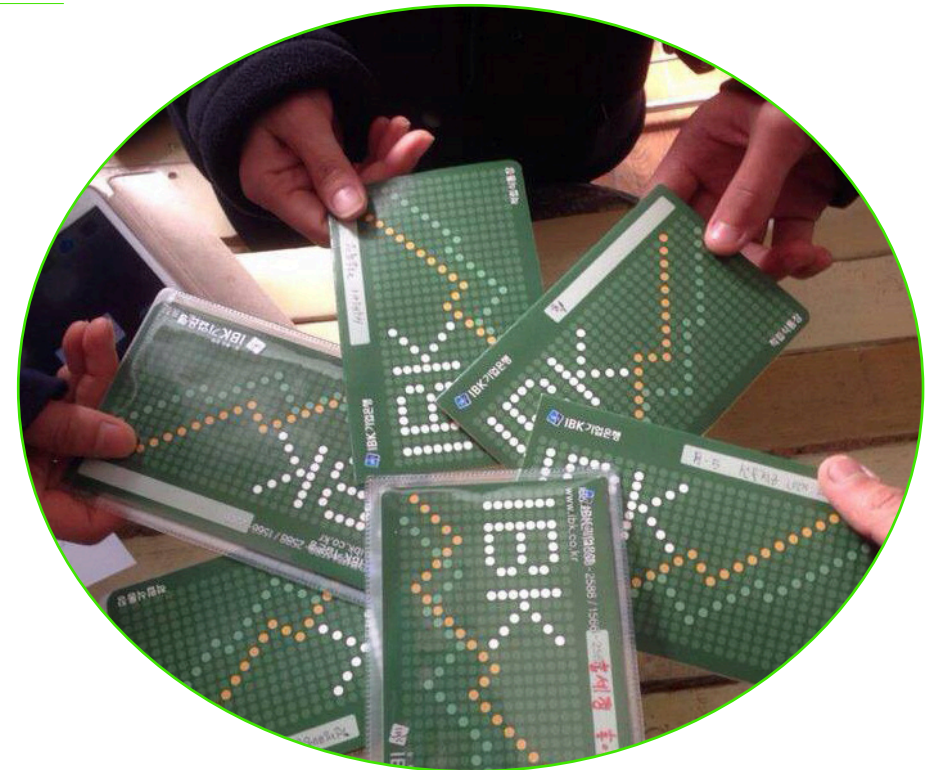
<http://se.hani.co.kr/arti/review/restaurant/196.html>

<한겨레 신문> 2013.10.4

·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락’

<http://sehub.blog.me/150177208016>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 블로그 세모 (네이버 메인 2회 노출)



#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 사업 이름 :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나들이반)
- 대상 : 15~24세 탈학교 비활동 청소년
- 진행기간 : 2013년 10월~12월
- 참가방법 : 개별 상호면접 후 결정
- 참가비 여부 : 1인당 100,000원(저소득층 면제)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4,884,800원(내부인건비 제외)
- 총 참여인원 : 9명(실인원)

●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는 탈학교 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무중력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관계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청소년들 대부분이 사회관계와 소통에서 곤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50여 명의 '무중력 청소년'들과 함께 해 온 유유자적 프로젝트는 2013년을 맞아 참여 청소년의 범위를 '정서적 위기상태'에서 '관계적 위기상태'로 확장, 재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다. 관계와 정서적 위기가 함께 겹친 상태가 '무중력'이라면, 정서적으로는 크게 위급하지 않지만 관계적 공백상태가 길어진 '저중력'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보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들, 나아가서 학교 내에서도 사실상 저중력/무중력 상태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 ● 진행

주 3회 3개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2013년의 유유자적 프로젝트는 주 3회 6개월의 ‘상시반’과 주 1회 3개월의 ‘나들이반’ 두 갈래로 기획되었다. 상시반은 수료 후 과정의 청소년과 관계적 위기 혹은 공백 상태만을 겪는 저중력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쉼터형’으로, ‘나들이반’은 낮은 수준의 정서적 위기와 관계적 공백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벼운 ‘프로그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시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나들이반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상시반의 경우는 수료 후 과정 청소년들이 또래 스태프가 되어 신입생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행히 세 명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나갔다. 나들이반은 처음부터 일대일 지도가 아닌 6명 모두 함께 모여 악기를 배우는 집합 수업방식을 택했는데, 초반 1~2주의 어색함이 풀리고 난 뒤부터는 모두들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후반부에서는 상시반도 함께 참여하여 12월 공연을 위한 합주를 하기도 했으며, 두 과정의 결과발표회는 12월 초 홍대 클럽 ‘벨로주’에서 열린 ‘유유자적 부족파티’를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 성과

2013년의 성과는 기존 유유자적 프로젝트의 대상과 기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6개월 간 장기 프로그램인 상시반, 저중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이반을 운영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반의 경우 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총 66회의 강의 및 소규모 공연 3회, 최종 발표공연 1회를 진행하였고, 나들이반은 3개월 동안 6명의 청소년과 함께 음악교육 프로그램 18회, 특별활동 7회, 소규모 공연 1회, 발표공연 1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12월에 열린 유유자적 부족파티 ‘Slow Submarine’에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상시반과 나들이반 청소년 모두가 참여하였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1개월 동안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을 통한 사회성과 자신감의 회복’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자살롱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딩에대’를 통해 유자살롱을 경험하고 지지를 보내는 성인들이 청소년들과 만나고 무중력 상황에 대해 더욱 연대할 수 있었고, 하자센터가 아닌 외부 유명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유자살롱 구성원들과 청소년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부족파티의 관객으로는 유자살롱 수료 청소년, 직딩에대 수료자, 유자살롱 팬 등 1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었다.



## ● 전망

역설적이게도, 저중력 청소년들을 위한 ‘나들이반’을 운영하면서 배운 사실은 탈사회화의 정도가 깊지 않더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집약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큼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온 저중력 상황의 청소년들에게도, 결국에는 기존 무중력 청소년을 만날 때와 비슷한 밀도의 음악교육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1주일 1회 2개월로 계획했던 나들이반의 운영이 1주일 2회, 3개월 간 운영으로 수정되었고, 강사 투입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2014년에는 다시 예년과 비슷한 밀도의 유유자적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가볍게 참여해볼 수 있는 ‘나들이반’과 ‘상시반’을 혼합시킨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마련해볼 계획이다.

## ● more info

• 사이트 [www.yoojasalon.net](http://www.yoojasalon.net)

• 회사 휴업하고 직원들과 음반 낸 대표들

[소셜디자이너열전]<24>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 이충한·전일주 공동대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1217591873356&outlink=1>

<머니투데이> 2013.4.20



# 마을생태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학습 생태계



# 하자허브

자공공(自助, 共助, 公助)의 실현 :  
창의적 공공시대 (Creative Commons)

# 자공공 아카데미 2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 사업 이름: 자공공 아카데미 2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 대상: 지속불가능해지는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
- 진행기간: 2013년 3월 20일~ 5월 22일 매주 수요일 저녁 6~9시 (5월 8일 3시~6시)
- 참가방법: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1인당 7,000원
-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신관 101호, 103호, 203호 등
- 총 사업비: 8,363,770원
- 총 참여인원: 전체강좌 수강자 114명
- 실제 참여인원(개별강좌 참여자 포함) 총 778명(실인원)



-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함께 돌보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허브의 운영원리인 '자공공(自共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온 '근대' 문명을 성찰하고,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을 나누며 시대를 이끌어갈 기본 개념과 가치를 익히고 다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공공 아카데미는 기획되었다.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자공공 아카데미 1기에서는 '공간과 사회 큐레이팅'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공공 영역'을 만들어낸 장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공공아카데미 2기는 지속가능성을 생태와 경제를 넘어 개인의 지속성, 관계의 지속성, 가족의 지속성, 국가의 지속성 등 삶의 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언어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론과 실천의 만남을 모색하며, 현장을 연결하고, 통섭을 꾀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과 일상을 공유하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작은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활발한 상호학습 속에서 수강생들이 함께 일할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의 장과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팀들을 하자센터의 단골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다.

## ● 진행

1월 조한혜정 센터장의 구상을 바탕으로, 사회학자 엄기호가 대략의 기획안과 취지문을 작성했다. 1월 말 하자 10여 명의 판들이 참여한 자공공 아카데미 기획단이 구성되어 한 달간의 사전 학습모임을 갖고 기획과정을 함께 했다. 자공공 아카데미 기획단은 이후 아카데미 당일 현장 진행과 사후 평가회의도 함께했다. 허브 판들이 이한나(고나)는 웹 포스터 및 PPT 제작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도 결합했다. 또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 인턴으로 참여해 아카데미 당일 현장 실무와 녹취록 작성을 담당했으며 기획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보냈다. 섭외와 기안, 자료집 제작, 웹사이트 리뉴얼 등 실무는 허브 판들이 문보미(이서)가 담당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간단한 식사는 하자센터 ‘연금술사 프로젝트’ 창업 1호점인 ‘소풍가는고양이’에서 준비했다.

자공공 아카데미는 6시부터 모여 주먹밥 등 간단한 먹거리를 나누는 후, 50분간의 강의를 들은 다음 20분 조별토론, 40분 전체토론 순서로 진행되어 9시 전에 마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강의, 전체토론 모두 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10시 경이 되어야 종료되었다.



1강 3월 20일 // 왜 지속가능성인가?

조한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철(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초빙교수)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에 갇혀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명제이다. 그러나 경쟁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류 역사가 경쟁의 역사라면 인류가 지금껏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공유지의 훼손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협력적 함의에 의해서 공유지들이 보존될 수 있는 조직적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부터 시작한다.

정철 박사의 강의

Simple Life - Live with Less, Live without Mass

Craftsmanship - Bricoler, 적정기술, 생활기술

Networks - 1:10:100:1000:10000, Networked Individual

2강 3월 27일 // 2012 런던 올림픽, 그리고 공생하는 도시 마을

김정후(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JHK Urban Research Lab 소장)

‘기후변화, 폐기물, 생물 다양성, 포용, 건강한 삶’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내건 2012 런던 올림픽은 경기장 건축공법과 개폐막식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경기장은 조립식으로 지어져 여러 개의 작은 경기장으로 재사용되도록 지어졌다. 또한 올림픽 부지 건설 시 산업 폐기물을 90% 가까이 재활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기획이 수립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올림픽 설계를 통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맥락의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지리학, 건축학, 사회학, 도시 설계, 마을 만들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 나눠볼 것이다.

3강 4월 3일 // ‘나’를 넘어, 차단하는 ‘우리’에서 초대하는 ‘우리’

엄기호(<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위험 사회’라 불리는 근대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에 내재된 위험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성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 ‘나’만의 노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초대의 언어가 아닌 ‘배제’의 언어로 되어 가고 있다. 나와 같은 사람과만 접속하고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급속히 차단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단속한다. 그로 인해 학습과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대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4강 4월 10일 // 가족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맹정현(정신분석클리닉 ‘혜움’ 원장)

근대 가족 안에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에 근본적인 균열이 있으며, 지금 한국의 40~50대 부모세대와 10~20대 자식세대를 특징짓는 나르시시즘이 있다.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세대들은 ‘부권’의 추락을 목도하면서 민족과 같은 ‘상징적 아버지’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자녀인 40~50대 세대들은 윗세대가 만들어낸 강력한 권위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 ‘자유로운 경쟁’을 들어앉힌다. 그때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경쟁판에 내몰린 10~20대 자녀세대는 냉소적 나르시시즘을 구축한다. 끝없는 상대평가 속에서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자기계발에 열중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속에서 냉소를 체화하게 된다. 권위의 추락과 믿을 만한 타자의 부재, 그리고 멘붕과 분열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가족의 재구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

5강 4월 17일 // 다른 세상을 여는 열쇠, 탈핵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하이데거는 근대 기술이 근원적 폭력/파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원자력 기술이 바로 그 대표적 기술일 것이다. 위험을 풀어가는 핵심은 그 사회의 거시와 미시 정치를 연결하는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탈핵은 기술과 정치, 거시와 미시, 그리고 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의제이다. 푸코의 표현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어주기(let live)”를 바라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사회, 김종철의 표현대로 ‘조직화된 무책임의 체계’가 지배하게 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생존형 이익집단이 대거 생겨나기 시작한 상태에서 탈핵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 것일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주제를 탐색한다.

6강 5월 1일 // Ecological Internet :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전길남(KAIST 명예교수), 윤종수(판사, Creative Commons Korea 프로젝트 리더)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탈근대적 글로벌 시대를 연 전환의 매체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근대화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립성의 세계를 만들어낼 새로운 공유지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적/생태적/비판적(Critical) 인프라이다. 인터넷을 일방적으로 지배한 ‘오픈 인터넷’의 미국 패권도 끝나가지만 다른 한편 중앙집권적인 국가들에 의해 ‘글로벌 공유지’로서의 인터넷도 위협받는 디지털 냉전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다중이해관계자(Multi-Stockholder), 선진국과 리더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본다.

7강 5월 8일 //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의 경제’로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글로벌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본이다. 금융은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국가와 개인 모두 금융을 통한 ‘성장의 지속’을 꿈꿔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금융이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삶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흉기가 되었다. 아파트에서부터 금융상품까지 개인과 가구마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고 그 급부로 보험만 발달하고 있다. 돈의 순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로 가는 여정에서 경제가 성장을 위한 돈벌이에서 살림살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8강 5월 15일 // 멘붕과 힐링: 무엇에 넋을 잃고 무엇을 치유하고자 하는가?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멘붕의 시대라고들 한다. 누구든 갑자기 멘붕을 선언하면 주변 사람들은 멘붕된 사람이 갑자기 ‘잠수타고’ 사라지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 또한 언제 멘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대의 친밀성이란 멘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결국 돌봄 대신 힐링이 산업화된다. 멘붕은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서 일어났지만 힐링은 저 곳에서 저 ‘전문가’를 통해 한다. 이런 분열에서 서사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더 이상

# 自共公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가꾸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며



## 자공공 아카데미 1기 : 공간과 사회 큐레이터 학교

하자허브 '자공공 아카데미' 1기의 주제는 사회와 공간 큐레이팅입니다. 다양하고 활기찬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관(官) 민(民) 소통과 화통, 개인의 욕망과 불안함을 넘어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원리를 삶 속에 구현하는 방법을 두고 배움을 시작합니다.

### 1강 : 10월 31일 관민 협력, 소통과 화통 : 마을공동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와 이야기기 :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김태근(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 2강 : 11월 7일 작업장, 단골경제, 그리고 마을 : 땅콩집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와 이야기기 : 이현욱(땅콩집 건축가), 이경일(공간·건축문화> 편집장)

### 3강 : 11월 14일 공간을 통한 사회 큐레이팅

>> 발표자와 이야기기 : 안상수(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이강오(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박길중(김종상가), 사이이다(이태원 주민일기)

### 4강 : 11월 21일 정책과 현실의 만남 :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와 이야기기 : 조현욱(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황은진(건안한의원장)

### 5강 : 11월 28일 누가 부자인가? 무연 - 단속사회를 넘어

>> 발표자와 이야기기 : 김영배(성북구청장), 박영숙(노년사무소관제단 이사장), 하승우(올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문홍석(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6강 : 12월 5일 나르시시즘의 시대 : 경쟁과 냉소 사이

>> 발표자와 이야기기 : 맹정현(정신분석가, <리버풀로자> 저자, 파리 8대학 정신분석학),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승화(연세대 사회학과)

### 총강 : 12월 12일 엮이고 엮는다는 것, 판을 짜고 돌린다는 것

아카데미 1기 마무리 파티

\* 발제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간 : 2012년 10월 31일 (수) ~ 12월 12일 (수)
- ▶ 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식사 6시~7시 / 포럼 7시~9시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포럼 직후 10시 반까지 토론
-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허브 203호 / 온라인을 통한 토론과 학습
- ▶ 대상 : '자공공(自共公)'의 삶을 지향하는 20~50대 누구나
- ▶ 참여인원 : 정규 수강생 15~20명, (개별 강좌 참가자 포함 50명 이내)
- ▶ 참가비 : 수강생 5만원 (식사비 포함) 입금계좌 089-031703-04-078 기업은행 / 예금주: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 신청방법 : 10월 30일(화)까지 자신이 자신이 그간 해온, 또는 안 해온 사회 큐레이팅 경험을 중심으로 쓴 자기소개서를 이운주(fallenisland@gmail.com)에게 보냅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개별 강좌 참여를 원하는 분은 해당 강의 하루 전까지 이름/소속/연락처를 보내주세요. (회당 식사비 포함 5천원)
- ▶ 주최·주관 :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무엇에 넋을 잃고, 무엇을 치유하고자 하는가. 친밀성의 구조, 돌봄의 파탄, 나르시시즘과 무연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본다.

9강 5월 22일 // 무너지는 아파트 공화국, 다시 만드는 삶의 공간은?  
선대인(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뉴타운과 아파트 재건축 불이 꺼지고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건축 불이 꺼지면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는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투기 욕망과 함께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것이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던 지난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매 이익을 위한 상품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그전과는 다른 주거를 상상해야 할 시기이다. 공유도시, 코하우징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까?

## ● 성과와 전망

각 강좌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각 강의를 찍은 영상과 꼼꼼한 녹취록을 자공공넷을 통해 올려 공유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아카데미 당일 일손을 돕고 녹취록을 기록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협동 감각이 있는 이들을 하자허브의 한 그룹으로 계속 남길 수 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강의 이후 연결된 조별 토론 역시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5강 이후 이미 짜여진 조를 임의로 다시 섞은 이후부터 조별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원들의 유대감 형성과 원활한 토론을 위해 처음 짜여진 조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는 참가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강좌 후반부로 가면서 전체강좌 수강자들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개별강좌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조별토론의 연속성이 떨어진 감도 있었다. 이와 함께 토론의 활기와 참여율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9주 강좌가 다소 길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토론시간이 짧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하나하나의 강좌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전체적인 연속성이 흐트러진 것도 향후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몇 주 동안 학습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후속모임과 같은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함께 일할 파트너와의 만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가 가능할지가 이후 보완될 고민으로 남는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는 자공공넷 웹사이트를 통한 아카이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매주 한 회 강좌가 끝날 때마다 자공공넷에 규칙적으로 강좌 속기록과 영상기록, 그리고 사진과 함께 한 현장 스케치 기록을 올려 수강생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무료 공개, 공유했기 때문에 당일 강좌를 놓친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자공공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넓은 차원에서 하자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강의와 포럼 등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자공공넷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more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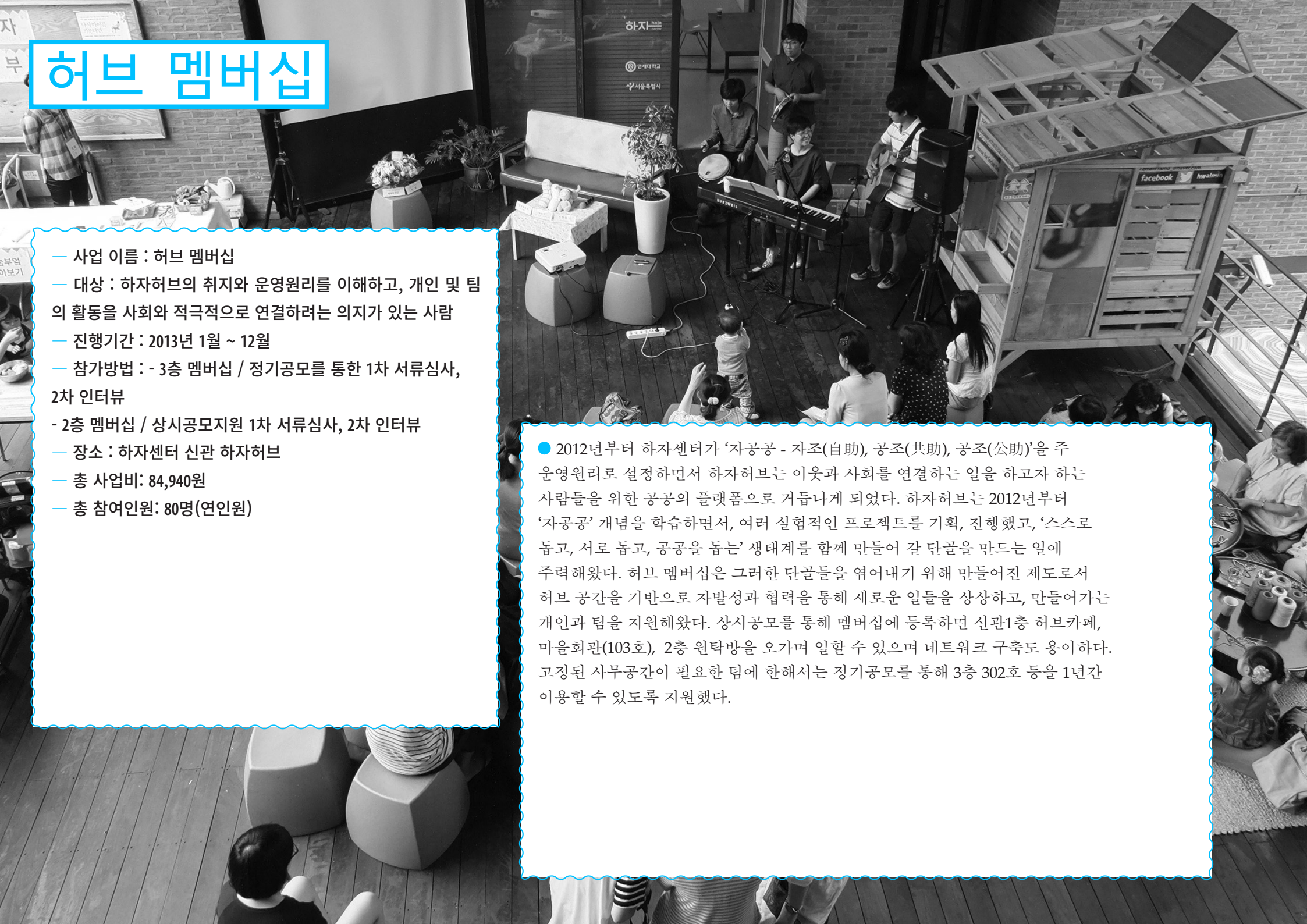
자공공넷 <http://jagongong.net>



# 허브 멤버십

- 사업 이름 : 허브 멤버십
- 대상 : 하자허브의 취지와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개인 및 팀의 활동을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 진행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참가방법 : - 3층 멤버십 / 정기공모를 통한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 2층 멤버십 / 상시공모지원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하자허브
- 총 사업비: 84,940원
- 총 참여인원: 80명(연인원)

● 2012년부터 하자센터가 ‘자공공 -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주 운영원리로 설정하면서 하자허브는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자허브는 2012년부터 ‘자공공’ 개념을 학습하면서, 여러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했고, ‘스스로 돕고, 서로 돕고, 공공을 돕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단골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왔다. 허브 멤버십은 그러한 단골들을 엮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허브 공간을 기반으로 자발성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개인과 팀을 지원해왔다. 상시공모를 통해 멤버십에 등록하면 신관1층 허브카페, 마을회관(103호), 2층 원탁방을 오가며 일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도 용이하다. 고정된 사무공간이 필요한 팀에 한해서는 정기공모를 통해 3층 302호 등을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 성과

2013년 상반기 허브는 멤버십 팀들이 함께 허브를 만들어가는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반상회와 티타임을 자주 가지면서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협업의 경로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십 팀들은 자연스럽게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그 과정에는 물론 자주 등글게 모여 앉는 수고로움이 따랐지만 이를 통해 개개인의 고립감을 줄이고 협력경제, 공유경제의 개념도 확산시킬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허브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했던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전망

멤버십 팀들이 허브의 ‘주민’으로서 각자의 재능과 활동분야를 적용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3년은 특히 팀들이 직접 주민 반상회 등 자치활동을 만들어가면서 자율적으로 ‘자공공’의 운영원리를 실천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2014년에는 주민들이 함께 허브를 돌보는 경로를 넓히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손을 쓰는 돌봄의 시간인 ‘핸즈아워(Hands Hour)’를 운영할 예정이다.

## ● more info

- 하자허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ja.hub](http://www.facebook.com/haja.hub)
- 자공공넷 : <http://jagongong.net/2014/>



# 나눔부엌

- 사업 이름 : 나눔부엌
- 대상 : 하자센터의 가치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하자를 찾는 전 세대, 다양한 배경의 커뮤니티
- 진행기간 : 2013년 6월 1일~12월 31일
- 참가방법 : 즉석 참여
- 참가비 여부 : 참가비 없음. 반찬, 후식, 식재료 등을 가져올 것을 권고함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하자허브
- 총 사업비 : 3,572,730원
- 총 참여인원 : 1,550명(연인원)

● 나눔부엌은 ‘마을’의 다양한 성원, 다양한 세대가 나눔과 돌봄,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을 구현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 독신 인구 등은 취사를 할 장소나 도구,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력이 되는 이들도 혼자 밥을 해먹기보다는 매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집밥’이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되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연대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로운 개인들이 홀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점점 원자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거리’나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소로 나눔부엌을 설정해 보았다. ‘창의적 공공지대’라는 성격을 갖는 하자허브(신관)의 카페, 주방 공간을 활용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만남의 장으로 기획, 진행되었다.

## ● 진행

나눔부엌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 \* 정기 수요 나눔부엌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나눔부엌’ 담당자를 중심으로 주로 허브팀 판들을 비롯해 하자센터 전체 판들, 자원활동가 등이 직접 조리한 밥과 2~3가지 기본 찬, 국 등이 매회 제공되었다.

나눔부엌 참가자들은 반찬 한 가지, 혹은 후식 등을 들고 와서 나눔부엌팀이 제공한 밥과 찬,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가져 온 음식과 함께 나눠 식사했다.

허브팀이 준비하는 음식은 여름에 닭백숙 등 절기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하자의 적정기술 프로젝트 결과물이기도 한 장작 화덕 등을 최대한 활용해 참가자들이 생채, 적정기술, DIY(DoItYourself)와 자급문화 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참가자는 하자의 판들 외에 하자센터 내의 사회적기업, 하자허브 멤버십 팀, 하자와 연계된 다양한 커뮤니티, 하자 성원들의 초대를 받아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회 평균 40~50명의 인원이 나눔부엌에 참가하였다.

### \* 이벤트 나눔부엌

나눔부엌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자에 마을행사가 열리고 많은 내외부 사람들이 초대받아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연동해 진행되었다. 나눔부엌과 연계된 대표적 마을행사로는 나눔부엌 오픈과 함께 진행한 박혜란 선생의 출판기념회,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하자마을 김장파티, 하자센터 생일파티 등이 있었다. 보통 발표, 공연 등이 함께 준비되고, 잔치 음식이 제공되는 가운데 100~200여 명이 참가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 \* 반찬 만들기 모임

집에 있는 반찬을 들고 오거나 식재료를 가져오면 요리를 해줄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식에 익숙한 이들이 반찬을 직접 준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시작하고 두 달 정도 파일럿 기간에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참가비로 대신했으나 자체 취지에 어긋나기에, 자리잡은 이후로는 대신 반찬 만들기 모임을 기획했다.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 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5~6회 정도 진행되었다.





## ● 성과

수요 정기 나눔부역은 2013년 연말 이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마을행사와 함께하는 이벤트 나눔부역도 하자 ‘마을잔치’ 일환으로 기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매회 40~50 여 명의 참여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활동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 ● 전망

대개의 ‘social dining’, 즉 ‘공공성 있는 밥 먹는’ 모임이 그러하듯이 나눔부역도 밥을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또한 2차적으로는 밥 먹는 모임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활동으로 확대시킨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이런 목적 아래 하자허브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나눔부역에서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학습과 실천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손쓰는 수(手)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학습모임, 각종 ‘소소한 생활기술’ 워크숍, 목공방 워크숍이 시작되었고, 흙공방, 자전거공방의 프로그램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음식/요리와 관련해 나눔부역 자체의 심화를 위해 반찬 만들기 모임도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일이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유업종 종사자 중심이라면, 토요일은 평일 낮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놀토’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요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하자센터 전체 방향과도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 more info

-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 하자허브 수요스케치 <http://jagongong.net/category/hub/hub-hands/>



# 허브 커뮤니티카페

- 사업 이름 : 허브 커뮤니티카페(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
- 대상 : 자공공의 취지와 부합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로 일주일에 하루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팀
- 진행기간 : 2013년 3월 21일 ~ 12월 27일
- 참가방법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1층 허브 카페
- 총 사업비 : 572,900원
- 총 참여인원 : 2,160명(연인원)

● 2013년 하자허브는 1층 카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허브의 콘셉트인 '자공공'과 연계한 작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작은 커뮤니티들이 중심이 되어 순환 형식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런 운영을 통해 각 커뮤니티별 수익 창출은 물론 허브 공간 활성화를 기대했으며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부대 행사 연계를 통해 허브 멤버십이 확장되고 작으나마 일거리가 생기리라는 전망에서였다. 이에 공모를 통해 6개 커뮤니티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요일 휴관) 요일별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들은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과 소규모 워크숍 및 교류행사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었다. 더불어 하자허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허브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 2기(운영기간 : 3월 21일~10월 12일)

요일	이름	소개 및 참여 취지	내용
화	숨(SOM)	-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창직을 위한 예비 협동조합 -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계기와 장 제공	창업, 창직 여성을 위한 포럼, 워크숍, 소모임 진행
	청소년 공간팀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학습 모임으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운영	관련 영상을 함께 보거나 서적을 함께 읽고 난 후, 토론 형식으로 진행
수		6월부터 나눔부역으로 전환	
목	달달 스튜디오	- 시각디자인 작업자 커뮤니티 - 시각디자인 작업자를 위한 허브 및 새로운 작업 생태계 만들기	시각디자인 작업자들의 재능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한 워크숍, 뜨개질과 인형 만들기 워크숍 진행
금	빨간뽀뽀 (5월 말 종료)	- 여성주의 미술작가 그룹 - 허브 공간을 활용한 미술작가들의 활동기반 제공	주제별 퍼포먼스 및 여성주의 미술작가들의 콘텐츠를 활용한 워크숍 기획
	달달버거 (6월부터 운영)	- 채식 위주의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며, 사회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함 - 20~30대의 건강한 목소리를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대안적 삶의 가치를 나누는 장 구축하고자 함	- 자연식 워크숍, 시연회 기획 -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20~30대 대상으로 유기농, 생태, 공정무역, 텃밭, 도시농업 등을 주제로 한 스터디 및 소모임 운영
토	소소한 공(共)방	- 20대 대학생들로 구성. 음식 문화에 대한 고민과 대안적 음식 문화 제안	멤버 각자의 재능을 살린 청년 활동 기획
일	바우문	-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과 버마 청소년 지원 NGO 따비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 - 기부 및 청소년의 일교육 과정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적정기술 워크숍 및 비전력카페 운영

요일	이름	소개 및 참여 취지	내용
화	오합지졸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 '요리를 통한 인문학적 삶의 확장'을 추구하고자 함	-인문학을 위한 카페/식당 운영 -인문학적 강연/세미나 개최
수		6월부터 나눔부엌으로 전환	
목	00테이블	-20대 모임으로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는 새로운 장터 기획 -‘재능 소개팅’ 워크숍과 ‘재능 교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무형의 자산인 재능이 교환되는 또하나의 경제구조 만들어가는 실험 시도	SNS 및 오프라인 게시판을 이용해 재능 교환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운영
금	금요살롱 봄봄	-함께 키우기와 함께 살기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수다모임 -각각의 돌봄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나누고,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제하는 장이 되고자 함	- 공동육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기적 상담과 컨설팅 진행 -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파티 진행(9월 30일, 11월 1일, 12월 6일) -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상담 - 내 손으로 만드는 형겅인형 만들기 모임(2회 진행)
토	열아홉 사회인	이미 사회에 진출해 고군분투하는 열아홉 사회인과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예비 열아홉 사회인을 연결해 소통하고, 함께 경험을 나누는 네트워크 형성 공간으로 활용	-좌절금지 프로그램 운영 -강연회나 선배와의 인터뷰 등 기획 및 진행 -개인 컨설팅 공간 활용
	토닥토닥 협동조합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금융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도모 -조합이 청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기 위한 모임 활성화	-조합원 소모임 및 테이블 토크 진행 -안 쓰는 물건 교환 행사
일	바우문	-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과 버마 청소년 지원 NGO 따비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 - 기부 및 청소년의 일교육 과정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적정기술 워크숍 및 비전력카페 운영

##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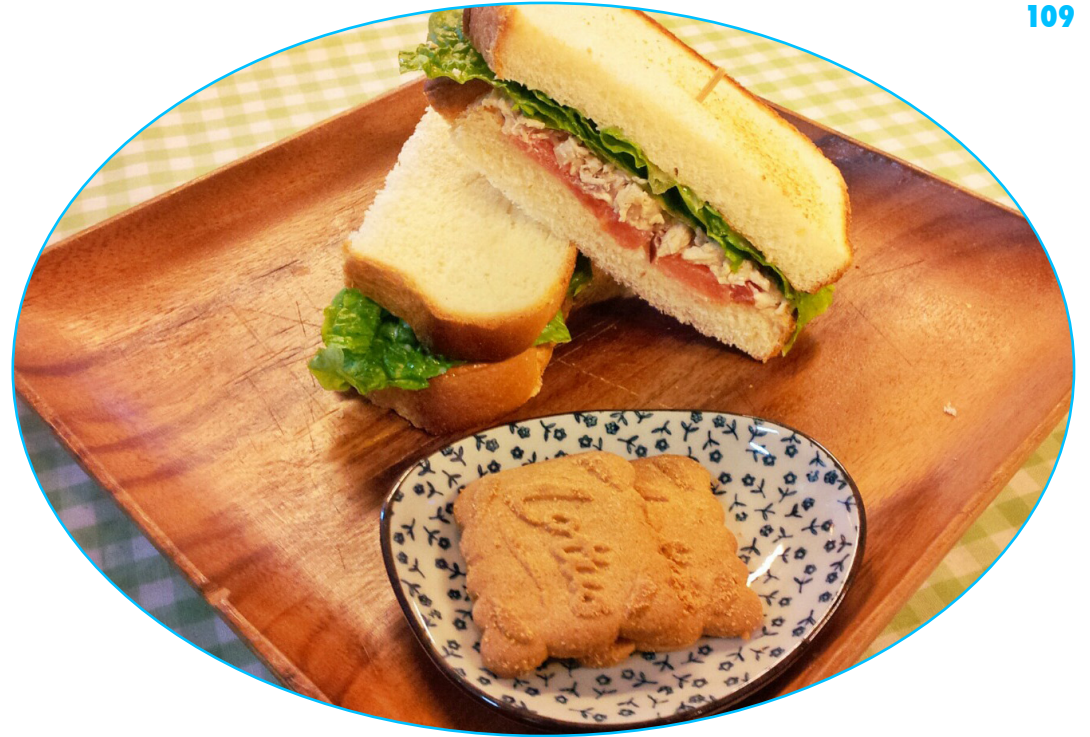
커뮤니티들은 허브카페라는 장소를 공유하면서 요일별로 공간의 주체이자 초대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각자의 특성을 활용한 소규모 워크숍과 모임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소소한 일자리’를 실험하였다. 건강한 먹거리 확산, 인문학적 삶, 협동조합 개설 준비, 새로운 경제구조에 관한 실험, 기부 등 목적은 각기 달랐으나, 대안적인 모델을 모색하고,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실험과 교류를 통해 허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했다는 면에서 공통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카페지기들의 다양한 연령대(10대~60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허브의 기본 취지인 ‘다양한 세대와의 만남과 교류’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 ● 전망

허브카페의 운영상 어려움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엄습하는 신관의 추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작도 추위가 한풀 꺾이길 기다리느라 늦어졌고,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다시 활동이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초 난방 보완공사가 마무리되면 계절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된다. 처음 취지와는 달리 수익에서 오는 고충을 이야기하는 팀도 있었으나 이 역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카페지기를 둔다거나 식사 준비에 불필요한 품은 들이지 않는 체제로 전환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에도 허브카페 운영팀, 손님으로 드나드는 하자마을 주민들, 2층과 3층 입주주민들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개개인의 벽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 more info

• 하자허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ja.hub](http://www.facebook.com/haja.hub)



# 허브 갤러리

- 사업 이름 : 하자허브 갤러리
- 대상 : 이웃과 사회를 연결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
- 진행기간 : 2013년 1월~12월
- 참가방법 : 상시공모를 통한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 장소 : 하자허브 신관 1-2층
- 총 사업비: 264,050원
- 총 참여인원: 80명(연인원)

● 하자허브 갤러리는 신관 1층 허브카페와 계단 및 2층을 아우르는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열리는 전시로 2012년 7월부터 관객을 만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허브에 접속해 자신의 작업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린 '문턱 낮은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덕분에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열리는 전시'가 허브갤러리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 ● 개요

회차	일자	내용
1	1월 25일	플레이 플래닛 사진展
2	2월 19일	오픈 라이브러리 - 김윤정 개인展
3	4월 6일	한아이 이야기그림展
4	6월 5일	세자매 양말인형展
5	7월 2일	내다리 내뵈展
6	7월 27일	토요진로학교 2기 활동보고展
7	8월 8일	정물로 보는 일상-이성의 개인展
8	9월 26일	명랑근황전-우영 개인展
9	10월 23일	THE 2 RUE - Long Time No Think展
10	11월 16일	토요학교 3기 활동보고展
11	12월 7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공유마당 展
12	12월 14일	‘즈음’ 展



## ● 성과

2013년 한 해 총 12회의 전시가 열렸다. 2012년에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갤러리 운영이 약 2년에 걸쳐 20회의 전시를 거듭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기반이 쌓이게 되었다. 현재는 꾸준한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전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특히 허브에서 열리는 전시가 하자의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어 확장이 되기도 하였다. ‘양말인형전’에 참여한 세 자매의 경우 직접 만든 양말인형을 전시하면서 하자허브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양말인형 만들기 워크숍을 열고,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마을장터인 ‘달시장’에도 참여했다. ‘달시장’ 연계는 작가 스스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감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장터를 찾은 많은 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 작가가 활동 범주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허브갤러리는 작가들이 ‘하자’라는 판을 만나 전시를 통한 ‘완성’보다는 ‘배움과 성장’에 기반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자허브 멤버십 팀들의 참여도 돋보였는데, 예를 들어 약 6개월 동안 하자커뮤니티카페의 금요일 운영을 담당한 이성이(씨니) 님의 경우 하반기 허브갤러리 전시작가가 되기도 했다.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으나 마땅히 전시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허브갤러리의 낮은 문턱은 큰 용기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참가하던 작가가 많았던 지난해(2012년)에 비해 올해는 하자 내부 교육사업의 성과 전시회 무대에도 활용되었다. 중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에 진행되었던 ‘청소년 토요일학교’와 한국암웨이 지원 어린이 창의교육사업인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결과물 전시회가 허브갤러리에서 열린 것이다. 이 두 사업은 대상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몸을 쓰면서 사회적 의제를 고민해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에 기반한 작업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 사업 내부에서만 공유된 뒤 사장되기 쉬운 결과물이 허브갤러리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욱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 전망

2014년에도 2013년과 같이 상시공모를 통해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자센터에서 자체 기획,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결과물 전시 및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 ● more info

- 하자허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ja.hub](http://www.facebook.com/haja.hub)





# 하자허브공방

생활의 기술, 손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학습 체험공방

#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

- 사업 이름 :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 공방
- 대상 : 14~19세 청소년 및 다세대
- 진행기간 : 2013년 1월~12월
- 참가방법 :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지하 목공방
- 총 사업비: 2,375,440원
- 총 참여인원: 2084명(연인원)

●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은 모든 것을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요즘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삶을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를 지닌 다양한 목공 워크숍을 기획, 진행한다.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 버려진 펠릿(빠레트) 등 폐자재들을 수거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리사이클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2013년 한 해 동안은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쿨라 등 하자 네트워크학교 청소년들과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일반 청소년들과도 라이프디자인캠프, 일일직업체험, 청소년토요진로학교 등으로 만났다. 생활도구를 다루는 태도를 익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만든다던가 모두가 함께 작은 집을 짓거나 공공공간에 필요한 그늘막을 제작,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 ● 진행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네트워크학교 중등수업	천천히 정확하게 깨끗하게	3월~12월 매주 화·목	신관 지하 목공방	생활 도구를 차분하게 다루는 훈련을 통해 몰입하는 경험을 태도로 익혀본다
일일직업체험	목공하자	2월~12월 매주 수·금	신관 지하 목공방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목공방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업해보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라이프디자인캠프	함께 집을 짓자	10.8~ 10.16	신관 중정	생활생산의 다양한 영역을 협업으로 함께 경험해보면서 삶의 다른 방식에 대해 상상력을 가져본다
토요진로학교	노들텃밭 그늘막 만들기	8월 2일	노들 텃밭	공공공간에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을 협업으로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체험을 해본다

## ● 성과

올해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만든다든지 모두가 함께 작은 집을 짓거나 공공공간에 필요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다. 피드백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만족가 대체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몸을 쓰고 공구를 사용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본다면 다양한 환경과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목공이라는 생활기술을 통해 도구를 다루는 몰입된 태도를 배우고, 버려진 폐목재를 이용해 쓸모를 만드는 경험은 상당 부분 신선하게 와 닿는 것으로 보인다. 늘 시장을 통해서만 물건을 구매하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써가며 ‘생산’해보는 것이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학교 중등수업에서 적용된 ‘천천히 정확하게 깨끗하게’라는 연습방식은 참여 청소년들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일상생활의 행동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진행된 라이프디자인캠프 역시 참가자 전원 매우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으며, 이때 인연을 맺은 몇몇 참여자들이 방학기간에 자발적인 공방활동을 하는 성과를 맺기도 했다.

## ● 전망

앞으로는 생활기술을 목공에 한정하지 말고 손과 몸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재구성해 협동과 개별 몰입의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를 느낀다. 실제로 라이프디자인캠프의 경우 목공 외에도 텃밭 경작, 요리, 각종 손기술 워크숍 등이 결합되어 참여 청소년들이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성과 역시 만족스러웠다. 이런 공동체 생산문화의 시도를 통해 첨단 기술문명 속 현대사회의 고립과 소외문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 무.나.사 자전거공방

- 사업 이름 : 지속가능한 창의적 동력의 '청(소)년' 자전거 공방 문화 만들기
- 대상 : 자전거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 진행기간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장소 : 하자센터 무.나.사(무한나눔사이클) 자전거공방
- 총 사업비: 9,610,000원
- 총 참여인원: 942명(연인원)

● 자전거 1천만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자전거는 개인적 건강의 차원에서 환경, 교통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전거 협동조합, 자전거 공방, 자전거 교육 등 생활 속 문화로 자리잡아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정책도 활성화되어 있다.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공방에서는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가, 자원활동가 등과 연계해 자전거를 매개로 한 진로직업, 생태, 지역연계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작업을 통해 사회와 청(소)년을 잇는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창의적 동력의 자전거공방 문화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 자전거 교실	협력학교 실과교실	자전거, 어디까지 알고 있니	3.12~12.5	자전거공방 및 한강 주변	산어린이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청소년들과 지구를 살리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해 휴먼 에너지를 재발견하고 우정과 협동을 통해 공공영역에 대한 감각을 배운다
	에코 리사이클링	청년활력 도시락 가게 ‘소풍가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지구를 살리는 에코 리사이클링	8.27~9.26	자전거공방	도시락 배달업무에 필요한 자전거를 함께 리사이클링하면서 ‘건강한 자원과 환경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청년활력 도시락가게의 비전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해본다
	청소년 창의캠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업사이클링	7.31~8.2	자전거공방	일상에서 버려진 폐자전거에 우리의 관심과 상상력, 그리고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며 에너지 자립을 실험해본다
	라이프디자인캠프	이동수단 다시 보기	10.8~10.16	자전거공방, 노들섬	몸과 마음을 고루 움직이며 진로와 일에 대한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도시형 체험캠프.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한 카고 바이크를 제작하며 몸의 감각을 되살리고 협동의 즐거움도 경험한다
커뮤니티 확산사업	세 바퀴의 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자전거공방 만들기(굴리샘)	3.2~12.31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실험 프로젝트
	심란한 공방	세대 간의 소통창구	1.1~12.31	자전거공방	누구나 소정의 회비만 내면 자전거 공방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자가정비하거나 리사이클링할 수 있다. 시니어 그룹이 장인으로서 청(소)년들과 협업하는 등 세대 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사랑방 같은 공간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사례를 만든다

## ● 성과

리사이클링, 청소년창업캠프, 라이프디자인캠프, 협력학교 실과수업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별 청소년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유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등 청소년들은 자전거 고급 정비수업보다는 기초 정비와 바르게 타는 수업(한강 자전거길 탐사, 내성천 여행) 등을 통해 자신 안의 에너지가 자전거의 동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선호했다. 고등 청소년들은 리사이클링이 가지는 메시지와 멈춰진 탈거리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다. 정비와 라이딩 과정의 특성상 혼자 힘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동료로 인식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1년 동안의 자전거공방 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학내(연세대 국제캠퍼스)에 ‘굴리샘’이라는 자전거공방이 생겨나는데 일조한 것도 성과 중 하나이다. 지금은 100여 대의 자전거와 정비공구 등을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고 있다. ‘굴리샘’의 자문 과정에서는 세대간 모임인 ‘심란한 공방’ 구성원들의 아이디어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직접 참여하여 피드백을 하는 등 공방의 자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전망

최근 들어 전환학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교과 공부 외에 실제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강의식 프로그램보다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깨우는 중장기 교실밖 체험학습의 중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무나.사 자전거공방은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각종 프로그램의 장점을 적용한 장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탈거리에 대한 바른 이해, 탈거리를 움직이는 인간 동력으로서의 나의 몸 살펴보기, 탈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여행하기, 탈거리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돌아보기 등에 좀 더 집중하다 보면 교육 현장과의 연계 지점도 좀더 많이 생기리라 기대해본다.

## ● more info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ike4life.kr>



# 마을 네트워크 & 파트너십

사회적 공유와 확산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 2013

##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사업 이름 :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대상 : 교육자 및 학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정책 및 행정 전문가, 청(소)년 등
- 진행기간 : 2013년 10월 25일(금) ~ 10월 27일(일)
- 참가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자유 참여
- 장소 : 하자센터, 성미산마을극장
- 총 사업비 : 36,753,345원
- 총 참여인원 : 3,836명(연인원)

●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10월 25일(금)부터 10월 27일(일)까지 3일간 하자센터 전관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으로 5회째를 맞는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매해 메인 포럼, 워크숍,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혁신적인 국내의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2013 서울 청소년창의서밋(이하 창의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는 현대의 소비생활은 인간의 오감을 퇴화시키고 감성을 각박하게 한다. 특히 소수만이 승리한다는 정해진 룰 속에서 무한경쟁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속불가능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를 단순히 개별 직종이나 직업 선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먼저 성찰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인간보다 더 혹사당하며 고갈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녹아있는 생태주의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삶’은 무엇보다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현장을 만들어낸 이들이 두루 초대되어 함께 했다.

## ● 진행

서밋 기간 동안 개막식부터 개별 워크숍, 포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키노트스피커로는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와 수잔 블룸(Susan Blum)이 초대되었다. 데니스 릿키는 1996년 문을 열어 미국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꼽힌 공립 대안고등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렉터이다. 그는 메트스쿨을 창립한 후 지역과 연계한 대안학교인 빅픽처스쿨(Big Picture School), 대안대학인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잔 블룸은 미국 노트르담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다. 그는 왜 학생들이 남의 보고서를 베끼고 표절을 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을 불사하는지를 연구하면서 대학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경쟁, 스트레스, 불평등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 모델의 대안으로 생태적 교육모델인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주요 국내외 게스트들의 사례 공유 및 발표 프로그램 외에도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청소년 진로’와 ‘생태적 교육’ 두 메인 섹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포럼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소년 진로 섹션에서는 메인 게스트인 데니스 릿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오픈토크-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 : 자신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를 비롯해 서울 곳곳 마을이 진로교육의 장이 되었던 사례들이 공유되는 ‘진로학교 포럼-학교 안팎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하자센터의 대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일일직업체험과 토요일진로학교를 교사 등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사례도 공유하는 워크숍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소년들이 옥상농원 텃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적정기술로 만든 화덕에서 요리하기, 폐목재로 의자/테이블/작은 집 만들기, 버려진 자전거를 재활용해 짐을 실어 나르는 카고 바이크 만들기, 직접 입을 작업복을 디자인해 재봉하고 일과 후 빨래하기 등 생활기술을 배우며 삶의 전환을 꾀했던 도시형 체험프로젝트 ‘라이프디자인캠프’의 쇼케이스 무대도 진행되었다.

생태적 교육 섹션에서는 10월 25일 오후 5시 ‘오픈토크 - 산업시대의 교육에서 퍼머컬처 교육으로’를 통해 수잔 블룸의 퍼머컬처 교육 개념이 더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다음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청소년 공개대담 with 수잔 블룸-지속가능한 배움과 삶’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 청소년들과의 생생한 대담이 마련되었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부터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관련 그룹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는 ‘이 시대 교육포럼 1- 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교육’이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2011년 핵누출사고를 겪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NPO법인 빈즈 후쿠시마(Beans Fukushima)의 와카츠키 치요(Wakatuki Chiyo) 이사장과 청년사업 ‘젊은이를 위한 서포트 스테이션’의 총괄을 맡고 있는 나나미 요시오 코디네이터가 참여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 시대 교육포럼 2-청소년이 말하는 에너지와 나의 성장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례를 직접

들려주었다.

포럼과 워크숍 외에도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는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들이 풍성했다. 특히 이 부대행사들은 하자센터가 청소년 진로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둔 지역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 및 그룹들이 참여해 더욱 뜻깊다.

가장 큰 행사는 개막일인 10월 25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마을장터 달시장. 영등포구청 주최, 하자센터 주관으로 올해로 3년째 5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인 7월 휴장)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는 달시장은 서밋과 맞춰 주제를 ‘마을 사랑’으로 잡았다. 서울 곳곳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가 소개되는 주제마당, 곳곳한 아마추어 마을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축제마당,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먹자골목, 지역 예술가들이 총출동하는 솜씨골목, 영등포 주민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 포함된 나눔골목, 다양한 어린이 워크숍을 준비하는 체험골목 등 곳곳에서 ‘연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서밋 개막일인 10월 25일 점심 시간에는 하자센터 중정에 200인분의 음식이 차려졌다. 2013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지역 이웃과 소박한 반찬, 따뜻한 밥을 나누며 진행해온 ‘나눔부엌’의 서밋판이다. 매일 먹고, 또 건너뛰기도 하는 밥 한 끼지만 같이 나누다보면 어느덧 대화를 나누고, 또 일도 함께 하게 된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제자들의 진로로 고심하는 교육자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온 활동가들, 문화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청년들, 또래들과 힘을 합쳐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소년들 등 모두가 모여 나누는 건강한 밥 끼기 전환과 연대의 출발임을 보여주려 한 구성이었다.

하자센터와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한 사회적기업들과의 협업 이벤트도 기획, 진행되었다. 공연분야 사회적기업인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주제 토론연극 <우리반 선옥이>에 서밋 참가자들을 초대해 주었다. 공정여행 분야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은 공정여행에 관심있는 이들을 초대해 10월 25일 오후 4시부터 ‘공정여행토크-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안내서’ 무대를 꾸렸고 영상 분야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 눈은 서밋기간 내내 참여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폐막식에서 결과영상으로 선보였다. 탈학교 비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집밖에서 유유자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은 정서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8개 단체들과 함께 10월 26일 오후 6시부터 하자센터 중정에서 ‘멘붕방지협약(가칭) 네트워킹 파티’라는 행사를 열었다. 하자센터와 함께 달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방물단은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손맛나는 워크숍 컬렉션’에 힘을 보탤다. 청년 예술작업자 그룹들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 행사에서는 서밋 참여자들이 바느질, 물레 등 손작업을 통해 생태적 감각을 되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즐거워했다.

1. 특별행사 섹션

① 서밋 열기(개막) : 개막 강연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4:10-15:50 / 신관 하하허허홀 / 400명

○ 내용

14:10 서밋 트레일러 영상 상영

14:15 여는 퍼포먼스

- 마임 모놀로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 / 박진식 마임이스트

- 클로징 영상: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 크리족 인디언 추장의 시

14:25 개막선언

14:28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축하 영상

14:30 조현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축하

14:35 문성빈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장 축하

14:40 황윤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개막사

14:45 개막강연1 - 공장제 교육에서 퍼머컬처 교육으로 / 수잔 블룸(미국 노틀담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14:55 중간 공연 - 즉흥춤 합동공연(네트워크학교 춤워크숍팀, SOS지역아동복지센터)

15:05 개막강연2 - 당신의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 데니스 릿키(메트스쿨 공동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디렉터)

15:15 개막강연3 - 다시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마을들 / 조한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하자센터 설립자)

15:25 창의서밋 전체일정 안내 및 클로징

15:35 닫는 퍼포먼스 - 페스테자, SOS지역아동복지센터, 무지개학교, 에듀케스트라 합동공연

15:45 기념촬영

② 서밋 닫기(폐막) : 쇼하자

○ 일시/장소: 2013년 10월 27일(일) 14:00-16:00 / 신관 하하허허홀 / 100명

○ 내용

14:20 서밋 밑줄긋기 영상 및 폐막 오프닝멘트

14:30 워크숍 쇼하자1 - 청소년 진로 섹션 회고 / 바다(교육팀), 가비(공방팀)

14:40 워크숍 쇼하자2 - 생태적 교육 섹션 회고 / 두부(학교팀), 마루(작업장학교 청소년)

14:50 워크숍 쇼하자3 - 사회적경제 섹션 회고 / 바른돌(협력팀), 고나(허브팀)

14:55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회고 영상

15:00 서밋 참가자 회고 : 수잔 블룸, 데니스 릿키, 조한혜정(이상 개막연사), 와카츠키 치요, 나나우미 요시오(이상 빈즈 후쿠시마), 가르(작업장학교 청소년), 김희동(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장),



박은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은아(진명여고 교사), 하현숙(울산지역 교육활동가) 등

15:30 황윤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폐막사

15:35 달는 공연 : 브라스밴드 공연 및 다함께 추는 왈츠

- 에듀케스트라 청소년 브라스밴드(노원 중계복지관 '통스타', 명일중학교 '늘빛브라스')

- 다함께 추는 왈츠(하자작업장학교 즉흥춤팀)

### 3 서밋 나눔부엌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2:00-13:30 / 신관 중정 및 허브카페 / 220명

○내용: 2013년 6월부터 영등포 지역에서 나눔과 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열린 하자허브의 수요 나눔부엌을 서밋 개막식에 맞춰 오픈. 동료, 이웃과 소박한 반찬, 따뜻한 밥을 나누며 커뮤니티로 성장해가는 나눔부엌의 취지를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음

### 4 서밋 하자투어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6:00-17:00 / 하자센터 전관 / 15명

○내용: 하자센터는 2010년부터 '자공공: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을 콘셉트로 나와 이웃을 살리면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해 옴. 서밋에 맞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 현장으로서 하자센터를 알리고자 서밋 개막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1시간 가량의 하자투어를 실시함. 하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들과 그 공간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프로젝트를 설명함

### 5 서밋 밑줄긋기 책장

○일시/장소/: 2013년 10월 25일(금)-10월 27일(일) / 본관 쇼케이스 돌림책장 및 신관 허브카페 책장

○내용: 하자 스태프(판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하는 2013년 서밋을 준비하며 함께 읽었던 도서들을 책장에 비치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 속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뽑아 전시함

## 2. 청소년진로섹션

### 1 오픈토크 1 -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 : 자신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6:00-18:00 / 신관 203호 / 70명

○내용: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의 강연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 공립형 대안학교인 메트스쿨(Met School)과 이를 대학과정으로 확장한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패널토론을 통해 틀에 박힌 정규 교과나 학교 안의 한정된 학습자원을 넘어 학교 밖에서의 공동작업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개성과 진로를 발견해가는 학습모델에 대한 실천적 논의의 시간을 가짐



○구성: 데니스 릿키(컬리지 언바운드 디렉터, 발제), 김찬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사회), 김선옥(꿈틀학교 대표교사, 토론), 서정화(노원 상상이룸센터, 토론), 금지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 ② 진로교육포럼 - 학교 안팎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0:00~12:30 / 신관 하하하하홀, 103호, 302호, 303호 / 80명
- 내용: 공간민들레,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숨쉬는도서관 등 공교육과 연계하여 실험적 진로교육을 진행했던 현장 사례발표를 듣고, 각 현장 사례별 테이블미팅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와 네트워크의 시간을 가짐.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이후 지역사회에서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기획해가는데 도움을 줌
- 배승태(공간민들레 길잡이교사, 발제), 박은주(숨쉬는도서관 코디네이터, 발제), 김수경(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총괄팀장, 발제), 민현(헤어스타일 민현 대표, 패널), 김다은(지구마을 청년대학, 패널), 신상하(성공회대, 패널), 안상원(신수중 교사, 패널)

## ③ 진로교육 워크숍 1 - 일일직업체험을 통한 발상전환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0:00~13:30 / 본관 204호, 신관 201호, 목공방 / 22명
- 내용: 하자센터의 대표적인 진로프로그램인 일일직업체험을 교사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학교와의 연계지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 ④ 진로교육 워크숍 2 - 토요진로학교 사례 공유 : 직종 선택에서 삶의 태도로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3:30-15:30 / 본관 999클럽 / 50명
- 내용: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치를 두고 일하는 현장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제작 워크숍으로 구성된 토요진로학교의 2개 프로젝트, '버려진 동물을 위한 [ ] 제작 프로젝트'와 '가치 있는 일 만들기 : 지구를 살리는 일, '쌀모'를 만들다' 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2014년 토요진로학교의 학교 연계 추진을 위한 파트너 학교를 물색하는 자리가 되었음

## ⑤ 라이프디자인캠프 쇼케이스 - 전환을 위한 움직임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3:00-15:00 / 신관 203호, 허브 갤러리 / 70명
- 내용: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삶터, 놀이, 이동, 먹거리에 대한 다채로운 생활기술을 배우며 일정기간 삶을 전환해 본 라이프디자인캠프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급의 의미, 몸의 감각 되살리기, 협동의 즐거움, 생태적 감수성 등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본 이번 캠프를 통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 3. 생태적교육섹션



① 오픈토크 2 - 산업시대의 교육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7:00-19:00 / 신관 203호 / 70명

○내용: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로부터 지속가능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교육모델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 보는 포럼. 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은 농부가 작물을 키워내는 것과 같은 애정과 돌봄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과 농사는 유사한 관점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이에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수잔 블룸(노들담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제), 임덕연(의왕 내손초 교사/교육공동체 벗 '농사학림' 운영, 사회), 김광철(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서정초 교사, 토론), 정진영(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가락고 교사, 토론), 오창균(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토론)

② 청소년 공개대담 with 수잔 블룸 - 지속가능한 배움과 삶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5:00-18:00 / 신관 하하허허홀 / 120명

○내용: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는 수잔 블룸 교수와 대안학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함. 수잔 블룸 교수가 간단한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 참석한 모든 청소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③ 이 시대 교육포럼 1 -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9:00-21:00 / 본관 999클럽 / 150명

○내용: 국내 대안교육 현장들이 함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현재 후쿠시마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빈즈 후쿠시마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짐

○와카츠키 치요(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발제), 나나우미 요시오(빈즈 후쿠시마 청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발제), 강내영(지역 퍼실리테이터, 발제), 함원산(도리마을학교 산촌유학센터장, 토론), 신경준(태양학교 대표/송문중 교사, 토론), 하승수(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④ 이 시대 교육포럼 2 - 청소년이 말하는 '에너지와 나의 성장이야기'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7일(일) 10:00-12:00 / 신관 하하허허홀 / 120명

○내용: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및 생산양식 등을 총체적으로 성찰해보기 시작한 대안교육 및 공교육 총 다섯 개 현장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함

○김희동(대안교육연대 대표, 사회), 박정민(성미산학교, 발표), 서승현(푸른숲발도르프학교, 발표), 심원규(산티학교, 발표), 정민석, 홍인기, 김찬혁, 이호욱, 임재호(송문중, 발표), 마루(하자작업장학교, 발표), 와카츠키 치요(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발표), 나나우미 요시오(빈즈 후쿠시마 청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발표)



#### 4. 사회적경제섹션

##### ① 마을장터 - 달시장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7:00-21:00 / 하자센터 앞마당, 신관 중정 및 허브카페 등 / 2000명
- 내용: 5월부터 10월까지(7월 휴식기 휴장)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진 마을장터 달시장을 2013년 서밋 주제에 맞춰 '마을 사랑'으로 잡아 운영함

##### ② 손맛나는 워크숍 컬렉션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4:00-17:00 / 하자센터 중정 / 200명
- 내용: 인간과 사물, 도시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살피는 손작업 그룹들을 초대해 꾸민 자리로서 정보람의 '이면지 노트 만들기', 낭만메이커의 '베를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소소모모의 '곡식으로 동물인형 만들기', 목화송이협동조합의 '면 생리대 만들기', 지구마을의 '헌옷으로 브로치 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기술 워크숍 부스를 운영함

##### ③ 적정기술워크숍 - 햇빛건조기 만들기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7일(일) 10:00-13:30 / 하자센터 앞마당 / 26명
- 내용: 태양광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제작하고 이를 퇴비화하는 워크숍으로, 참가자들이 고비용 하이테크를 구사하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일상의 기술로서 적정기술을 배워봄

##### ④ 공정여행토크 -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안내서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6:00-18:00 / 신관 103호 / 39명
- 내용: 공정여행 분야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과 협업한 프로그램. 1부에서는 공정여행에 대한 정의, 현황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2부에서는 트래블러스 맵 등이 공정여행을 하게 된 이유와 현재 어떤 공정여행이 있는지 설명하는 형식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정여행 방법들을 참가자들과 논의하였음

##### ⑤ 멘봉방지협약(가칭) 네트워크 파티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6일(토) 18:00-19:30 / 신관 허브카페 / 40명
- 내용: 정서적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예술치유 및 진로지원,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짐
- 유사살롱(탈학교 비활동 청소년 음악치유), 기억발전소(정서적 위기 청소년 예술치유), 청년허브공작실(비활동 청년 쉼터), 참새의상실(정서적 위기 청년 의상디자인교육),



K2인터내셔널(히키코모리 자립 지원), 공공상담소(정서적 위기 청소년 대상 팟캐스트 운영)

⑥ 토론연극 <우리반 선옥이>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 10:00-12:00 / 성미산 마을극장 / 8명
- 내용: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문제를 파고드는 연극을 전문배우들이 보여주고, 관객이 직접 극을 바꿔보며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토론을 유도하는 공연을 진행함

⑦ 서밋 밑줄긋기 영상 -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

- 일시/장소/인원: 2013년 10월 25일(금)-10월 27일(일) / 하자센터 전관 / 40명
- 내용: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펼쳐지는 2013 창의서밋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에 담아내고, 이를 토대로 영상을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을 제작하여 폐막식 오프닝 영상으로 활용함



● 성과 및 전망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창의서밋은 기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홍보 성과는 미미했다.

‘지속가능한 삶의 전환과 연대’라는 올해 주제는 주요 참여자들에게 즉각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를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 설명할 때는 어려운, 실로 역설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지속가능성’을 실제 삶 속에서 고민하는 층이 분명히 있으며 이들은 하자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나,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서밋은 하자센터 및 마을의 향후 지향점을 뚜렷히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으며 첫 걸음을 댄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홍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 창의서밋은 청소년 진로교육과 생태교육, 사회적경제 등 섹션 별로 나뉘어 각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직접 참여해 체험하거나 기획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구조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기획 당시의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포럼과 워크숍, 부대행사들이 기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의 참여자들이 함께했고, 무엇보다 이들은 서밋에서의 일회성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만남의 자리를 기약해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전환에서 이어지는 연대의 장. 이 정도면 2013년은 창의서밋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해낸 한 해가 아닐까 한다.

올해는 맥락을 함께하는 파트너기관과의 연계도 시도해 보았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와는 키노트 스피커 중 한 명인 데니스 릿키를 공동 초청해 하자센터에서는 창의서밋의 개막강연, 오픈토크 등을 통해 메트 스쿨(Met School)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 및 청소년 등을 만나는 자리를, 청년허브에서는 컬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를 기획해 진행했다. 이밖에도 민간교류단체 ‘글로벌 액티비스트(Global Activist)’와 연계해 자카르타-서울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무원과 대학생 20명을 창의서밋에 초대해 나눔부엌과 달시장에서 그들의 전통공연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하고, 또 자율적으로 창의서밋의 다양한 워크숍에 참가하는 등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 more info

- 사이트 <http://jagongong.net/summit2013/>
- 사전등록 사이트 <http://archive.haja.net/summit>
- 주요 프로그램 영상 아카이브 <http://jagongong.net/category/2013summit/summit-2/>
- 서밋 뉴스레터 1호 2013 제5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http://www.haja.net/?p=4331>
- 서밋 뉴스레터 2호 지속가능한 교육의 혁신가들이 온다 <http://www.haja.net/?p=4308>
- 서밋 뉴스레터 3호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이들의 마을잔치 <http://www.haja.net/?p=4661>
- 서밋 뉴스레터 4호 다함께 그려본 ‘지속가능한 삶’의 마을 지도 <http://www.haja.net/?p=4682>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소개

- TBS <시사매거진 NOW> 2013. 10. 28

<http://tvcast.naver.com/v/95103>

- “공장식교육에 대한 해법은 농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 게스트 수잔 블룸 교수 강연과 인터뷰 소개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67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678)

<오마이뉴스> 2013. 10.27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학습모델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http://artezine.blog.me/90184609496>

문화예술교육웹진 <아르떼 365> 2013. 11. 13



# 달시장

— 사업 이름 : 달시장

— 대상 :

-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주민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 그룹

-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및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팀

- 사회적경제 및 복지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마을 공동체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생활기술, 대안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야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창업 희망 그룹

— 진행기간 : 2013년 5월~10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  
시~저녁 9시(5월 31일, 6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 7월 휴서기는 휴장

— 참가방법 : 이메일 신청(달무리, 별무리)

— 참가비 여부 : 5천원~1만원(달무리, 별무리)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 총 사업비: 49,042,380원

— 총 참여인원: 15,000명(회당 3000명)



## ● 개요

### \* 영등포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3년째를 맞은 달시장은 영등포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역시 이런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협동, 소비, 건강, 예술, 사랑 등 사회적 경제 관련 다섯 가지 열쇠말을 선정하고, 매달 개최될 때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의 주요 가치들을 특화시킴으로써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청년 창업팀, 문화예술창작자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 공간을 네 개의 골목과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별 사회적 경제 영역들의 특징과 이들이 전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색 있는 밴드들의 즐거운 공연을 통하여 영등포구를 비롯한 시민들이 달시장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영등포구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기반 마련

서울 전역, 특히 영등포구 내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서로 콘텐츠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또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을시장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달시장을 통해 다양한 수공업 작품들이 판매되었으며, 단순한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워크숍도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 \*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2013년 달시장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동네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단지 보고 듣는 수동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 사이에서 공동체의 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주요 주체

2013년 달시장에는 민관산학 분야 총 여섯 개의 주체가 참여해 협업했다.

#### -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달시장의 주최기관으로서, 영등포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달시장 역시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서, 영등포구는 달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구 차원에서 재정·행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했다.

#### - 하자센터



하자센터는 10대와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리면서 창의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와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에서부터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창의적 교육과 문화 증진, 사회적 창의를 활성화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공적인 창의 인프라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달시장 역시 중요한 하자의 플랫폼 중 하나이다. 사회적 경제 장터로서, 그리고 영등포지역 마을장터로서 달시장은 하자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마주할 수 있는 마당이다. 하자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 방물단과 함께 달시장의 전체적인 기획 방향을 잡아 나가며, 공간 및 시설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 방물단

주식회사 방물단은 달시장을 통해 모집된 청년들이 모여 하자센터의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성장했다. 2011~2013년 달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험을 통하여 장터 기획과 운영에 대한 실무적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이는 ‘헬로우문래’와 같은 예술장터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H-온드림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선유도 언플러그드음악축제인 ‘전신마취’, 성북구 길음동 임대아파트에서 열리는 ‘힐링장터’, 마포구의 365일 상설 장터 ‘늘장’ 등 다수의 마을장터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고 있다. “장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마을장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 - 생각하는 청개구리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한국암웨이와 펼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창의인재 육성사업으로 하자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아동복지기관 어린이에게 미술, 음악,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페스타’와 같은 어린이 창의 축제를 진행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달시장의 체험골목은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단순히 체험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울러 어른들까지 함께 어울려 다양한 세대의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 달무리

‘달무리’는 달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홍보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뜻한다. 보통 ‘셀러’라고 불렀으나 2013년부터는 ‘달무리’라는 더욱 친근한 명칭을 붙여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참여주체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달시장 내 4개의 골목, 2개의 마당에 개별적인 자리를 배정받고 총 5회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이야말로 달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다.

#### - 별무리

‘별무리’는 달시장의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자원활동가를 뜻하는 이름이다. 이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달시장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종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달시장 별무리들은 분리수거, 안전 및 주차관리, 대여 그릇 관리 및 설거지, 부스 관리 및 진행, 달무리 응대 등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달시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진행

\* ‘마을’로서의 달시장 - 4개의 골목과 2개의 마당

2013년 영등포 달시장은 ‘한 달에 한 번, 달빛 아래 생겨나는 마을’이라는 기본 콘셉트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운영의 가닥을 잡아 나갔다. 여기서 ‘마을’이라 함은 달시장에 참여한 많은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면서 즐기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면서 서로 ‘정’을 쌓으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연대하는 공간을 상징화한 것이다. 또한 이 마을을 달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4개의 골목과 2개의 마당으로 나누었다. 즉 2011년과 2012년까지 달시장에서 열리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을에 맞게 유형화하여 ‘골목’과 ‘마당’이라는, 더욱 친근한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골목’과 ‘마당’이 모여 달빛 아래 마을, 달시장을 이루게 된다.

- 솜씨골목

솜씨골목은 2011~2012년 달시장의 ‘아트마켓’을 마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년예술가들이 직접 손작업으로 만든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으며, 진입장벽을 낮춰 일종의 ‘데뷔 플랫폼’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단순히 구매와 판매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술가들 및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계하는 참여형 워크숍도 다수 마련했다. 이를 통하여 예술과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아트마켓	○ 지역 기반 청년예술가, 문화작업자들, 동네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작품 판매 및 구매
성인 워크숍	○ 청년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 지역 주민이 서로 연계하여 만드는 주민 참여형 워크숍 ○ 영등포 주민 예술가 발굴 및 참여, 지속 지원 ○ 영등포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예술 워크숍 진행으로 예술과 삶을 이어주는 가치 구현

- 나눔골목

나눔골목은 ‘나눔’을 기반으로 한 베품시장의 주무대였다. 영등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 옷이나 책, 식기도구, 학용품, 가전제품 등 모든 분야의 쓸모 있는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베품시장이 형성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벼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중고물품 벼룩시장</li> <li>○ 옷, 책, 식기도구, 학용품 등 모든 분야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장터</li> <li>○ 내가 쓰지 않는 물품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나눔의 가치를 만든다</li> </ul>

#### - 나눔골목

나눔골목은 ‘나눔’을 기반으로 한 벼룩시장의 주무대였다. 영등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 옷이나 책, 식기도구, 학용품, 가전제품 등 모든 분야의 쓸모 있는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형성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오가닉 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생산자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직거래로 제공되는 장터</li> <li>○ 1차 생산자로부터 받은 식재료를 만든 가공식품이 제공되는 장터</li> <li>○ 생산자협동조합, 도시농업, 귀농 생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li> </ul>
먹거리 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나누는 장터</li> <li>○ 색다른 음식을 통해 식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터</li> <li>○ 영등포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팀이 운영하는 형태</li> </ul>
먹거리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체험형 워크숍</li> <li>○ 텃밭 가꾸기, 장담그기 등 다양한 유기농 식품 관련 워크숍</li> </ul>

#### - 체험골목

체험골목은 어린이 창의교육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 창작 워크숍들을 선보이는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하자센터에서 ‘중정’이라 부르는 신관 1층 야외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세팅된 체험골목은 지역 어린이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구분	주요 내용
어린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과 연계, 영등포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워크숍 진행</li> <li>○ 청년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워크숍</li> <li>○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워크숍도 개설해 다세대 콘셉트 적용</li> </ul>

## - 주제마당

주제마당은 2013년 달시장의 ‘얼굴’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진 배치된 주력 섹션으로서 협동, 소비, 건강, 예술, 사랑 등 관련 키워드 다섯 개를 선정, 5월부터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갔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달시장 방문자들과 교감하는 한마당이였다.

구분	주요 내용
매달 선정된 주제를 표현하는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 ‘협동’의 주제를 살린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참여</li> <li>○ 6월 / ‘소비’의 주제를 살린 윤리적 소비 및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사회적경제 조직들 참여</li> <li>○ 8월 / ‘건강’의 주제를 살린 영등포 기반 의료생협 및 건강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들 참여</li> <li>○ 9월 / ‘예술’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청년예술가들의 워크숍 마련</li> <li>○ 10월 / ‘마을사랑’을 담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 참여. 다양한 마을 공동체 행사 기획 진행</li> </ul>

## - 축제마당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축제마당은 2013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2011~2012년 진행되었던 인디 뮤지션들의 멋진 공연과 더불어 2013년에는 브라질리언 퍼커션 밴드, 판소리 및 현악 연주, 어린이 합창, 스윙 댄스 등 장르를 다양화했으며 특히 재능 있는 지역 주민들의 데뷔 무대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달시장만의 라디오 ‘달디오’도 계속 진행되었고 월별 주제를 살리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축제마당을 무대로 진행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월별 이벤트 진행	○ 매달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특별 행사 진행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 주민들의 데뷔 무대</li> <li>○ 사회적경제 관련 그룹 및 인디 뮤지션 공연 사</li> <li>○ 무대가 없는 청년들에게 쇼케이스 기회 제공</li> </ul>
달시장 미디어 ‘달디오’	○ 달시장의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하는 장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 \*기타 주민 대상 프로그램

달시장은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마을장터로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달시장 본격 오픈 전인 5월 초에는 마을 주민,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전체 설명회를 가졌으며 달시장 오픈 뒤에는 매달 달무리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져 달시장의 취지 및 운영 방침 등을 공유했다. 혹서기 휴장 시기였던 7월에는 중간 피드백을 듣기 위해 주민 모임을 개최해 사무국이 직접 만든 비빔밥을 대접했으며 연말에는 그간 달시장을 도와준 주민, 달무리, 별무리 등을 모두 초대해 마무리 파티를 가졌다.

### ● 성과와 전망

#### \*마을장터로서의 달시장

- 전 연령, 전 세대가 즐기는 달시장

2013년 달시장은 매회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영등포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대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마을장터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가족이 많았으며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찾아온 부모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이는 2013년 첫 선을 보인 ‘생각하는 청개구리’ 지원 및 주관의 체험골목이 가져온 효과이기도 하다. 청년 작업자들이 디자인한 자연적이고 개성적인 세팅, 손을 움직이며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다양한 워크숍,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등을 선보인 체험골목은 내내 큰 사랑을 받았으며 어린 아이들의 ‘약속장소’가 될 정도로 달시장 내 명물로 자리잡았다.

노년층 어르신들의 참여 또한 두드러졌던 것도 올해의 특징이다. 특히 8월 달시장 ‘달시장으로 건강하자!’에서 영등포지역의료생협이 주민을 위한 건강 체크를 해주었는데 이때 호응이 높았다.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늘어난 것도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한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재마당은 기본적으로 매달 사회적경제 관련 그룹들을 만나고 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색션으로 기획되었으며 솜씨골목 역시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작가들과 함께 직접 손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참여형 워크숍을 매월 배치했다.

그 밖에도 인디 음악을 비롯해 판소리, 클래식, 브라질리안 퍼커션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울리고, 또 지역 주민의 데뷔 무대가 열리는 등 다채롭게 기획된 축제마당을 기반으로 전 세대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장터가 형성된 것은 2013년 이뤄낸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달시장

2013년 영등포 달시장은 단지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한 순간에 모였다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면 마을장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 주민 설명회, 중간 평가회, ‘달시장 달달파티’ 등 주민들이 직접 달시장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한양아파트부녀회 등 이미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달시장은 한층 더 영등포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를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나눔골목의 베품시장이었다. 영등포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지만, 버리기엔 너무 상태가 좋은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이 이어진 것이다. 물건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주민들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채롭게 기획된 이벤트들도 마을 주민들에게 달시장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협동작품 만들기, 줄넘기, 기차놀이, 왈츠 추기, 영달송 율동 따라하기, 달시장 3층 경기, 비빔밥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 \*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달시장

- 영등포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마당

달시장은 단지 마을장터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달시장은 영등포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장터이며 이에 따라 영등포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매월 15~20여 개 영등포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해 홍보 및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서울시는 물론 전국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초대해 달시장 자체가 이들의 홍보 및 네트워킹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냈다.

- 영등포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는 단지 홍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장터'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총 390여 개 팀이 참여한 2013년 달시장에서는 매달 약 1천만 원 정도의 총 매출을 기록하는 활발한 구매와 판매가 이어졌다. 친환경 먹거리부터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은 골목 및 마당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미션과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여 배치하였으며, 달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매달 정해진 주제에 맞춰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다.

#### \* 영등포지역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참여자 수 및 매출 증가 등 몇몇 지표에 근거, 2013년 달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회'와 '경제'라는 일견 딱딱해보이는 용어가 전해주는 느낌에 불과할 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있음을 달시장은 보여 주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선보이는 참여형 프로그램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면서, 달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지역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이를 통하여 달시장은 영등포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 \* 세부 성과

사업명	영등포 달시장
사업기간	2013.05.03.~2013.12.31.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li> <li>○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기반 마련</li> <li>○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li> </ul>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달시장 운영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시장으로 ‘마을’을 형상화</li> <li>- 나눔골목, 솜씨골목, 먹자골목, 체험골목의 4개의 ‘골목’과, 주제마당, 축제마당의 2개의 ‘마당’으로 구성</li> <li>- 골목과 마당들 사이의 공간적 구분을 통해 운영의 안정화를 가져왔음</li> </ul> </li> <li>○ 달시장 홈페이지 &amp; SNS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시장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www.dalsijang.kr)</li> <li>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li> <li>- 달시장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활성화</li> </ul> </li> <li>○ 달시장 홍보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홍보영상 제작, 사진 촬영, 달시장 주제가 ‘영달이송’ 제작</li> </ul> </li> <li>○ 사회적경제 가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5대 사회적경제 열쇠말 선정, 영등포 주민에게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가치를 전달</li> <li>- 협동(5월), 소비(6월), 건강(8월), 예술(9월), 사랑(10월)</li> <li>- 월별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 참여</li> <li>- 영등포구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 참여,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li> <li>○ 영등포구 주민의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대비 더욱 많은 주민들 참여(10,000여명 이상 주민 참여)</li> <li>-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참여자 형성</li> </ul> </li> </ul>
사업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방문자 수 : 약 15,000여명 주민 참여</li> <li>○ 총 판매자 수 : 390팀 (5월 74개, 6월 85개, 8월 72개, 9월 87개, 10월 72개)</li> <li>○ 판매자 총 매출액 : 약 52,820,000원 (5월 11,200,000원 6월 11,330,000원 8월 9,690,000원 9월 10,810,000원 10월 9,790,000원)</li> <li>○ 홈페이지 총 방문자수 23,234회 / 페이스북 좋아요 2,068 / 트위터 2,443 팔로워</li> <li>○ 일간지 / &lt;동아일보&gt; &lt;세계일보&gt; 등 12회</li> </ul>

- TV 방송 / 아리랑 TV 현장 취재(5월)
- 라디오 방송 / MBC라디오 <시선집중>,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 KBS라디오
- 포털사이트 메인 노출 / 다음 1회(2013.07.01), 네이버 2회(2013.08.08, 2013.08.30)
- 라디오 소개 2회(CBS/KBS, 6월 달시장, 8월 달시장)
- 인터넷 매체 / <오마이뉴스> 2회
- 주간지 / <시사in>
- 월간지 / <베이비> <쎬씨> <전원속의 내집>

### ● more info

- 홈페이지 [www.dalsijang.net](http://www.dalsijang.ne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lsijang](http://www.facebook.com/dalsijang)
- 트위터 @dalsijang
- 블로그 [dalsijang.blog.me](http://dalsijang.blog.me)
- ‘영등포 달시장’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714005462524&nvr=Y>  
<아시아경제> 2013.05.27
- ‘달달한 달시장에서 함께 놀아요...영등포구 하자센터 달시장에서 축제같은 장터가 열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22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224)  
<오마이뉴스> 2013.06.01.
- 착한소비 붐... 서울시내 마을장터 ‘활기’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30630023347&subctg1=01&subctg2=&OutUrl=naver>  
<세계일보> 2013.07.01
- 여기저기 늘어나는 ‘도시형 장터’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40>  
월간 <시사in> 316호, 2013. 10. 11



2012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 사업 이름 :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 대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사회적경제 영역 창업 그룹
- 진행기간 : 2012년 9월
- 주최 : 서울시
- 주관 : 하자센터,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씨즈, 세스넷
- 총 사업비 : 345,334,720원
- 총 참여인원 : 10,000명

●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동안의 일회성 경진대회에서 탈피, 시민들이 서울의 문제를 직접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업화하는 시민주도형·참여형 프로젝트이다. 그동안의 유사한 경진대회가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는 높은 진입장벽과 실제 선정되더라도 후속지원 방안이 없어 비효율적이었던 것에 주목,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는 실행에서 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뚜렷한 사업효과를 도출할 계획으로 2012년 9월부터 출발했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공동의 생태계(관계망)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는 것이 특징. 하자센터를 비롯해 사회연대은행, 세스넷, 사단법인 씨즈 등 4개 기관이 주관 맡았으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사단법인 마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 또 ‘Co-up’, 씬지농부,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 \* 세부 일정

항 목	기 간	실시내용
위키토크 개최	9. 22 ~ 12. 8	오픈컨퍼런스 및 게릴라 컨퍼런스 개최
오픈 플랫폼 오픈	9. 28	‘위키서울닷컴’ 및 SNS 오픈
아이디어 공모	9. 28 ~ 12. 2	‘위키서울닷컴’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평가
시민투표	9. 28 ~ 12. 10	‘위키서울닷컴’을 통해 아이디어 투표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12. 11 ~ 12. 18	38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
1차 선정 아이디어 발표	12.21	38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발표
솔루션 개발 및 기본교육	12. 22 ~ ’13. 3. 8	상시 코칭 및 멘토링
크라우드펀딩	’13. 1. 28 ~ ’13. 3. 8	크라우드 펀딩 실행
최종 선정 아이디어 발표	’13. 3. 19	10개 창업우수팀 발표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	’13. 3. 29	10개 창업우수팀 포함, 38개 팀 결과 발표
후속 지원	’13. 4. 1 ~ ’13. 10. 31	창업우수팀 후속 지원

## ● 진행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는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한 사회혁신,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본격적으로 접목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협업 집단 지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 어렵고 생소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회적경제를 서울 시민들 곁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경제”로 구현하는 것이 대회의 핵심목표이자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생활 속의 지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로 지원한다”는 콘셉트 아래 오픈 온라인 플랫폼인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을 개설했으며 총 27회의 위키토크(순회공청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과 서울시 곳곳에서 이야기마당을 열고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수소문했다.

이 결과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 가입회원 수가 1만2천명을 넘어섰고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25개의 시민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을 전문가 심사(40%)는 물론 ‘위키서울닷컴’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에 기반한 시민 공감도(50%), ‘위키서울닷컴’에 탑재된 교육 콘텐츠 활용 정도 및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도(소셜댓글) 등으로 측정된 활동지수(10%)를 바탕으로 추려내 2012년 12월 초, 총 38개의 우수

아이디어 선정팀이 선정되었다.

이들 38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팀들은 선정 이후 2013년 3월까지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해보고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하자센터, 희망제작소, 세스넷,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씨즈 등 사회적경제 전문기관과의 1:1 멘토링과 코칭을 받으며 사업계획서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시민들의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개미폰서와 굿펀딩을 통해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13팀이 목표액 달성에 성공했으며 총 모금액이 94,884,100원에 달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친 38개 팀은 △전문가 심사(60%), △시민 공감도(30%) △활동지수(10%) 등을 토대로 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으며 이 결과 창업자금 1천만원 지원,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입주, 지속적인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받을 창업우수 10개 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를 널리 모은 대회여선지 대학생부터 IT 전문가, 디자이너,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면면을 지닌 창업우수 10개 팀은 무엇보다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지만 포기하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미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솔함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은 지방에서 올라와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서울살이를 감수해야 하는 지방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임시거처이자 커뮤니티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했다. 함께 선정된 ‘열린옷장’ 역시 취업 면접 등으로 정장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대여 서비스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지만, 가정집 옷장이나 의류회사 창고에서 방치되었던 자원도 재활용되는 훌륭한 공유경제 기반의 아이디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아이디어들도 관심을 끈다. ‘오늘공작소’라는 청년 그룹은 ‘청년가게 101’이라는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청년들이 자전거로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메인 사업이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스토리가 있는 시장만의 서비스가 필요한 전통시장의 절묘한 파트너십인 셈이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3조원에 달하는 지금, 차 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주차 공간이 남는 사람을 1:1로 연결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앱 서비스 ‘주차친구’도 눈길을 끌었다. 비영리법인 TIDE Institute가 내놓은 아이디어 ‘Fab Lab Seoul’은 한때 ‘인공위성에서 잠수함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었던’ 세운상가의 숨은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반인들도 자기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회원제 공작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창업 활동을 돕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질병, 고령화 등으로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최초의 동물 대상 생활협동조합 ‘반짝반짝 반려동물 의료생협’, 비영리 조직들에게 IT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비영리IT 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제작, 공연과 음반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프로젝트 ‘솔깃’, 특허 기술을 이용해 커피찌꺼기를 찰흙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점토로 만들어 다양한 소품 및 친환경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C-Owl’,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멘토도, 또 멘티도 되는 교육협동조합 ‘가재울마을학교’ 등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 10개 창업우수팀의 계획은 3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각 팀이 발표를 끝낸 뒤 시민들의 가상 투자를 받아 실시간 호응도를 알아보는 현장 펀딩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창업우수 10팀에는 아쉽게 들지 못했으나 가능성을 인정받은 나머지 우수 아이디어팀들도 참석해 현장에 설치된 쇼케이스 등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2012 서울시민의제 38선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대회 종료 후에도 이들 참여팀들은 서울시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등 지원기관들로부터 맞춤형 후속지원을 받기로 했다.

### ● 성과와 전망

기존 대회들과는 달리 일상 속 아이디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 것이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의 최대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대회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 및 실수는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우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발상은 혁신적이었으나 기존 행정법규 및 지침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 하자센터를 비롯한 각 주관사는 실제 사업보다는 행정문제를 풀거나 정산지침에 맞춰 서류를 갖추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보나 광고활동 역시 당초 예상보다 제약이 많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또한 위키토크,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크라우드펀딩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인큐베이팅, 언론 캠페인, 콘텐츠 생산 등 여러 업무가 한 프로젝트 안에서 동시진행되다보니 대회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큰 난제였다. 각 주관 주체 간의 업무 영역이 확실치 않아 결국 특정 주관 기관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것도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다. 결국 이 모든 혼선과 불편은 좋은 뜻을 갖고 대회에 참여했던 시민 및 아이디어 팀들에게 돌아갔고, 이에 참여팀 전체가 주최 측인 서울시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3월 29일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를 끝으로 1회 대회가 종료된 뒤 2회 대회가 같은 해에 출범했으나 1회에 참여했던 모든 주관기관이 다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경제, 집단지성을 통해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일은 2012년 이 대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상호평가와 수정 보완을 통해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 ● more info

• 사이트 <http://wikiseoul.sehub.net/>



# 하자마을의례

- 사업이름 : 하자마을의례
- 대 상 :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 하자마을 주민 등
- 진행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 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5,869,967원
- 총 참여인원 : 1,320명 (실인원)

● 하자센터에서는 예년부터 성년식, 달맞이 축제 등 몇몇 의례들을 하자작업장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입춘식 등 몇 가지 의례들이 추가되면서, 돌봄과 환대라는 하자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절기와 마을 내 일정에 맞춘 의례들을 정리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자마을의례는 마음을 모으는 형식이자 과정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자마을 주민으로서의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며 2013년부터 하자네트워크학교가 주도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있다.



## ● 진행

날짜	이레명	내용
3월 21일	하자마을 입춘식	하자 네트워크학교 학생들과 판돌들, 사회적기업 및 허브 멤버를 비롯하여 하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웃하여 활동하고 있는 하자마을 주민들이 참여함. 한해살이 계획을 나누며,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하자마을 주민들 간의 상견례 자리
4월 25일	하자마을 시농제 (始農祭)	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작년에 갈무리 해 둔 씨앗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과 여흥을 나누는 잔치. 하자마을의 농사 시작을 알리는 마을의례
5월 20일	성년식	청소년기를 지내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는 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는 자리. 스무 살을 맞이한 하자마을의 청소년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의례
9월 19일	달맞이축제	가족을 떠나 먼 곳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 등 명절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추석을 축제처럼 나들이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 가족 위주의 명절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국식의 함께하는 축제문화를 다시 만들어보는 자리
11월 26일	김장잔치	하자마을을 비롯해 하자네트워크학교에서 진행한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수확물을 모아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김장이라는 전통 행사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결실을 하자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
12월 16일	하자 생일잔치	하자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로, 하자의 성장을 지켜봐온 친구들과 주민들을 초대하여 그간의 이야기와 소박하지만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잔치

## ● 성과

예년과는 다르게 2013년은 하자 네트워크학교가 마을의례의 중심에서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입춘식-시농제-성년식-달맞이축제-김장잔치-생일잔치로 이어지는 하자

마을의례의 기본적인 줄기를 잡아간 한 해였다. 각기 다른 매개로 연결된 학생들은 마을 의례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하자가 이야기하는 돌봄과 환대라는 화두를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음을 모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체험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마을의례는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판들과 연계 사회적기업 주민을 비롯하여 하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는 매개로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는 ‘고향’ ‘마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도시 안에서의 마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마을 만들기와 문화 회복을 위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 전망

의례는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담는 형식일 것이다. 때문에 의례를 통한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회복은 하자의 모토인 자공공(自公共) -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플랫폼 - 을 실현해 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3년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의례의 흐름을 정리하고 대략의 틀거리를 만들었기에 이후 하자마을의 전통으로 의례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하자마을의례는 네트워크학교를 넘어 하자마을 전체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가는 하나의 잔치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미 도시 안에서의 마을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새로운 마을 만들기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하자마을의례가 내부적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하자마을을 엮는 기본적인 매개로,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 ● more info

- 시농제 영상 <http://vimeo.com/64941951>
- 성년식 영상 <http://vimeo.com/66800469>
- 달맞이축제 영상 <http://vimeo.com/75371665>
- 하자센터 특별한 성년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105235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01052351&code=940100)

<경향신문> 2013. 5. 20

- 하자센터 오늘 오후 ‘성년의 날’ 행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60474&ctg=12](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60474&ctg=12)

뉴시스 2013. 5. 20



# 대외홍보사업

- 사업 이름: 대외홍보사업
- 대상: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 진행기간: 2013년 1월~2013년 12월

## 20대에는 00하자!

● 2010년 이후부터 하자센터는 핵심가치인 ‘자공공(自共公)’을 내재화하여 단순한 직업체험 공간이 아니라, 생애설계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한 학습생태계를 실험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공간을 지향해 왔다. 자공공이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줄임말로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를 살리며,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불안정한 ‘위험사회’를 살아내는 가치로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는 마을살이’를 강조함으로써, 상호부조와 나눔, 그리고 우정과 환대의 원리가 있는 삶을 뜻한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전체 비전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진로활동 허브’로 설정하고 단순한 진로 체험이나 설계를 넘어선 ‘생애설계’의 과정으로 전환, 삶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활과 자립을 모색하는 교육 생태계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 및 관련 전문가, 파트너기관 및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홍보에서도 하자센터라기 보다는 ‘하자마을’이라는 더 넓은 구도에서의 전환 움직임을 전하고자 했다.

2013년에도 하자센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하자센터 및 연계 네트워크 기관 및 그룹들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해 왔다. 직접 센터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는 정기, 비정기 하자투어를 비롯해 보도자료 발송, 취재 협조, 기획안 제안 등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 공식 사이트인 하자넷 및 정기 발송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하자센터 콘텐츠를 축적하는 아카이브하자, 자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자공공넷,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각도의 홍보 툴을 기획, 운영했다. 특히 하자넷의 경우 2013년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한 리뉴얼을 단행, 하자 소식을 더 빠르고 쉽게 대중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렛, 자료집 등 비정기 간행물들을 꾸준히 발간, 하자센터의 성과를 콘텐츠화하여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남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진행

\* 대외 홍보사업 현황

연 번	홍보 내용	대상	형태
1	하자넷(공식 사이트)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2	자공공넷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3	영어, 일어 블로그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4	SNS	대중	트위터, 페이스북 (수시 업데이트)
5	하자마을 뉴스레터	신청자	웹 뉴스레터(월 1회 정기 뉴스레터 발송, 비정기 발송)
6	아카이브 하자	대중 및 파트너 기관 및 그룹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자 아카이빙)
7	프로젝트별 외부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보고서 등 제작	프로젝트 대상자 및 대중	오프라인 배포 및 게시
8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	보도자료 온&오프라인 발송

\* 2013년 하자센터 및 하자마을 사람들을 다룬 주요 기사들

1. [조한혜정 칼럼]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대학은?

한겨레신문 2013.01.08

2. [조한혜정 칼럼] 무상 보육과 보편적 복지

한겨레신문 2013.01.29

3. 뺨도 없다, 스펙도 없다... 그래도 잘 사는 비법?

[고곰세의 좌충우돌 인터뷰 3] 청년 활력 도시락 가게 주인 단미와 쫄

오마이뉴스 2013.02.07

4. [조한혜정 칼럼] 동성결혼, 돌봄과 현대의 지수

한겨레신문 2013.02.19

5. 대안교육연구가 하태욱 교수...대전에도 ‘하자센터’ 만들어야  
뉴스1 2013.02.28
  
6. 황윤옥 신임 하자센터 부센터장 “10대 교육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여성신문 2013.03.01
  
7. 임대아파트에서 이런 걸 하다니.... 기발합니다  
[여럿이함께하는 펀딩42 ㉓] 임대아파트와 함께하는 힐링장터  
오마이뉴스 2013.03.08
  
8.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청소년들이 일냈습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한 '추모와 우정의 탈핵축제'  
오마이뉴스 2013.03.10
  
9. [조한혜정 칼럼] 빵과 장미  
한겨레신문 2013.03.12
  
10. [조한혜정 칼럼] 시간이 머무는 길, 모래가 흐르는 강  
한겨레신문 2013.04.02
  
11. [조한혜정 칼럼] 동네 나눔 부엌에서 시작하는 세상  
한겨레신문 2013.04.23
  
12. [조한혜정 칼럼] 성년, ‘여름살이’를 시작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한겨레신문 2013.05.14
  
13. 하자센터 특별한 성년식  
경향신문 2013.05.20
  
14. 하자센터 오늘 오후 ‘성년의 날’ 행사  
뉴시스 2013.05.20
  
15. 영등포 하자센터, ‘달시장으로 협동하자’  
폴리뉴스 2013.05.27
  
16. 사람 내음 가득한 ‘영등포 달시장’  
시민일보 2013.05.27

17. ‘영등포 달시장’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아시아경제 2013.05.27
  
18. 영등포구, 31일 경제 장터 ‘영등포 달시장’ 운영  
뉴시스 2013.05.27
  
19. [이사람] “정신장애인은 속도 대열서 이탈한 사람일 뿐”  
일본 ‘베델의 집’ 설립자 무카이야치 교수  
한겨레신문 2013.06.02
  
20. [조한혜정 칼럼] 아버지가 있는 마을  
한겨레신문 2013.06.04
  
21. ‘나눔부엌’에서 이웃 간 정 나눠요  
여성신문 2013.06.22
  
22. [조한혜정 칼럼] 7월칠석 바보들의 행진  
한겨레신문 2013.06.25
  
23. 착한소비 붐... 서울시내 마을장터 ‘활기’  
세계일보 2013.07.01
  
24. [조한혜정 칼럼] 밀양 문제로 프랙털 시대를 풀자!  
한겨레신문 2013.07.16
  
25. 6월 28일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린다  
뉴시스 2013.06.27
  
26. 연 10억원 매출 맛집의 ‘슬로 미스’ 사장님  
머니투데이 2013.7.20
  
27. 생각하는 청개구리 탐험캠프...창의력이 '쑥쑥'  
세계일보 2013.7.22
  
28. [수도권] 벼룩시장, 툭툭 튀는 주말 명물  
동아일보 2013.7.22

29.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탐험캠프’ 개최  
쿠키뉴스(국민일보) 2013.7.23
  
30.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탐험캠프’ 개최  
아크로팬 2013.7.23
  
31.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탐험캠프’ 개최  
이코노믹리뷰 2013.7.23
  
32.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탐험캠프’ 개최  
경제투데이 2013.7.23
  
33. <아름다운 이웃> “불특정 다수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  
문화일보 2013.7.23
  
34. 에너지의 날 행사 흥 돋구는 퍼포먼스  
뉴시스 2013.08.22
  
35. 자전거 돌려 음악 들려 드릴게요  
뉴시스 2013.08.22
  
36. "밥만 같이 먹어도 이웃간 갈등 없어요"  
아시아경제 2013.09.02
  
37. [조한혜정 칼럼] 백양로 호러 공사장 달맞이 밤샘 파티에 초대합니다!  
한겨레 2013.09.17
  
38.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생각하는 청개구리’ 개최  
아크로팬 2013. 9.26
  
39.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쿠키뉴스 2013.09.26
  
40. [조한혜정 칼럼] ‘아이 돌보미’와 ‘가사 도우미’ 사이  
한겨레 2013.10.08

41. 여기저기 늘어나는 ‘도시형 장터’들

시사IN Live 2013.10.11

42. [조한혜정 칼럼] 자녀를 평생 데리고 살 것인가?

한겨레 2013.10.29

43.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 11월 2일 정년 심포지엄 열려

여성신문 2013.10.29

44. ‘창조적 공동체 살리자’ 35년 조한혜정 교수 정년 학술대회

한겨레 2013.10.30

45. [W포토] 조한혜정 교수 정년 기념 심포지엄

여성신문 2013.11.02

46. 조한혜정 교수 “창조적 공동체가 분노를 해결하는 길”

연합뉴스 2013.11.02

47. 조한혜정 교수, 정년 기념 강연 “분노.부당함 푸는 길이 모두가 좋아지는 삶...”

경향신문 2013.11.03

48. “내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우리’다”

여성신문 2013.11.04

49. [조한혜정 칼럼]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풀어낼 역사 쓰기를 위하여

한겨레 2013.11.19

50. 무엇을 하자, 무엇도 하지 말자

[레드 기획] 고3 19살들 모인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여러 갈래 질문의 길을 만들고 답을 스스로 선택하는 아이들

한겨레21 2013.12.02

51. [조한혜정 칼럼] “수고하세요, 무림의 교수”

한겨레 2013.12.10

52. 하자센터, 19일 청년멘토 초청 진로콘서트

뉴시스 2013.12.13



53. "안녕들 하십니까?" 젊은 세대, 그들의 언어로 세상에 외치다!-조한혜정 교수 인터뷰  
YTN라디오 2013.12.16
54. '1세대 페미니스트' 조한혜정 교수 일민상 수상  
채널A 2013.12.19
55. 조한혜정 교수, 일민문화상  
경향신문 2013.12.19
56. 연대민주동문회 '올해 연세인' 장하나 의원·조한혜정 교수  
한겨레 2013.12.19
57. 조한혜정 교수, 제11회 일민문화상 수상  
뉴시스 2013.12.19
58. 조한혜정 일민문화상 수상자  
뉴스1 2013.12.19
59. '올해 빛낸 자랑스러운 연세인' 장하나·조한혜정  
연합뉴스 2013.12.19
60. [동정]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제11회 일민문화상 수상  
아시아경제 2013.12.19
61. 조한혜정 교수 "하고 싶은 걸 하되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죠"  
동아일보 2013.12.20
62. 일민문화상, 조한혜정 교수 선정  
중앙일보 2013.12.20
63. [조한혜정 칼럼] 난감함을 나눌 친구들과 따뜻한 한 해를!  
한겨레 2013.12.31



● more info

- 하자넷 [www.haja.net](http://www.haja.net)
- 자공공넷 <http://jagongong.net/>
- 영어, 일어 블로그 <http://ej.haja.net>
- 아카이브하자 <http://archive.haja.net>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center>
- 트위터 <https://twitter.com/hajacenter>

101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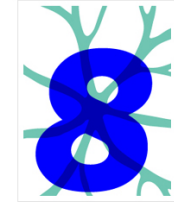
100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9월

하자센터 주관한 '시민 아이디어 발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29 @서울시청 0층 다목적홀)

99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8월

98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7월

97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6월

96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5월

2013년 5월 31일, 출애 첫 달시장이 열립니다

95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4월

한·일  
청년 현장 포럼

94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4월

93



하자마을 뉴스레터  
2013년 03월

# 하자투어

- 사업 이름: 하자투어
- 대상: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 진행기간: 2013년 1월~2013년 12월
- 참가방법: 정기하자투어(매달 1회 진행), 비정기하자투어(센터 자체 판단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 사회적경제 등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 참가비 여부: 정기하자투어(무료)  
비정기하자투어(1인당 1만원)
- 장소: 하자센터 내·외부
- 총 참여인원: 총 979명(실인원)

● 하자센터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진로교육 공간이자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확장된 실험의 산실로 널리 알려져 연 평균 1천여 명 내외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활동가, 청소년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자센터는 정기 및 비정기 하자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연간 10회 이상 진행하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진로교육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콘텐츠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	기관명	내용
1	1.7	따비에	하자작업장학교 태국 메솟 난민캠프 현장학습
2	1.18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	대학생 인턴 및 스태프 방문
3	1.16	대전전환교육거점센터	청소년 및 스태프 방문
4	1.18	경기도보육청소년담당관실	산하 공무원 방문
5	1.22	경상대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수료 대학생 및 스태프 방문
6	1.24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7	2.1	경기도 시흥시	청소년 활동 담당자들 방문
8	2.4	대전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 공무원 방문
9	2.6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 방문
10	2.15	일본문화협동네트워크	일본 관련 활동가들 방문
11	2.18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학생 및 교수진 방문
12	2.19	안양청소년육성재단	담당 직원 및 전문가 방문
13	2. 21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14	2.22	일본훗카이도/삿포르대학연구팀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15	2.22	전교조 전남지부	지부 교사들 방문
16	2.25	산자연학교	교사들 방문
17	3.5	울산 동구청	구의원 및 공무원 방문
18	3.7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교	재학생 방문
19	3.14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20	3.15	서울시	공무원 신입과정 연수
21	3.26	서울시	인재개발원신임리더과정연수
22	4.3	강원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방문
23	4.10	서울시 교육청	진로 담당 교사들 연수
24	4.16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들 방문
25	4.18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26	4.23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들 방문
27	4.23	YMCA	청소년 활동가 방문
28	4.24	서울시 교육청	진로 담당 교사들 연수

29	5.7	창원시 청소년수련관	담당 직원들 방문
30	5.9	전남교육연구원	담당 직원들 방문
31	5.9	제주도청	담당 직원들 방문
32	5.23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33	5.27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등 실무진 방문
34	5.30	일본 비전력공방	후지무라 야스유키 비전력공방 대표 3만엔 비즈니스 관련 강연
35	6.1	일본 베델의 집	활동가 및 당사자 강연
36	6.3	대구시 교육원	담당 실무진 방문
37	6.5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협회 소속 장애우 및 실무진 방문
38	6.12	서울시 교육청	진로 담당 교사들 연수
39	6.13	희망제작소	인턴 및 실무진 방문
40	6.19	서울시 교육청	진로 담당 교사들 연수
41	6.20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42	6.21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사회적기업 관련 활동가 및 실무진 방문
43	6.24	사회적기업 새날에오면	직원 방문
44	7.1	홍콩 Pooi to school	소속 청소년 및 교사 방문
45	7.4	고양시청	시의원 및 공무원 방문
46	7.15	홍콩 카리타스 스쿨	재학생 및 교사 방문
47	7.18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48	7.22	창동 청소년수련관	실습생 및 실무진 방문
49	8.6	울산 중구청	부구청장 등 공무원 방문
50	8.12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 연구진	연구 관련 실태 조사 방문
51	8.14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교사 연수팀 방문
52	8.22	경기도청	공무원 방문
53	9.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외 청소년 활동가들 방문
54	9.10	서울시	서울시 주최, 희망제작소 주관 SIX Summer school 해외 게스트 방문
55	9.23	고양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임원 하자투어
56	9.26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57	10.10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방문
58	10.17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59	10.26	수잔 블룸(Susan Blum) 노틀담대학 문화인류학과 학과장 및 켈로그 국제학연구소 펠로우십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키노트 스피커 참여
60	10.26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 미국 메트스쿨(Met School) 공동 설립자 겸 빅픽처 러닝, 컬리지 언바운드 창업자 및 디렉터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키노트 스피커 참여
61	10.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공무원 및 유스시스터 청년단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공연 및 참관
62	10.27	일본 후쿠시마 빈즈 재단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포럼 강연
63	11.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본 청소년 활동가 방문
64	11.14	시흥시	공무원 방문
65	12.19	정기하자투어	대중 및 관련분야 대상 상설 프로그램
66	12.20	J.P.모간재단	'자생, 삶의 기반' 사업 업무협약





**2013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haja Center annual report**

기획 & 편집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uze@haja.or.kr](mailto:uze@haja.or.kr)  
디자인 여혜진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 2677 9200  
[www.haja.net](http://www.haja.net)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 haja Center. Some rights reserved.

